'건강자산도 자산이니까'
자산관리에 건강관리까지
업계 최초 맞춤형 마이데이터
교보생명 peach

# 기독일보

LG 스타일러
Objet Collection

2024년 3월 6일 수요일 www.christiandaily.co.kr 구독신청 02-6085-8166 제 2495호

# "감리교 총회 재판국의 이동환 출교 판결 환영"

## 한반교연, 5일 기자회견 개최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대표 한익상 목사, 서기 장헌원 목사, 이하 한반교연)은 5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앞에서 '감리교 총회 재판국의 이동환 출교 판결을 환영한다'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또 이 단체는 이날 '천주교의 동성커플에 대한 축복', '동성커플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 '성전환수술 증명서 없이 성별 정정을 판결하려는 대법원의 처사'를 규탄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서에서 "감리교 총회 재판국의 이동환 출교 판결을 환영한다. 2024년 3월 4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는 동성애자들에게 축복식을 한 이동환 씨에 대하여 출교 판결을 확정했다. 이것은 교회의 기초인 성경을 수호하고 교리와 장정을 준수한 적법한 판결이었기에 한반교연은 이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했다.

이어 "이동환 씨가 성소수자들에게 회개 없는 축복을 행한 것은 반성경적 범죄행위이므로, 이동환과 이동환을 지지하는 자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천주교는 동성커플에 대한 축복을 당장 중지하라. 2023년 12월 18일 교황청은 소위 '간청하는 믿음'이라는 명분하에, 동성 커플이 원한다면 가톨릭 사제가 이들에 대한 축복을 집전해도 된다고 발표했다"며 "이것은 명백히 성경의 가르침을 거역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당장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동성커플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 2023년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법원이 동성커플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현행법 대한민국의 헌법과 현행법에 어긋나는 위법하고 월권적인 판단이므로 규탄받아 마땅하다"며 "대법원은 법리적으로 타당하고 이치에 합당한 판단으로 서울고등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아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성전환수술 증명서 없이 성별정을 판결하려는 대법원의 처사를 규탄한다. 대법원이 성별 정정 신청자에게 성전환수술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선택적으로 요구해왔던 예규 일부 내용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남성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생식력을 유지한 사람을 여성으로 인정해 주면, 이로 인하여 발생할 다수 여성의 인격권 침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했다.

이 단체는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여성 목욕탕, 여성 탈의실, 여성 화장실 등에서 여성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반대하며,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최광희 목사(17개광역시도 악법대응본부 사무총장, 예장 합신 동성애대책위원장)는 "조희대 대법원장님, 그리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 지금 대법원 행정처가 성별 정정 재판에서 성전환수술 증명서 제출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한국교회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는 바"라고 했다.

이어 "이따위 망국적 방안을 검토하는 이유가 성전환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남자 몸을 가진 채 법적 여성으로 살아가는 그 남자 때문에 다수 여성이 당할 수치와 인격 침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했다. 그는 위 제도를 통해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목욕탕에 침입하는 등 해외 피해 사례 다수를 제기했다.

한반교연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에 임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그러면서 "성별 정정 재판에서 성전환수술 증명서가 필수사항이었던 것을 4년 전에 참고사항으로 슬쩍 바꾸어 놓더니 이제는 아예 폐지하겠다니, 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사악한 방침을 추진하고 있는가"라며 "국민의 절반이 여성이고 또 모든 남성에게는 여성 가족, 즉 어머니와 누이, 아내와 딸이 있다. 그러므로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 정정 방침은 전 국민을 향한 테러행위"라고 했다.

그는 "지금 대법원 행정처가 해야 하는 일은 성별 정정 재판에서 참고사항인 수술 확인서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필수사항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며 "만일 폐지 방안을 그대로 밀고 나간다면 한국교회의 모든 교단 등은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대법원 행정처는)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예장 대신 소속 허장 목사는 지난해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의 동성동거인에게 직장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 부여를 인정한 판결을 규탄했다. 그는 "해당 판례의 1심 법원 판결은 동성동거인 소송인의 경우 헌법상 양성 간에 이뤄진 혼인이 아니고, 민법상 혼인신고를 통해 효력이 발생한 적법한 혼인이 아닌 동시에,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획득하지 못했으므로, 동성동거인은 직장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법치주의를 견지하는 공정한 판결"이라고 했다.

이어 "2심 고등법원 판결은 법치주의의 판결이 아닌 동성애 단체를 지지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압력에 굴복한 정치적 판결"이라며 "이 사건은 판결 여하에 따라 동성결혼 합법화로 악용하려는 동성애 단체의 불순한 의도가 숨어있는 파괴적인 사건이며, 대한민국 가족 질서와 사회 질서에 일대 심각한 파괴와 혼돈을 야기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녀관계와 생식과 출산능력의 문제, 부모와 자녀, 혈통과 인척 등 사랑의 씨날줄 관계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생명의 질서"라며 "중앙선을 지워버린다면 자유와 행복이 아니라 무질서와 혼란, 생명의 파괴와 같은 비극을 초래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동성동거인을 피부양자로 인정한다면 청소년층의 동성애 확산 및 에이즈질병의 창궐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동성동거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예장 합신 소속 이선우 목사는 "가톨릭의 동성커플 축복 허용은 동성애의 죄성을 흐리고 동성애자로 하여금 죄악의 가책을 제거하며 회개하지 않도록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동성커플 축복을 지지하는 가톨릭 사제들의 주장은 동성애를 죄라고 규정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 되는 망령된 축복이자 저주"라고 했다.

끝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박온순 목사는 "2019년 인천퀴어축제축복식을 집례하는 등 동성애 찬동 혐의로 기감에서 출교된 이동환 형제가 만일 좋은 스승을 만났다면 거룩을 좇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었는데 잘못된 스승을 만나서 일이 이렇게 돼 안타깝다"며 "기감 총회재판위원회의 이동환 목사에 대한 출교 결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재판이었다"고 했다.

이어 "동성애는 죄이다. 마약도 죄이다. 말씀으로 치유하고 회개할 때 이 같은 죄에서 벗어나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 말씀은 성적 타락에서 벗어나게 하는 날선 검으로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라며 "동성애자들은 원래부터 그렇게 태어났으니 존재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남녀 결합을 통한 결혼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진리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했다. 노형구 기자

# 출교 확정된 이동환 씨 "복직 투쟁 시작하겠다"

## 지난 4일 기감 총재위 이후 개최한 기자회견서 밝혀

지난 4일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총회재판위원회로부터 동성애 찬동 혐의 등으로 출교 처분이 최종 확정된 이동환 씨가 재판 이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복직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이어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저에 대한 출교를 확정지었다. 감리회 재판법에 나와 있는 대로 동성애에 찬성하거나 동조했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출교 판결을 낸 이날은 오랜 비웃음을 살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증인을 통해 동성애는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닌, 전환치료를 하려는 노력 모두 실패를 인정했다는 것, 병이 아닌 것을 고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듣고 배웠다"며 "바꾸려는 노력이 당사자에게 큰 폭력이고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이 불행해하고 죽어갔다"고 주장했다. 기감 총재위 2차 공판 당시 "동성애 유전자는 없다" "전환치료 등 탈동성애는 가능하다" 등 피상소인 측 민성길 명예교수(연세대의대 정신건강의학과)의 발언과 탈동성애에 성공한 박진권 선교사의 증언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그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며, (동성애 전환) 치료가 가능한 것이라고 스스로 세뇌시킨다"며 "허접하고 빈약한 사유와 이성"이라고 했다.

또 "재판 내내 부정적으로 노출되고 온갖 오해와 뒤집어써야 했던 분들에게 마음 깊이 위로를 전하고 또 용서를 구한다"며 "억울함도, 배신감도, 서운함도, 못내 지켜내지 못함에 대한 죄스러움과 밀려나는 서러움도 여기 내려놓겠다. 두려움과 비겁함도 다 여기에 내려놓는다. 이제 재판은 출교로 끝났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한다. 복직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5면 노형구 기자

이동환 씨가 기감에서 출교처분을 받고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 파키스탄 기독교인, 신성모독 무혐의 판결에도 투옥 중

파키스탄에서 신성모독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기독교인이 관련된 다른 사건에서 지난 20일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DI)이 보도했다.

피고 측 변호사 라자르 알라 라카(Lazar Allah Rakha)에 따르면, 24세 기독교 청년인 노만 마시(Noman Masih)는 경찰에 의해 두 차례나 불법으로 기소되었다. 마시는 두 번째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사건에서의 유죄 판결로 인해 여전히 사형수로 복역 중이다.

라카는 모닝스타뉴스에 "2월 20일 바하왈나가르 추가 세션(Bahawalnagar Additional Sessions) 법원 판사는 마시에 대한 사건이 어느 누구도 동일한 범죄로 두 번 이상 기소되거나 처벌될 수 없음을 명시한 일사부재리 원칙에 해당된다는 내 주장을 인정했다"고 했다.

그는 경찰이 두 도시인 바하왈나가르와 바하왈푸르에서 마시를 기소했다며, 이 과정에서 그를 이중처벌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라카는 "경찰은 사건이 테러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반테러법원에 기소하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시도에 저항했고, 사건이 세션 법원에서 심리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주장했다"며 "마시에 대한 경찰의 편향된 태도는 누군가가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그가 고통받기를 원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했다.

또한 그는 바하왈푸르 사건과 관련하여 판사가 4년간의 재판 끝에 2023년 5월 마시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검찰은 그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라카는 최근 무죄 판결이 마시의 사형 선고에 대한 항소를 라호르 고등법원(Lahore High Court)이 심리하여 그의 무죄를 판결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고등법원이 1심 법원이 무시한 검찰 측 진술의 누락을 검토한다면, 마시의 유죄 판결을 기각할 것이라고 1000% 확신한다"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시는 곧 가족과 재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경찰은 각 지역에서 노만 마시와 그의 사촌 써니 와카스(Sunny Waqas)를 '비밀 정보'를 근거로 체포했다. 2023년 5월, 편자브주 뉴센트럴 교도소 바하왈푸르(New Central Jail Bahawalpur) 법원은 형법 조항 제295조 C항에 따라 무하마드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한 혐의로 이들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노만 마시의 부모가 투옥된 아들의 사진을 들고 있다. ⓒ모닝스타뉴스

최초 정보 보고서(FIR)에 따르면, 바하왈푸르의 파키르와리(Faqirwali) 경찰서 견습 수사관인 프라즈 아메드(Fraz Ahmed)는 와카스가 이슬람 선지자에 대한 모독적인 그림을 그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검은 가방에 넣고 다닌다는 비밀 정보를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수사관에 따르면, 심문 후 와카스는 자신의 사촌 노만이 왓츠앱(WhatsApp)에서 신성 모독적인 이미지를 자신과 공유했다고 진술했다.

와카스는 2019년 6월 29일에 신성모독 혐의로 구금되었으며, 같은 해 7월 1일 마시는 바하왈푸르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2023년 1월 17일, 라호르 고등법원 바하왈푸르 지부는 와카스의 재판이 의무 기간인 2년 이내에 종결되지 않자 그에게 보석을 허가했다. 파키스탄 법원은 신성모독 용의자, 특히 295-C항에 따라 기소된 용의자의 보석 신청을 대부분 거부한다.

보석을 받은 후 와카스는 파키스탄을 도망쳤고, 법원은 그를 범죄자로 선고했다. 그의 사촌인 마시는 현재 바하왈푸르 뉴센트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사형 선고에 대한 항소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파키스탄은 2024년 오픈도어선교회(Open Doors)가 발표한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 순위에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7위를 차지했다. 유진 김 기자

# 美 200년 넘은 AME 교회, 반달리즘 테러 이후 모금 시작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마더 베델(Mother Bethel) 아프리카 감리교 감독교회. ⓒ마더 베델 교회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역사적인 흑인 교회가 기손 파손 공격을 당한 뒤 모금 행사를 진행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지난 24일 'CADO 마켓'(CADO Market)은 '유산회복제7구역헌정'(Legacy Reclaimed 7th Ward Tribute)과 협력하여, 18세기에 설립된 흑인 교회인 '마더 베델 아프리카 감리교 감독교회'(Mother Bethel African Methodist Episcopal Church)에 대한 지원 행사를 주최했다.

마켓 설립자 데보라 샤르멜루스는 현지 지역 방송국인 WPVI-TV에 "마더 베델은 미국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지속적으로 소유한 가장 오래된 땅"이라고 설명했다.

WPVI에 따르면, 지난 18일 주일 예배가 끝난 후 월요일 오전까지 한 사람이 마더 베델교회 창문에 돌을 던져 수천 달러의 손해를 입혔다.

NBC 필라델피아의 보도에 따르면, 교회 담임목사인 마크 켈리 타일러는 교인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한 개인이 교회의 여러 낮은 층 창문에 돌을 던졌다"라며 "이 사건은 사법 당국에 신고되었다"고 밝혔다.

이 공격으로 교회의 스테인드글라스 창문 3개가 파손되었다. 당국은 피해액을 1만 5천 달러로 추산했지만, 지역 언론인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는 수리 비용이 3만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파손 행위는 증오가 동기가 된 범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22일 가해 남성인 하니프 쿠퍼(39)가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마더 베델과 성요한 노이만 국립 성지(National Shrine of St. John Neumann)를 비롯한 여러 건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더 베델교회 설립자 리처드 엘런은 1790년대에 교회를 설립했으며, 그 이후 필라델피아 땅에는 여러 교회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현재의 교회는 1890년에 건축되었다. 올해 1월 이 교회는 '역사보존을위한내셔널트러스트'(National Trust for Historic Preservation, NTHP)로부터 9만 달러의 보존 기금을 승인받았다고 발표했다.

마더 베델은 페이스북을 통해 "134년된 건물의 중요한 보존 노력을 돕기 위해 이렇게 관대한 보조금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라며 "NTHP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문화유산 활동 기금과 흑인 교회 보존 보조금, 그리고 이 기금을 지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NTHP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문화유산 활동 기금은 현재까지 31개의 역사적 흑인 교회에 400만 달러를 지원했다.

유진 김 기자

# 미국인 55% "불법이민 매우 우려"…기록적 증가

새로운 갤럽(Gallup) 조사에서 기록적인 비율의 미국인들이 불법 이민을 국가의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갤럽은 2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집된 미국 성인 1016명의 응답을 기반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지난달 27일에 발표했다. 응답자들에게는 미국의 이민 문제에 대해 질문하며, 특히 불법 이민을 '치명적인 위협'으로 보는지, '중요하지만 치명적이지 않은 위협' 또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위협'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올해에 불법 이민을 치명적인 위협으로 규정한 미국인의 비율은 사상 최고치인 55%에 달했다. 더불어, 31%는 이 문제를 '중요하지만 치명적이지 않다'고 답했으며, 14%는 불법 이민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불법 이민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응답자의 비율은 2004년에 측정된 최저치와 같다.

정당별로는 공화당 지지자의 90%가 불법 이민을 '치명적인 위협'으로 꼽았으며, 무소속 54%, 민주당 지지자 29%가 이에 동의했다. 지난해에는 공화당 지지자(84%), 무소속(40%), 민주당 지지자(20%)로 나타나 격차를 보였다.

특히 다수의 미국인들(28%)이 불법 이민을 국가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문제로 꼽았다. 반면 지난 1월 미국인들이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문제에 대한 여론 조사에서는 '정부'와 '이민'이 최대 관심사로 꼽혔다. 조사 대상자들 중 21%는 미국을 집어삼키는 가장 큰 문제로 정부를 지목했으며, 이민은 20%였다.

갤럽 보고서는 "이민 문제가 다른 모든 사안보다 중대한 문제로 꼽힌 것은 중앙아메리카 이민자들의 국경 통과 시도가 급증했던 5년 전이 마지막이었다"라며 "이민은 2018년 7월과 11월, 2014년 7월에도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갤럽 조사는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이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이민자들과의 접촉이 기록적으로 많이 보고된 가운데 이루어졌다. CBP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남서부 국경에서의 월별 지상 접촉 건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직무를 시작한 2021년 2월 이후 지속적으로 10만 건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바이든 취임한 이후 남서부 국경의 법 집행 당국은 700만 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들을 상대했다. 이는 2020년 미국 인구 조사에서 측정된 미국 37개 주의 인구를 초과한다.

남서부 국경을 통과하는 월별 불법 이민자 건수는 2023년 12월에 30만 1983건으로 사상 최고치에 도달했다. 그러나 보고된 국경 횡단 건수는 2024년 1월에 17만 6205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미국 내 불법 이민에 대한 우려는 2024년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의 지지율을 악화시키고 있다. 리얼클리어폴리틱스(RealClearPolitics)가 1월 3일부터 실시한 여론조사 평균에 따르면, 바이든의 이민 문제에 대한 미국인의 순불만지수는 33.3%를 기록했다. 이는 2월 1일 이후 집계된 순불만지수(15%)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이달 초, 미국 하원은 국경 관리의 책임을 물어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국토안보부 장관의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하원은 마요르카스가 "이민과 국경 보안에 관한 의회의 법률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혐의로 그를 탄핵했다.

수천 명의 히스패닉계 이민자들이 미국 국경을 향해 이동하고 있다. ⓒNBC 뉴스 유튜브 캡처

탄핵 소추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려면 3분의 2의 찬성을 필요하지만, 상원의 당파적 구성(민주당 51명, 공화당 49명)을 고려할 때 그 가능성은 낮다. 유진 김 기자

# ‘한인교회에 기도의 불을!’ 다니엘기도회, 미주서 첫 진행

## 현지 시간 3일 댈러스 세미한교회서 시작…
## 9일까지 온·오프라인에서
## 김은호 목사 “기도와 감사의 거룩한 습관 갖자”

‘미주 다니엘기도회’가 현지 댈러스 세미한교회(담임 이은상 목사)에서 3일(이하 현지 시간) 시작됐다. 기도회는 오는 9일까지 7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다니엘기도회가 미주에서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미주 다니엘기도회에서는 기도회 운영위원장인 김은호 목사(오륜교회 원로, DNA미니스트리 대표·사진)를 시작으로 이용훈 성악가,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 이용규 선교사, 지선 전도사, 류응렬 목사(와싱톤중앙장로교회)와 오윤아 집사가 메시지를 전하며, 김명선 목사와 심형진 목사, 김윤진 간사가 찬양을 인도한다.

기도회 첫날 참석자들은 △한인교회에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며,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기도회에 참여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것 △참여하는 한인교회의 목회자들이 기도의 동력을 얻고, 영적인 재충전을 얻어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 등을 놓고 기도했다.

이날 다니엘 6장 10절 본문, ‘습관이 나를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김은호 목사는 “결국은 습관이 나를 만든다. 그렇기에 습관이 중요하다”며 “다니엘에게는 기도와 감사라는 아주 좋은 습관이 있었다”고 했다.

본문의 내용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이다.

김 목사는 “여기서 중요한 말은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이다. 다니엘에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것”이라며 “그는 포로였음에도 총리가 되었는데, 정말 바빴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미주 다니엘기도회가 현지 댈러스 세미한교회에서 3일(현지 시간) 시작됐다. ⓒ다니엘기도회

미주 한인교회들을 대상으로 첫 다니엘기도회가 진행됐다. ⓒ다니엘기도회

그러면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머문 시간이 많았다. 수는 질과 비례한다는 말이 있다. 기도하는 횟수만큼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운동을 많이 할수록 근육이 더 많이 생기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그 분과의 친밀함이 더 생기고 그 음성을 더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 목사는 “하루 세 번씩 기도한 다니엘에게는 거룩한 영성이 있었다.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 우리도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며 “간혹 사역이 너무 많고 바빠서 기도하기 어렵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해야 사역의 현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승리가 있었기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 있으셨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다니엘에겐 감사의 습관이 있었다. 감사는 믿음과 신앙이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사도들은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하고 감사했다”며 “감사는 어떤 결과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태도이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 앞에 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다.

김 목사는 “감사는 습관화 되고 체질화 되어야 한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과 역전의 은혜를 주신다. 감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감사할 수 있는 더 많은 일들이 생긴다. 무엇보다 나 자신이 변한다”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해야 할 건 감사의 기도”라고 했다.

그는 “기도와 감사는 최고의 습관이다.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그렇기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려야 한다”며 “말씀 안에서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기도회는 오는 9일까지 댈러스 기준 매일 저녁 7시 30분(뉴욕-PM.8:30, LA-PM. 5:30)에 진행되며, 장소는 댈러스 세미한교회다.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온라인으로도 참석이 가능하다. 기도회 관계자는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미주 지역의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연합과 영적인 회복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사랑의 헌금을 통해서 미주 지역 사회와 도움이 필요한 이웃, 미자립교회와 선교사님들의 수술과 치료 등을 도울 계획이다.

다니엘기도회는 서울 오륜교회(담임 주경훈 목사)를 중심으로 전 세계 약 16,000 교회의 동참 속에서 매년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한국교회 초교파 기도회다. 현재까지 26년간 이어져 왔다.

김은호 목사는 “다니엘기도회는 어느 한 교회의 기도회가 아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함께 받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같이 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연합기도회”라고 소개했다. 김진영 기자

# “한국교회, 창조질서 거역하는 퀴어신학 퇴출시켜야”

## ‘동성애·동성혼 반대대책위원회’
## 예배 및 정책 세미나 열려

세미나에서 조영길 변호사가 강의하고 있다. ⓒ주최 측 제공

(왼쪽부터) 김창환·소기천·민돈원 목사 ⓒ주최 측 제공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소속 목사 178명, 장로 231명이 참여하는 ‘동성애·동성혼 반대대책위원회’가 최근 충북 청주시 소재 오송 정중교회(담임 정현 목사)에서 ‘예배 및 정책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예배에서 ‘퀴어신학은 성(性)의 창조 질서를 거역했다’는 제목으로 설교한 동성애·동성혼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창환 목사(서울 강서교회)는 “최근에 한국에서는 퀴어라는 괴상한 용어들이 성(性)의 창조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퀴어란 용어는 ‘낯설고 이상하다’는 뜻이다. LGBT나 QIA(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퀘스처닝, 인터섹스, 어섹슈얼)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했다.

이어 “퀴어신학을 동조하는 무리들은 기독교가 자기들을 차별하고 혐오하고 있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도리어 성경의 가르침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해야 할 신학이 ‘퀴어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모독하는 일을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경은 결혼은 남녀가 하는 것이며,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할 의무가 있다고 적시했다”며 아래 성경 구절을 인용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 1:27-28).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마 19:4-5).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결혼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는 문화명령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며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며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거나,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퀴어신학은 동성애를 ‘가증한 일’로 정죄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거부한다. 기독교 신앙을 가졌는데도 ‘정통신학자들과 퀴어 신학자들의 동성애 관점이 왜 다른가’라는 질문이 나온다. 이에 대한 대답이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같다 하지만 하나님 신앙과 세계관의 기본이 되는 성경에 대한 관점과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목사는 “퀴어 신학자들은 성경을 단지 문화적 산물로 보면서 문화적 해석에 따라서 동성애를 시대적 문화적 방식으로 보면서 성경은 이를 거부하고 있지 않다고 해석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정통 신학자들은 성경을 단지 문화적 산물 이상으로 하나님의 영감된 계시의 말씀으로 진지하게 받으므로 ‘동성애는 가증하다’는 성경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며 “동성애 이슈는 단지 개인이나 교단의 신앙적 취향의 문제를 넘어서, 교회의 순결성과 신자의 거룩성을 지키는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이슈라고 본다”고 했다.

김 목사는 “성경은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자에게 경고했다. 성경은 동성애를 ‘가증한 것’이라고 정의했다. 가증한 것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에바’, 곧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 혹은 금지하신 것이란 뜻”이라며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이즉 반드시 죽일찌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레 20:13)를 인용했다.

그는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로마시대 사람들의 동성애를 다음과 같이 정죄하고 있다. 순리(順理)란 자연(the nature)에 따른 성의 사용(the natural use of the sex)을 말하는 것이다. 순리란 이성(異性) 간의 성적 결합을 말하며, 역리(逆理)란 동성(同性) 간의 성적 결합을 말하고 있다”며 “이는 자연에 거슬리는(against the nature) 성의 사용이다. 이러한 역리적 사용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부끄러운 일’(the shamefulness)이라고 말하고 이에 대한 상당한 보응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동성애 행위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행위로 간주된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교회는 퀴어신학을 퇴출시켜야 한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고, 동성애를 ‘가증한 일’로 정죄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를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퀴어신학은 한국 교계에서 완전히 퇴출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노형구 기자

# 승동교회·한인 디아스포라교회의 역사와 특징에 관해

## 김일환·정병준 박사, 한국기독교역사학회 제422회 학술발표회서 발제

한국기독교역사학회(이재근 회장)가 2일 오후 제422회 학술발표회를 온라인 줌을 통해 진행했다. 이날 최상도 교수(한국기독교역사학회 섭외이사, 호남신대 교수)의 사회로, ▲김일환 박사(서울장신대 한국교회학연구소 책임연구원)가 '승동교회의 초기 역사에 관한 연구: 1902-1908년 시기를 중심으로' ▲정병준 박사(서울장신대)가 '초기 한인 디아스포라교회의 특징'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 했으며, 김일석(장신대, 임마누엘교회 담임)·박형신(남서울대 교수) 박사가 각각 논찬했다.

**◆ 곤당골교회-홍문동교회-동현교회-승동교회로 이어진 승동교회의 초기 역사**

김일환 박사는 "승동교회의 초기 역사는 1893년에 설립된 곤당골교회와 1895년에 곤당골교회에서 분립한 홍문동교회와 연결되어 있다"며 "곤당골교회는 백정 박성춘이 1895년 4월에 세례를 받고 상당수의 백정들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교인들 사이의 신분 갈등이 표면화되었다"고 했다.

이어 "결국 백정들의 출석에 불만을 제기하던 양반 교인들 중심으로 1895년 5~6월에 홍문동교회로 분립했다"며 "두 교회는 1898년에 곤당골교회가 화재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1899년 1월 이후에 홍문동교회로 재결합했다. 그 후 1902년 2월에 서울선교지부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17명의 교인들이 징계를 받은 사건으로 교회가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징계를 받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복권되기도 했다"고 했다.

더불어 "홍문동교회는 징계 사건 이후에 구리개에 있는 제중원 건물에서 모이면서 동현(구리개) 교회, 중앙교회(Central Church) 등으로 불리다가, 승동에 교회 부지와 건물을 구입하여 1905년 8월에 이전한 후에는 승동교회로 이름을 바꿨다"고 덧붙였다.

김 박사는 "곤당골교회-홍문동교회-동현교회-승동교회로 이어지는 승동교회의 초기 역사에서 동현교회 시기는 홍문동교회의 분규와 징계 사건으로 인해서 구리개 제중원 건물로 옮겨와 독자적인 예배당도 없이 3년 5개월 동안 지내야 했던 어려운 시기였다"며 "1902년 2월 말부터 1905년 7월까지 제중원 건물에서 모인 동현교회를 담임한 목회자는 밀러, 레이놀즈, 클라크 등"이라고 했다.

이어 "밀러는 1902년 2월 말부터 연말까지 동현교회를 담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1903년 초부터 1905년 4월 1일까지

김일환 박사

정병준 박사

는 미국 남장로회의 레이놀즈가 담임목사로 사역했다"며 "그 사이에 클라크가 1903년부터 1905년 4월 이전까지 부목사와 동사목사로 레이놀즈와 함께 시무하다가 1905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담임목사로 재직했다"고 했다.

특히 "레이놀즈가 어려움에 직면한 동현교회를 담임하고 클라크가 동역한 일은 연합 사역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며 "한편 동현교회 시기는 어려움에 직면한 교회를 추스르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했다. 이를 위해서 서울선교지부의 주도로 동현교회, 새문안교회, 연동교회 등 세 교회가 연합하여 사역을 전개했다는 특징이 있다"고 했다.

그는 "1902년 3월에 시작한 주일 오후 연합예배, 3개월에 한 번씩 열린 연합 성찬 예배와 세례식, 1902년 3월에 열린 서울지역 최초의 연합 여성 사경회, 정기적인 주중 예배 및 매일 기도회 등은 동현교회의 분위기를 쇄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울지역의 장로교회가 성장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역이 전개될 때 남성 선교사와 교인뿐 아니라 여성 선교사와 한국인 여성 지도자의 역할도 중요했는데, 특히 동현교회에서 에바 필드, 에스터 쉴즈, 웰본 부인, 에비슨 부인 등과 함께 전도부인으로 활동한 다동 김 부인은 승동교회의 초기 역사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지도자"라고 덧붙였다.

이어 "1905년 8월 1일에 승동으로 이전한 동현교회는 이후부터 지명을 따라 승동(承洞)교회로 부르게 되었는데, 1907년부터 1908년 말 사이에는 '承洞'과 '勝洞'을 번갈아 사용하다가 그 후부터 승동(勝洞)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했다"며 "승동교회는 승동으로 옮겨 온 직후부터 양반들의 세거지(世居地)인 북촌 지역 전도를 시도했는데, 별도의 권서를 임명하여 전도에 집중하도록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노력의 결실로 1908년 8월에 안동교회가 설립될 수 있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초대 장로로 이여한을 장립했다"며 "양반들을 대상으로 한 북촌 지역 전도와 초대 장로로 백정 출신 영수 박성춘 대신에 이여한을 먼저 장립한 일은 곤당골교회 시기부터 이어져 온 백정 교회의 이미지를 어느 정도 벗어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승동으로 이전한 1905년 이후부터 1908년 사이에 이와 같은 활동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며 "남녀 소학교 개설, 길거리 책방 운영, 1907년 2월에 길선주를 초청하여 개최한 서울지역 도(都)사경회 등과 같이 승동교회가 서울의 '중앙교회'로 자리매김하는 데 영향을 끼친 활동이 많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후속 연구를 기약한다"고 했다.

**◆ 서간도·북간도·중국본토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의 역사와 특징**

마지막 두 번째로 발제한 정병준 박사는 "세계적으로 이주자가 급증하고 다문화사회가 확대되면서 20세기 후반부터 '디아스포라'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문화인류학, 사회학, 정치학, 역사학, 교육학, 문학, 종교영역 등 광범위하게 발전해왔다"며 "기독교 신학에서도 디아스포라에 대한 성서연구와 선교학적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고 했다.

정 박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노동력이 대량 유입되었고, 1998년부터 탈북민이 입국하면서 한국교회는 이주민에 대한 성경·선교적 관심이 시작되었다"며 "디아스포라로서 국외 한인교회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를 중심으로 21세기에 들어와서 확대되었다"고 했다.

그는 "서간도와 북간도의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를 비교할 때 193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서간도 교회는 축소되었고 북간도 교회는 확장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서간도 교회 수는 20년이 지나도록 14~59개 사이를 오가며, 교인 숫자도 2,227~5,992명 사이로 큰 성장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반면 북간도는 교회 숫자가 87~177개로 그 성장 폭이 무척 넓으며 교인 숫자도 4,749~11,196명으로 큰 증가 폭이 있었다"며 "재정적인 면을 살필 때 서간도 한인교회는 전쟁과 자연재해와 같은 위기가 있을 때 재정의 낙차가 매우 컸고 그 회복의 속도가 오래 걸렸다"고 했다.

그러나 "북간도의 교회는 위기가 있어도 재정적 낙차의 폭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회복 속도도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종합해보면 서간도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는 사회 경제적으로 훨씬 위험하고, 어려운 조건 속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정 박사는 "중국 내륙에서 일어나는 전쟁 국공내전, 만주 사태로 인한 타격이 북간도의 한인 교회들보다 훨씬 크게 작용했다. 그리고 중국인 지주와 한인 소작인 사이의 관계도 나쁘며, 일본에 대한 중국 관리의 반감이 한인들에게 더 부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컸다"며 "북간도 한인교회는 일본군에 의해 1920년 경신참변의 피해를 크게 받았으나 그 피해를 빠르게 회복하는 탄력이 있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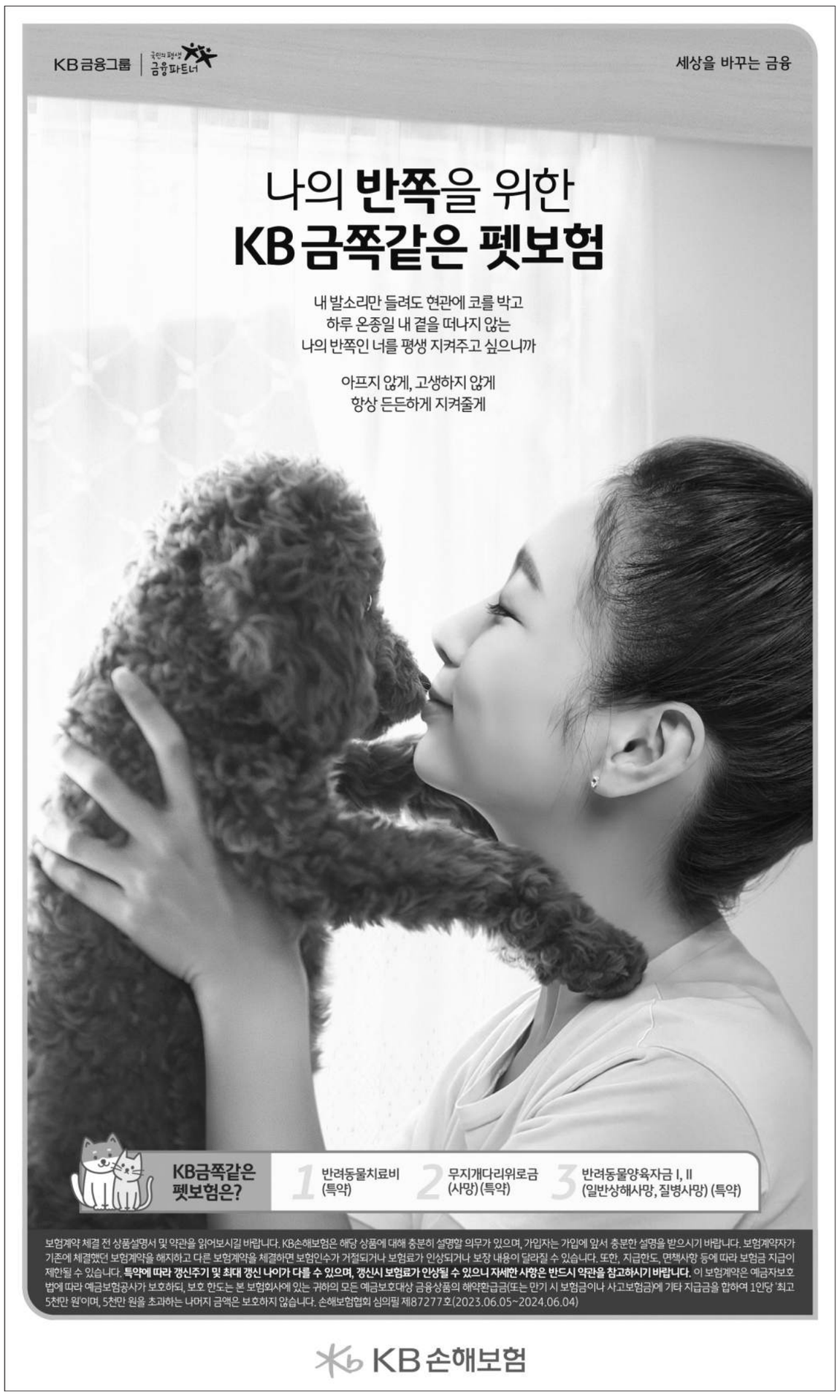
그리고 "교회가 그 사회에서 지닌 지도력에 큰 차이가 있었다"며 "북간도의 간민회와 민족운동의 지도자들은 대다수 교회였다. 그리고 국가의 보호가 없기 때문에 한인들 사이 상호부조하는 구심점이 되었으며, 신앙공동체가 경제적 자립을 위한 도움을 제공했다. 교회는 신앙공동체이기 전에 경제적 사회적 생활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고 했다.

또한 "서간도의 교회들도 어느 정도 이런 역할을 하였지만 한인들의 숫자 규모와 분포 범위로 볼 때 응집력이 훨씬 떨어졌다"며 "한인 교회 지도자들이 지닌 사회적 영향력과 중국 관리들과의 관계성도 교인들이 유입하는 요인이 된다"고 했다.

그는 "한인 디아스포라의 사회적 신분을 보았을 때 서간도의 경우 대부분 생존을 위해 압록강을 넘어 정착한 평안도 유민들이다. 물론 유하현에 독립운동을 위해 찾아오는 지사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소수였다"며 "서간도 한인교회 안에서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지적인 작업이 발견되지 않는다. 북간도의 경우 생존을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 다수이지만 이상촌을 건설할 목적으로 이주하는 사람, 종교적 이유로 찾아오는 사람,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정착하는 사람 등 다양한 단체들이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북간도 진보적 개신교인들은 민족과 국가의 미래를 구상할 수 있는 신앙·철학적 근거가 있었다. 상해, 남경, 북경의 한인 기독교인들은 대부분이 지식인 계층이었고, YMCA와 선교사를 통해 국제질서에 대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다"며 "그래서 이들은 상해와 남경의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신한청년당을 조직하고 3.1운동에 대해 구상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임시 정부를 설립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북경의 고려기독청년회는 처음에는 박용만의 무장항쟁노선을 지지했으나 안창호의 흥사단에 흡수되었다"고 했다.

장지동 기자




# 이찬수 목사 "일만성도 파송운동 2년, 교회 모든 기능 정상화"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 담임)가 지난 3일 주일예배서 '권태가 없는 가슴 뛰는 삶'(마태복음 4:23-24)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분당우리교회의 '일만성도 파송운동'과 관련해 이찬수 목사는 "2년 전 일만성도 파송운동이 벌어지고 나서 놀랍게도 많은 봉사자들과 우리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의 4분의 3이 떠나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때 저는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라며 "우리 교회가 기존 신자를 등록 받지 않다 보니 섬겨야 할 대상은 넘쳐나는데 그들을 섬겨야 하는 평신도 지도자 중 70~80%가 다 나가고 부제가 되다 보니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했다.

이어 "만약 분당우리교회가 일만성도 파송운동을 하지 않고 놀랍게 섬기던 성숙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다 떠나지 않고 여기 계셨다면 제 목회에 할 일이 없었을 것 같다. 그런데 그런분들이 만 명이 넘게 떠나고 나니까 교회가 안 되는 것"이라며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이 심했지만, 하나님께서 최근 저에게 지난 2년의 세월의 의미를 되짚어 보는 그런 시간을 주셨다"고 했다.

그는 "70~80%에 가까운 평신도 지도자들이 파송되었으므로 저의 목회가 힘들었고 너무 괴로웠지만, 그런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거기에 모든 걸 다 걸어야만 했고 모든 에너지를 다 투입하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그 과정이 저에게 너무나 복이 되었다. 일만성도 파송운동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이고 제 개인에게도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다시 한번 열정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꿈을 꾸게 되었다"고 했다.

이 목사는 "파송운동을 하고 나서 2년이 지났는데 오늘 놀라운 선포를 하려고 한다. 우리 성도들이 지난 2년 동안 너무나 수고해주시고 우리 교육자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그렇게 꿈꾸며 달려갔기 때문에 오늘부로 분당우리교회의 모든 기능이 정상되었음을 선포한다. 지난 1일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꿈꾸며 눈물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보냈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른다"라며 "일만성도 파송운동 전의 역동을 경험했거나 또 모든 예배마다 다시 그런 역동이 되살아날 줄로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작년 가을부터 이 교회의 회복을 꿈꾸며 제2의 부흥을 말한다고 선포했다. 여기서 숫자로 오해하면 안 된다. 제가 꿈꾸는 부흥은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것이다. 교회의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며 교회의 본질을 고민하며 그 본질을 회복하려고 애쓰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라고 생각한다"며 "일만성도 파송운동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고 회복되고, 나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이 사랑의 선순환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 2024 지구촌 선교목회 세미나, 3월 18일 첫 강의

2024년 지구촌 선교목회 세미나가 오는 18일 저녁 8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민경진 교수(부산장신대 구약신학)가 강사로 나서 '1장의 욥, 42장의 욥'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한다.

이 세미나는 오는 5월 20일과 9월 2일, 11월 18일에도 진행된다.

차례대로 △김승호 교수(성서대 선교신학)가 '포스트모던 시대의 목회와 설교 지혜' △박영권 교수(영남신대 신약신학)가 '누가의 성전 이해: 유대교와 기독교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성전' △김명용 전 장신대 총장이 '과학적 무신론에 의해 붕괴되고 있는 세계교회,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각각 강의한다.

세미나는 줌(Zoom)과 유튜브(안승오 MissionTV)를 통해 진행된다. 김진영 기자

# 이동환 목사에게 선고된 '출교'란? "교단 모든 조직서 추방"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총회재판위원회(총재위)가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에서 '동성애 찬동' 혐의로 출교를 선고받은 이동환 목사(사진)의 항소를 4일 기각했다. 이로써 이 목사의 출교가 확정됐다.

이 목사에 대한 이 같은 판결은 그가 지난 2019년 인천퀴어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한 것으로 알려진 이후 약 5년 만에 이뤄진 교단 차원의 강경한 징계 조치다.

이동환 목사가 받은 출교처분은 평신도나 교역자의 범과로 인해 당사자가 재판의 판결을 받아 기감과 관련된 모든 조직(교단 본부, 연회, 지방회)에서 추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근거는 기감 교리와장정 1306단 일반재판법 제6조 5항의 '출교는 교회에서 추방함을 말한다'에 있다.

또 교회용어사전(발행인 가스펠서브, 제공처 생명의말씀사)에 따르면, 출교란 "교인을 교적에서 삭제하고 교회에서 내어쫓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가 출교된 당사자에 한해 불신자처럼 여겨 제명하고 교회 출석을 금하는 제도다.

회개하지 않는 중범죄자나 이단에 가입해 돌아오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하도록 교회사 전통에서 합의된 형벌이다. 출교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마태복음 18장 15-18절)과 사도의 교훈(디모데전서 1장 20절, 고린도전서 5장 11절, 디도서 3장 10절)에서 연원한다.

한편, 이 목사는 지난 2019년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집례한 동성애자 축복식으로 인해 2020년 10월 경기연회에서 정직 2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이 목사는 항소했고, 기감 총재위는 지난 2022년 10월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 목사가 자숙하는 모습 없이 추가로 동성애 찬동 활동을 벌였다고 주장한 설호진 목사 외 7인의 고발이 받아들여져 지난해 12월 기감 경기연회에서 출교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이 목사가 항소했지만 기감 총재위가 이를 기각해 결국 그의 출교 처분은 지난 4일부로 확정됐다.

기감 총회재판위원회가 지난 2019년 인천퀴어축제 축복식 집례로 이동환 씨가 선고받은 정직 2년 기간 동안(2020년 10월-2022년 10월) 추가로 저질렀다고 인정한 교회 모함 및 악선전·동성애 찬동 혐의는 다음과 같다.

교회 모함 및 악선전의 혐의는 ▲2021년 3월 12일 피고인(이동환 씨)은 서울 소재 사무실에서 가진 A매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교회가 하락세를 겪기 시작한 것은 교회 내부의 문제점 때문이다. 횡령과 성범죄 등 권력형 비리들이 터져 나왔다. 교회는 반성은커녕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렸다. 권력집단은 적을 상정해 위기를 돌파하려고 한다. 교회는 동성애라는 적을 상정했다'고 했다 ▲2021년 7월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금 한국 교회의 소수자 혐오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중략)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의 인권 진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됐다'고 발언.

동성애 찬동 혐의는 ▲이동환 씨가 총회 재판위원회에서 상소심 절차가 진행 중인 2020년 12월 18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3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해 제2회 축제 때처럼 꽃잎을 뿌리며 성소수자를 축복하는 축복식에 참여해 집례 ▲2021년 6월 27일 제22회 서울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에 참석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대형 무지개 깃발을 흔듦 ▲2021년 10월 6일 한신대 신대원 채플시간에 설교자로 참석해 설교 후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의 동성애자 축복식을 재현 ▲2022년 7월 16일 제23회 서울퀴어문화축제에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큐엔에이 단체의 부스를 만들어 참가해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 노형구 기자

# 제4차 거룩한방파제 국토순례 시작… 남해 500여km 대장정

### 진도군청 철마광장에서 출정식

성혁명과 반기독교 물결을 막을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기 위한 국토순례가 4일 오전 진도군청 철마광장에서 출정식을 갖고 대장정에 올랐다.

제4차 거룩한방파제 국토순례는 이날 진도를 시작으로 오는 4월 1일까지 28박 29일 동안 해남, 장흥, 보성, 여수, 고성 등을 거쳐 거제까지 남해 15개 지역, 약 517km의 거리를 순례하는 일정이다.

순례단은 깃발과 피켓 등을 들고 각 지역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을 찾아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는 것에 대한 결의를 다지고 선포식을 통해 연합을 도모할 예정이다.

'거룩한방파제 국토순례'는 서구의 교회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대표되는 '성혁명' 내지 '젠더이데올로기'로 인해 무너졌다고 보고, 우리나라에서만큼은 교회들이 연합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고 성경적인 가정과 성윤리를 세우자는 목표에서 시작됐다.

순례단은 각 지역에서 '선포식'을 하며 그곳에 거룩한 방파제가 세워졌음을 선언해 왔다. 지난해 5월 부산에서 서울까지 12개 지역을 잇는 1차 순례를 시작으로, 2차는 서해 14개 지역, 3차 동해 12개 지역을 순례했다. 그 거리가 1,570km에 이른 대장정이었다. 이를 통해 거룩한 방파제를 세운 지역은 모두 37곳이다.

김진영 기자

제4차 거룩한방파제 국토순례 출정식이 4일 오전 진도군청 철마광장에서 진행됐다. ⓒ거룩한방파제

# 대통령실 황상무 수석, 한교연 예방 "의대 증원 지지 감사"

### 전선영 국민공감비서관과 동행

대통령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 지난 28일 오후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을 예방해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등과 환담을 나눴다. 전선영 국민공감비서관과 함께 이날 처음으로 한교연을 찾은 황 수석은 그간 정부 정책에 대한 한교연의 협조에 감사를 표했다.

황 수석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면서 "한교연을 비롯한 교계가 이를 지지해주셔서 감사드린다. 특히 한교연은 이번 정부 출범 때부터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고, 때론 애정어린 비판도 해주셨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송태섭 대표회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항상 국민을 위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좋은 정책을 펼쳐주기만을 바란다. 이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한교연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 발표한 성명에서 "국민 대다수는 역대 정부마다 왜 의대 증원을 국민 앞에 약속했는지 잘 알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병원 등 의료현장을 지킬 의사들이 태부족한 현실 때문일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도 이런 국민적 요청을 무시하거나 외면할 수는 없다. 정부의 의사 증원 발표에 모든 종교계와 시민사회가 절대적으로 지지를 보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의료계 또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교연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 간곡히 요청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의료 공백 사태는 막아야 한다. 서로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지 말기를 당부드린다"며 "우리는 이번 사태가 국민의 무한 희생이 뒤따르는 의료 '파국'이 아니라 사회 통합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는 성숙한 기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한교연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왼쪽)와 대통령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 악수하며 인사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 김의식 목사 "교회, 청년·노년 등 1인 가구 돌봐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김의식 목사〈사진〉는 최근 총회 사회봉사주일을 맞아 '고통에 처한 사회적 약자 돌보자'는 제목으로 목회서신을 최근 발표했다.

김 목사는 "오는 3월 3일은 제63회 총회(1978년)에서 제정한 '사회봉사주일'이다. 사회봉사주일을 지킴으로 교회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를 실천하는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신앙에 기초해 시대변화와 상관없이 고통에 처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실천을 해왔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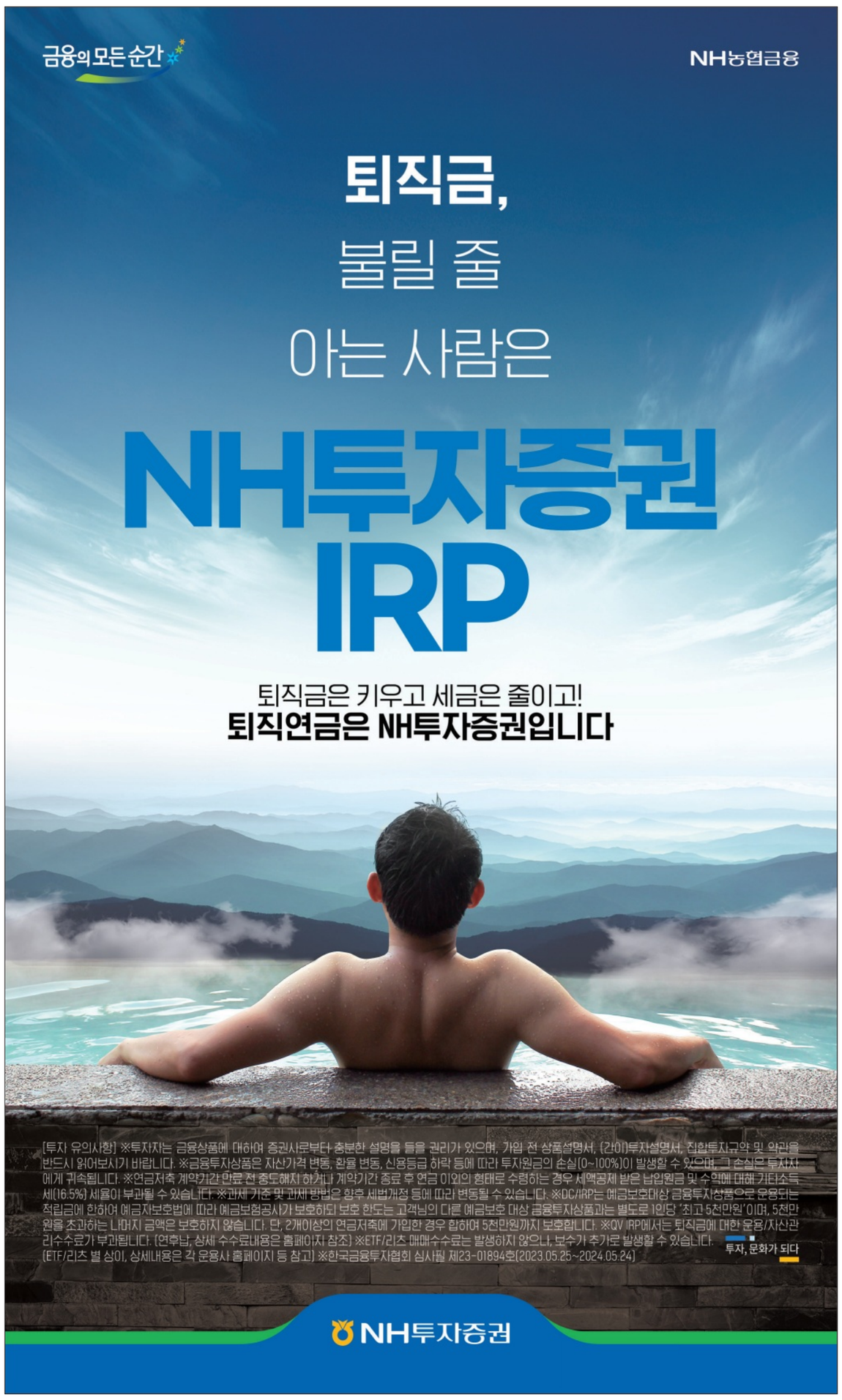
이어 "우리나라는 2025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21%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고 예측하고 있다.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이미 노년기에 진입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2차 베이비붐 세대(1968~1974년생)도 진입하게 될 것"이라며 "또한 혼자 살아가는 1인 가구가 1천만 가구를 넘게 되어 고독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특정 연령만이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에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김 목사는 "1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는 외로움과 패배의식, 인간관계 단절, 고독사와 같은 사회적 문제의 증가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때에 교회는 지역 사회에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고 했다.

그는 "제108회기 총회 주제는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출15:26, 사53:4~5, 살전5:23)'이다. 사회적 돌봄과 배려에서 소외된 1인 가구들이 느끼는 아픔에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복음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야 한다"며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음을 좋지 않게 보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 이는 인간은 함께 살아갈 때 행복하고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도 혼자 살아가는 이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해주셨다고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다"고 했다.

김 목사는 "한국교회가 1인 가구들에게 희망을 주는 위로자가 되길 바란다. 교회는 무엇보다 지역 사회의 1인 가구를 위한 돌봄 사역을 실천해 가야 한다"며 "1인 가구들로 이루어진 청년, 노년 세대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제와 식사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또한 구역과 같은 소그룹을 활성화하여 지역 사회의 1인 가구들을 돌아볼 수 있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맞춤 돌봄을 실천해야 한다. 고독사의 위기에 처한 이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돕는 등 교회가 1인 가구의 든든한 친구가 되어서 섬김과 치유의 사역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노형구 기자



# 역대 미국 대통령 6명의 기독교 신앙은?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크리스천 포스트가 '6명의 미국 대통령과 그들의 기독교 신앙'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이 글을 쓴 제리 뉴컴(Jerry Newcombe) 박사는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 방송인 'D.제임스 케네디 미니스트리'의 생방송 진행자 겸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뉴컴은 "그들 중 대부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례들 중에는 정치적으로는 올바르지 않을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1779년,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이 델라웨어 인디언 추장으로부터 아들의 교육에 관한 조언을 요청받은 일화를 소개했다.

뉴컴은 "워싱턴은 그들에게 '우리의 예술과 생활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를 배우고자 하는 것이 옳은 일이며, 이는 당신을 더 위대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했다"고 했다.

그는 미국의 제2대 대통령 존 애덤스(John Adams)에 대해 "1797년 취임 연설에서 애덤스는 '기독교에 대한 존경심은 공공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고의 권고 사항 중 하나'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는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는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었으며, 주로 성공회 전통을 따랐다"면서 "청년 시절, 그는 핵심 기독교 교리에 대한 개인적인 의문을 품기 전에 복음주의 교회를 세우는 데 일조했다. 이는 그가 독립선언문의 초안을 쓴 지 1년 후인 1777년의 일"이라고 했다.

뉴컴은 "그 교회는 샬로츠빌 칼뱅주의 개혁교회였고, 제퍼슨은 그 교회의 내규를 작성했으며 다른 어떤 교구민보다 더 많은 돈을 기부했다"면서 "그는 이 교회의 헌장에서 그들이 '복음의 지식의 유익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교회를 시작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는 4대 대통령 제임스 매디슨(James Madison)에 대해 "미국 헌법의 주요 설계자이며, 의회의 목사 임명 위원회에 참여했다"며 "1785년에 쓴 글 '기념과 반론'에서 그는 기독교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기원했다고 믿는 종교'라고 묘사했다"고 했다.

미국 사우스 다코타주의 러시모어산에 조각된 4명의 미국 대통령 조각상. ©Jéan Béller/Unsplash

또한 "매디슨은 우리를 설득한 증거에 아직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동등한 자유를 부정하지 않는 것이 최상의 믿음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그는 교회와 국가 기관 간의 분리를 주장했지만, 하나님과 정부를 분리할 필요는 없다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매디슨은 도덕과 기독교 신앙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 '전능하고 현명하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세상의 도덕적 질서와 인간의 행복에 매우 중요하다'고 썼다"고 덧붙였다.

뉴컴은 5대 대통령 제임스 먼로(James Monroe)를 언급하며 "건국의 아버지들 중 마지막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했다"며 "그는 유럽 국가들이 서반구 국가들에 서로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의 먼로 독트린(Monroe Doctrine)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그는 기독교 교리를 믿는다고 공언했다"고 밝혔다.

그는 "1817년 첫 대통령 취임사에서 먼로는 '전능자께서 우릴 위해 이미 높이 나타내신 그 보호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했다"고 했다.

또한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John Quincy Adams)에 대해 "미국의 건국 원칙에 어긋나는 노예제도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었고 이 악을 제거하려고 했다. '노예제의 지옥 사냥개'라는 별명을 얻기까지 했다"고 했다.

뉴컴은 "의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그는 일리노이 출신의 한 젊은 남자 옆에 앉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 이 악을 종식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 사람은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이었다"며 "애덤스의 위대한 좌우명은 '의무는 우리에게 있고,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했다.

그는 1860년 존 윙게이트 소톤(John Wingate Thorton)의 책 '미국 혁명의 강단'(The Pulpit of the American Revolution)에 언급된 애덤스 대통령의 말을 인용했다. 당시 애덤스는 "미국 혁명의 최고의 영광은 시민 정부의 원칙과 기독교의 원칙을 하나의 불가분의 유대로 연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컴은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다"며 "지극히 세속화된 시대에 우리는 유대-기독교적 뿌리와 상당 부분 단절되어 있다. 이제 미국은 건국에 있어 성경이 수행했던 불가결한 역할을 다시 발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유진 김 기자

## 오픈뱅크와 오픈청지기재단, 2023 오픈청지기 프로그램 수혜단체 81곳 선정

'사랑과 나눔의 실천'을 통해 한인사회에 새로운 사회환원 문화를 만들고 있는 오픈청지기 프로그램(Open Stewardship Program)이 올해 역대 최대 지원단체와 지원금을 기록했다.

매년 커뮤니티를 향한 사회환원에 힘쓰고 있는 오픈뱅크(행장 민김)와 오픈청지기재단(이사장 도은석)은 28일 2023 오픈청지기 프로그램의 수혜단체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2023년도 오픈청지기 프로그램의 수혜단체로 총 81곳이 선정이 돼 지난 2011년 프로그램이 첫 시행된 이후 역대 최다 수혜단체수를 기록했다. 지원대상이 늘어난 만큼 지원금액도 45만5500달러로 늘었는데 이는 이전 최고였던 지난해 40만달러 보다 5만5500달러나 증가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오픈뱅크는 지난 2011년부터 사회환원을 목적으로 수익의 10%를 매년 오픈청지기재단에 기부를 해왔고 2023년까지 13년동안의 누적 기부금이 1666만달러를 넘어섰다. 또한 지난해 오픈뱅크와 오픈청지기재단이 커뮤니티에 기부한 총금액은 63만7500달러이며 13년 누적 기부액은 576만달러를 돌파했다.

오픈청지기재단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말까지 2023년 오픈청지기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을 접수받았는데 2023 프로그램에는 기존의 우편접수 방식에서 한층 발전해 웹사이트를 통한 업로드와 이메일을 통한 접수를 병행, 이 결과 지원신청단체수가 거의 100개 단체에 육박할 만큼 관심도가 높았고 특히 신규신청단체수가 35개나 돼 이 또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오픈청지기재단 도은석 이사장은 "오픈청지기재단은 앞으로도 비영리단체들이 발전하고 시스템도 잘 구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픈뱅크의 민 김 행장도 "그동안 움추렸던 비영리단체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올해는 온라인 접수를 오픈하면서 한인 비영리단체 뿐만아니라 타 커뮤니티 비영리단체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며 신청을 했다. 이들 단체들의 좋은 프로그램들은 한인사회에 소개하고 연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재단측은 지원금 전달식은 개최하지 않고 지원금은 선정된 단체에 개별적으로 우편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김민선 기자

## 남가주 충청향우회 32대 회장에 홍광일

남가주 충청향우회 회장 이취임식을 오는 3월 9일 오후 5시에 아로마 5층(3680 Wilshire Blvd. LA, CA 90010) 뱅퀴 홀에서 갖는다.

남가주 충청 향우회 32대 회장에 홍광일(전 샌퍼난도밸리 한인건설협회 회장, 전 샌퍼난도밸리 한인상공회 회장, 전 국립서울과학기술대학교 동창회 회장 역임)씨가 선임됐다.

충청북도 옥천이 고향인 홍 회장은 신년 사업으로 커뮤니티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충청도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단체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2024년도 사업 계획으로 3.1절 행사, 한인의 날 행사,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 6.25행사, 8.15 미국 독립기념 행사, 광복절 기념행사, 단풍 구경, 골프 대회 등 회원들과 교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하는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발전시키는데 앞장서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한편 신임 임원진으로 수석부회장 장충룡, 행사 협력 부회장 헨리 김, 의료국장에 김진세 박사, 사무총장 윤태환 목사를 발표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인을 영입하는 등 새로운 면모를 꾀했다. 이사로는 박철규, 이규성, 박건우, 이창건, 안영재, 이순희, 쥴리 김, 사무엘 서, 이은지로 역대 회장들은 이사가 된다.

32대 회장 홍광일

2024년도 남가주 충청인을 이끌어 갈 32대 홍광일 회장의 취임식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준비위원들은 전해 왔다.

행사 관련 문의 및 예약은 준비위원 Henry Kim(562-478-8888)이나 장충룡(213-503-2526)에게 하면 된다.

김석민 기자

## 센터메디컬 창립 10주년 쎄시봉 콘서트, 무료티켓 신청하세요!

남가주와 북가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시니어들만을 위해 전문적으로 케어하는 메디컬그룹인, 센터메디컬그룹이 올해로 10주년이 되었다.

이에 센터메디컬그룹은 가입환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다. 바로 그시절 어머니와 아버지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쎄시봉 내한 콘서트이다. 다가오는 3월 16일 토요일 저녁 7시 야마바극장에서 열릴 이 콘서트는, 윤형주, 조영남, 김세환의 마지막 미주 콘서트가 될 예정이다.

더욱이 센터메디컬그룹은 가입환자들에게 무료 티켓을 배포하고 있다. 가입 환자들은 간단하게 문의전화로 전화를 걸면 신청접수를 할 수 있으며, 추후 LA지역과 OC지역에서 선택하여 티켓을 픽업할 수 있다. 물론 센터메디컬그룹 가입환자가 아니더라도 야마바극장 웹사이트에 들어가 티켓을 구입하여 공연을 관람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센터메디컬그룹에서는 일일 관광, 골프대회, 무료 유방감검사 및 다른 콘서트들도 계획하여 10주년인 2024년을 풍성하게 보낼 예정이다.

더 많은 혜택들이 궁금하다면 센터메디컬그룹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미주)714-904-1701 김민선 기자


소화 · 정 장 · 변비 · 영양에는 일반의약품 Since1956

원기쏘플러스정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원기소 WONKISO 서울약품|주| 인터넷 창에서 원기쏘플러스, 원기쏘 를 검색하세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광고심의필 : 2017-1405-1900

효모 · 효소 · 유산균 · 복합제제

腸(장)은 비우고, 영양은 채우고 소화력은 높이세요

✓ 효모는 각종 성분의 영양공급원입니다
✓ 효소는 소화를 도와주고 활성화해줍니다
✓ 유산균은 저하된 장기능을 개선해줍니다
✓ 효모속 베타글루칸 성분은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 효모속 비오틴 성분은 탈모를 예방합니다
✓ 어린이, 남·녀·노·소, 누구나 복용 할 수 있습니다

| 효능 · 효과 | 소화불량, 소화촉진, 정 장, 변비, 영양, 과식, 체함, 설사, 묽은변, 구역, 구토, 식욕감퇴, 식욕부진, 복부팽만감, 위부팽만감, 장내이상발효.
| 복 용 방 법 | 물과 함께 삼켜서 복용, 또는 입안에서 녹이거나 씹어서 복용.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길 72-1 소비자 상담 : 02-407-5535, 02-533-2992

# VOM, 우크라이나 지역교회 위한 기도 요청

## 2월 중순 목사 사택 파괴, 인접한 교회 건물은 거의 피해 없어

세메노프 목사

5일 한국 순교자의 소리(VOM)가 지난 2월 중순 로켓포 공격으로 교회 사택이 완전히 파괴된 우크라이나 목회자와 가족의 소식을 전하며 기도와 지원을 요청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Donetsk) 지역 셀리도보(Selidovo)에 있는 등록침례교회(Registered Baptist Church)의 블라디미르 세메노프(Vladimir Semenov) 목사는 지난 2월 15일 밤 러시아 군의 로켓 공격으로 사택을 잃었다. 사택은 전소돼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렸지만, 천만 다행으로 세메노프 목사와 가족들은 공격 당시 다른 곳에 머무르고 있어 모두 목숨을 건졌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사택과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던 교회 건물은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그분들이 '기도의 집'이라고 부르는 교회 건물은 두껍고 긴 벽돌 담장을 사이에 두고 목사님 사택과 붙어 있었다"라며 "(이번 공격으로 교회 건물은) 창문 몇 개가 깨지고 전기 계량기와 배선 일부가 손상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전했다. 현재 깨진 창문들은 성도들이 판자로 덮었고, 교회 모임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교단에서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에 "지난 2월 15일 다른 식구들은 모두 제 딸의 집에 가기로 했고, 저는 그냥 집에 남아 있을 생각이었다"라며 "그런데 4살 된 손자가 오더니 '할아버지가 안 가면 나도 안 갈래요'라고 말하길래, 손자를 바라보면서 '그래 같이 가자'라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세메노프 목사는 "딸집에 가 있는데 밤에 폭발 소리가 들렸고, 새벽 두 시경 사람들이 전화해 우리 집이 포탄에 맞아 불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다"라며 "급히 달려가 보니, 50평 정도 되는 콘크리트 집이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다. 그 집에 있었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이제부터 제 생일은 2월 15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세메노프 목사와 그의 형은 자신들의 고향인, 도네츠크 지구의 포크롭스크(Pokrovsk) 지역에서 전투가 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남아 사역을 이어왔다. 지난해 세메노프 목사와 가족들은 친척들과 지내기 위해 인근의 체르니우치(Chernivtsi) 지역으로 잠시 이주했으나, 사역을 재개하기 위해 다시 전장 지역인 포크롭스크로 돌아왔다. 세메노프 목사는 "시 당국은 우리도 '공격 표적이 되었다'라고 경고했다"며 "언젠가 포격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텔레그램 채널에 말했다.

등록침례교회 목사의 사택이 지난 2월 15일 로켓 공격으로 전소됐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사택과 인접한 등록침례교회 건물은 거의 피해가 없어 모임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현숙 폴리 대표는 "이들은 교회를 인도하고, 재활 센터를 운영하고, 기독교인들이 소규모로 모이는 장소들을 방문하고 전도하며, 인도적 원조 물자를 전달하는 등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 봉사하고 있다"며 "그들은 (사역을 위해) 포탄 파편이 흩어져 있는 부서진 도로 위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이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세메노프 목사에게 연료비와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이번 로켓 공격으로 사택을 잃은 이후 세메노프 목사 가족이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고 전도 사역도 계속할 수 있도록 기금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현숙 폴리 대표는 "화재로 옷과 가재도구도 다 잃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며 "등록침례교회도 현재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대대적으로 수리할 계획은 없지만, 배전반과 전선 일부 및 창문을 교체할 기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세메노프 목사 부부는 지금 딸의 집에서 지내고 있지만, 이번 공격으로 셀리도보를 떠나거나사역을 축소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세메노프 목사는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전체를 보지는 못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게 허락하신 작은 땅은 보인다. 그 땅은 바로 셀리도보"라며 "오늘 우리의 주된 사명은 단 하루도 허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www.vomkorea.com/donation 납부 유형 '우크라이나')

이지희 기자

# 제53차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정기총회 7일 개최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기독교군종교구, 이사장 김삼환)가 오는 7일 오전 11시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그레이스홀에서 제53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에는 임원, 법인이사, 대의원 등 160여 명이 참석해 2023년 사업보고와 결산보고, 2024년 사업 계획 및 예산 편성안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기총회에 앞서 열리는 개회예배에서는 군선교연합회 공동회장 오정호 목사(새로남교회)가 '주님의 지상사명에 대한 심각한 재고'(마 28:18~20)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고, 법인이사 양병희 목사가 축도한다.

총회에서는 군 현장 사역보고 순서도 마련됐다. 강우일 연무대군인교회 목사가 '육군훈련소교회 사역', 성동준 학생군사학교 목사가 '관문선교부대 사역', 김치훈 (사)화랑기독선교원 대표간사가 '초급간부 군선교 새로운 부흥', 한아람 다세움비전선교회 대표가 '전역장병 정착의 실제'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우수지회표창 및 근속상 수여식이 열릴 예정이다.

군선교연합회 측은 "작년에는 한국교회와 함께 비전2030실천운동의 활성화와 현장 중심의 군선교 사역 역량 강화를 위해 힘써왔다"며 "특히 2023년 육·해·공 전군 진중세례신자가 약 3만 9,000명으로, 2022년 약 1만 5,000명보다 약 38% 증가하는 결실을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문화미디어 선교 사역의 전문화를 통해 군선교 현장을 보다 다각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미래의 지속 가능한 군선교 정책 등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 제4차 로잔대회 해외 거주 한국 참가자 줌 오리엔테이션 열려

제4차 로잔대회 한국준비위원회가 제4차 로잔대회 해외 거주 한국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 및 준비모임을 지난 2월 24일 온라인 줌으로 가졌다고 최근 소식지를 통해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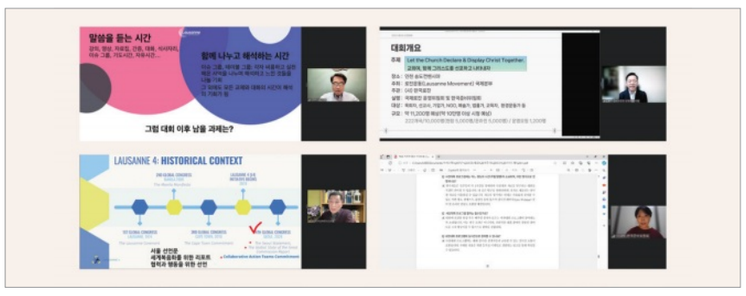
이번 오리엔테이션에는 약 200명의 해외 거주 한국 참가자가 참여해 로잔운동에 대한 이해, 제4차 로잔대회 준비 상황 등을 듣고, 관심 영역(이슈)별 동역자들과 네트워킹과 소그룹 나눔 등의 시간을 가졌다.

IFES 동아시아 부총무 김종호 목사는 이날 개회 예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넘어 영향력을 더욱 확장하는 제자도의 사이클에 대해 소개하면서 "로잔대회에 참석하는 모든 참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고귀한 섬김의 자리에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로잔위원회 부의장 한철호 선교사는 로잔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제4차 로잔대회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한국교회의 방향성을 소개했다. 한 선교사는 "로잔언약은 큰 그릇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나눔의 장"이라며 "복음주의 안에서 전 세계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나누는 대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4차 로잔대회 한국준비위원회 실행총무 김홍주 목사가 로잔대회 준비 상황을 보고하고, 총괄기획본부장 이대행 선교사가 Q&A 시간에 해외 거주자들이 현장감을 가지고 로잔대회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지희 기자



해외 거주 한국 참가자를 위한 줌 오리엔테이션 모습 ⓒ제4차 로잔대회 한국준비위원회

# 그교협 충북지방회, 그리스도인대회 개최

## 지난 25일 청주 성광그리스도의교회서 진행

그교협 충북지방회 그리스도인대회 참석자들 ⓒ그교협 충북지방회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그교협) 충북지방회(회장 김윤규 목사)가 지난 2월 25일 충북 청주 성광그리스도의교회(조관영 목사)에서 그리스도인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 행사에 앞서 청주중앙그리스도의교회 찬양팀이 30분간 찬양으로 섬겼고, 충북지방회 회장 김윤규 목사(소태그리스도의교회)의 개회사와 그교협 회장 정병기 목사(새빛그리스도의교회)의 환영사가 있었다. 김윤규 목사는 개회사에서 그리스도인대회의 출발 과정과 특징을 소개했다. 김 목사는 "미국에서 1927년 처음 시작된 그리스도인대회는 독립교회마다 총회 조직이 없는 상황에서 모든 회중 중심의 교회가 1년에 한 번 모여 며칠 동안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낮에는 선교(전도)분과, 양육분과, 그리스도의 정체성 등 각 분과로 모여 필요한 사역과 친교를 나누고, 밤에는 설교와 사경회로 진행됐다"며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은 선교와 전도였고, 7천~8천 명이 참석한 대형 모임"이라고 소개했다.

김 목사는 그리스도의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김 목사는 "그리스도의교회는 첫째 성서 회복 운동, 즉 성서로 돌아가자(return to the bible)는 환원 운동이고, 둘째 교회 일치, 셋째 신구약 성경 강조, 넷째 단순한 신앙고백(마 16:16), 다섯째 성경적 이름과 예전(침례와 주의 만찬), 여섯째 회중이 중심되는 교회"라며 "그리스도의교회에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도 배출했다"고 말했다.

정병기 목사는 이날 "매년 개최되는 그리스도인대회를 통해 그리스도의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바란다"며 "오늘 행사에 오신 회원교회 목사님과 교우들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후 다 같이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를 찬송하고, 안성섭 목사(사랑샘교회)의 기도, 시골그리스도의교회 찬양팀의 찬양, 신익준 목사(시골그리스도의교회)의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눅 5:1~11)이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었다. 이어 합심기도 후 정기철 목사(소수그리스도의교회)의 헌금 기도, 이수광 목사(장면그리스도의교회)의 인사와 광고, 찬송, 신익준 목사의 축도로 진행됐다.

김윤규 목사는 이날 대회에 참석한 목사, 사모, 성도들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그냥 가지 말고, 꼭 나가면서 한 명 이상에게 틈새로 예수 복음을 선포하라"고 권면하며 "마지막까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의교회 성도(롬 1:16)들이 되자"고 당부했다. 김 목사 자신도 귀갓길에 금왕휴게소에 들러 인도에서 온 10여 명의 힌두교인 근로자에게 365일 틈새 전도로 예수 구원을 선포하고 교제를 나누었다.

한편, 그교협 충북지방회는 "이번 대회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모두 다 십자가에 죽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지상 사명 때문이라는 것"이라며 "그리스도의교회의 목사, 사모, 성도들도 모두가 예수님의 지상 사명에 목숨을 거는 위대한 사명을 간직하고 소명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전도자가 기도한다"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 “마니푸르 폭력사태 10개월 지나… 여전히 긴장감 고조”

인도 북동부 마니푸르에서 10개월 동안 폭력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가장 최근 발생한 폭탄 폭발로 한 명이 목숨을 잃고 두 명이 부상을 입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360만 주민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계속되는 혼란은 국가와 중앙정부 모두의 평화와 질서 유지, 효율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기독교인 쿠키조 부족민들이 거주하는 추라찬드푸르 지역의 후이코트 레이마타(Huikot Leimata) 마을에서 폭탄이 터졌다. 폭발로 인해 파오민룬(35)이 즉시 사망하고 쿠브탕(36)과 T.L.제임스(46세)가 파편 부상을 입었다고 현지언론이 전했다.

쿠키조 부족과 대다수가 힌두교인인 메이테이 공동체 사이에 토지 권리와 정체성을 두고 벌인 갈등은 2023년 5월 3일부터 지속되어 왔다. 이로 인해 쿠키조 주민 166명을 포함해 최소 213명이 사망했다.

4만1천명의 쿠키조 부족은 여전히 난민이 되어 있다고 추라찬드푸르에 본부를 둔 ‘원주민부족 지도자포럼’ 회원들이 CP에 말했다. 이 단체는 이번 폭력사태로 인해 쿠키조 가옥 7천채 이상과 교회 350채 이상이 파괴됐다고 덧붙였다.

일부 쿠키조 여성은 폭력이 발생한 초기에 집단 강간을 당했다.

이러한 불안은 급진적인 메이테이(Meitei) 단체인 아람바이 텡골(Arambai Tenggol)의 활동으로 인해 더욱 촉발되었다. 계곡 지역의 메이테이 공동체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단체는 민간인 폭행, 차량 강탈, 강탈 등 수많은 반사회적 활동에 연루되어 왔다.

폭력 사태는 메이테이족에게 특별한 경제적 혜택과 할당량을 확대해 쿠키조 영토에서 토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주정부에 요청하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 고등법원 명령 때문에 시작되었다. 현재 차별 철폐 조치는 쿠키조를 포함한 주의 부족 공동체에만 해당된다. 이 제안은 부족 공동체 사이에 항의를 촉발시켰고, 허위 정보와 극단주의적 수사로 촉발된 광범위한 폭력 사태로 빠르게 확대되었다.

더와이어에 따르면 최근 아누수이야 우이키 마니푸르 주지사가 하원에서 연설할 때 무장폭도 2백여명이 임팔 웨스트 지역의 경찰서장과 그 가족을 공격했다. 공격으로 인해 특별 경찰 작전이 필요했다. 가해자들은 또한 그의 거주지에 불을 지르며 국가 권력에 대한 과감한 도전을 내비쳤다.

지난 2월 15일 추라찬드푸르에서 쿠키(Kuki) 공동체의 폭도들은 부청장과 경찰서장의 사무실은 물론 부국장의 관저에 불을 질렀다고 더와이어가 보도했다.

방화 행위는 쿠키조 경찰이 무장한 비국가 행위자들과 친분을 맺는 모습이 담긴 영상 클립이 유포된 후 국가 정부가 징계 조치를 내린 데 대한 대응이었다. 쿠키조 공동체는 폭도들과 함께 공격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임팔의 메이테이 경찰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폭력 사태의 초기 단계에서 마니푸르 경찰은 아람바이 텡골이 때때로 메이테이 폭도들과 합류하여 쿠키조 개인을 공격하도록 허용했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현재 이 급진세력은 정부보다 우월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CP는 전했다.

이미경 기자

# 美 텍사스 역사상 최대 규모 산불 발생… 기독교 단체들, 구호 나서

미국 텍사스 서북부 팬핸들 지역에서 ‘스모크하우스 크리크’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현지 기독교 단체들이 동원돼 피해 입은 지역사회에 중요한 지원을 제공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희망의 전달자(Convoy of Hope), 텍사스뱁티스트멘(Texas Baptist Men), 오퍼레이션 블레싱(Operation Blessing)을 포함한 단체들이 지원에 참여했다.

100만 에이커가 넘는 지역에 피해를 낸 산불의 규모는 로드아일랜드의 크기를 능가했으며 2일(이하 현지시간) 현재 15%가 진압되었고 2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텍사스 A&M 산림청은 올해 13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120만 에이커가 넘는 면적에서 58건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그중 가장 큰 규모의 스모크하우스 크릭 화재로 인해 최근 원자력 발전소가 잠시 폐쇄되었다.

산림청이 밝힌 다른 주요 화재로는 3만에이커에 달하는 그레이 카운티의 그레이프 바인 크릭 화재(60% 억제), 14만2천에이커에 달하는 무어 카운티의 윈디 듀스 화재(60% 억제), 올드햄 카운티의 마젠타 화재가 있다. 이는 3천3백에이커를 포함한다.

그렉 애봇 텍사스 주지사는 60개 카운티에 재난을 선포하고 주의 비상 대응을 강화했다. 국립산불조정그룹(National Wildfire Coordinating Group)은 윈디 듀스와 그레이프 바인 크리크 화재를 포함한 다른 화재로 산불 진화 노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산 피해 규모는 여전히 불확실하며 평가가 진행 중이다.

텍사스 농업국장 시드 밀러는 최근 BBC에 수천 마리의 동물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 예측일 뿐이지만 사망 숫자는 1만여 마리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안락사해야 할 것”이라며 “밖에는 수백만 마리의 소가 있고, 일부 마을에는 사람보다 소가 더 많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보도화면 캡처

그는 “이러한 손실은 해당 카운티에 재앙이 될 수 있다. 농부와 목장주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했다.

텍사스를 방문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위기 상황을 언급하면서 소방 및 복구 노력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재난 대응에 있어 통일성을 강조했다.

기상학자 더글러스 웨버와 아큐 웨터의 존 포터는 눈과 습기로 인해 일시적인 안정이 되었지만 급속한 건조로 인해 화재 위험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호단체 ‘희망의 전달자’는 “위기 상황에 대응해 물자를 파견했으며 텍사스와 오클라호마의 현지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면서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즉각적인 구호와 복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텍사스뱁티스트멘(Texas Baptist Men)도 자원봉사자와 자원을 배치해 필요사항을 평가하고 대피주민들에게 필수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단체는 “앞으로 민감한 상황에서 오랜 시간 봉사해야 할 것”이라며 “주민들은 소유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들은 도움을 찾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앞으로 다가올 날에 대한 희망을 찾고 있다”라고 했다.

텍사스뱁티스트멘(Texas Baptist Men)은 자원봉사자들이 주민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희망과 치유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가리킬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퍼레이션 블레싱도 구호 활동에 참여하여 버지니아 비치에서 아마릴로 팀을 보냈다. 이 단체는 이동식 주방, 비상용품, 샤워 트레일러가 포함되어 주민과 최초 대응자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 캘리포니아 스키리조트 직원들, 3m 폭설에 눈터널 뚫어 출근

## 빌딩 3층까지 눈속에 파묻혀 1층까지 파고들어가야 진입
## 일부 고속도로 폐쇄에도 폭설 즐기려는 스키어들 장사진

캘리포니아 북부 산악지대에 무려 3m의 폭설이 쏟아지면서 이 곳 트러키 일대에 있는 수퍼볼 스키 리조트의 마케팅 팀 직원들은 눈 밑으로 바닥까지 깊이 파고 들어가 사무실 빌딩 정문까지 다시 터널을 파고 진입하는 등 극한의 출근 전쟁을 겪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건물 현관을 간신히 통과한 이들은 사무실 빌딩의 3층까지 걸어 올라가 바깥으로 통하는 문을 열어보았다. 하지만 그 곳 역시 바닥에서 천정까지 유리창 전체가 눈벽으로 가득차 있어 바깥이 보이지 않았다고 마케팅팀 직원 존 슬로터가 AP기자에게 말했다.

이들은 “문을 열려고 해도 한참씩 눈 속을 파야만 했다”고 X(전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슬로터는 “지난 1일부터 계속해서 눈을 파들어 가거나 쪼아내는 작업을 해야 했다. 건물 안에 들어오려면 바깥에서 맨 바닥의 1층 깊이까지 파들어 간뒤 옆으로 터널을 뚫어 진입해야 한다. 정말 고단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 스키장은 네바다주 리노 서쪽 74 km의 높은 산봉우리들 사이에 위치해 있다. 이 곳에는 2월 29일부터 사상 최대의 폭설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폭풍설은 4일이 되어서야 시에라 네바다를 통과해 서서히 물러가기 시작했다고 새크라멘토 국립기상청은 발표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 주말부터 심한 폭설로 80번 고속도로를 비롯한 모든 산악도로와 스키장들이 폐쇄되었다. 맘모스산 스키장에서 슈가볼 스키장까지 무려 480km에 이르는 광활한 산악지대에 폭설과 산사태 경보가 내려졌다.

폭설로 곳곳에서 전기가 끊기면서 수 만가구가 정전사태를 겪었고 역대급 강풍이 산악지대를 강타했다.

4일 오전부터 80번 고속도로의 타호 호수에서 도너산 정상, 네바다 주 경계지역까지는 대형 트럭을 제외한 모든 차량의 통행이 재개되었다. 하지만 스노우 타이어와 체인을 장착하지 않으면 진입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밝혔다.

해마다 눈길로 위험을 겪고 있는 이 곳의 한 산악도로는 악명 높은 ‘도너 파티’란 별명이 붙어 있다. 이는 1846년에서 1847년으로 넘어가는 겨울에 이곳에서 폭설로 발이 묶인 개척자들이 나중에는 결국 인육을 먹으며 버틴 사건에서 유래되었다.

슈가볼도 타호 호수 북부의 대형 스키 리조트 가운데 한 곳이지만 안전 검사가 끝나야 스키 리프트의 운영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곳에선 폭설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적설량의 눈 위에서 스키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주말부터 몰려들어 이미 장사진을 치며 대기하고 있다. 수퍼볼 스키장의 경우 아침 8시부터 줄을 선 사람들이 오후 2시에야 입장할 정도였다.

이번 폭설은 만성적인 가뭄에 시달리는 캘리포니아의 물부족 사태를 해결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4월 1일 평균기준으로 산정의 눈 적설량이 제공할 물 공급이 94% 수준인데 4일 이 곳에서는 이미 104%의 비축량이 쌓여 있다고 캘리포니아 수자원국은 발표했다.

차미례 기자

하나은행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합니다. ※ 본 홍보물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유효기간 이후에는 게시물 관리 기록 목적으로 유지됩니다.
※ 준법감시인 심사필 2024-광고-01476호(2024.02.21)/ CC브랜드240216-0209

# “4·10 총선에서 나라 혼란케 할 세력 걸려내야”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사진〉, 이하 언론회)가 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를 우려하는 논평을 5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이번에 (총선에서) 국민의 대표라고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도 국회에 입성할 길이 열렸다”고 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야권 비례대표 위성 정당이 국회에서 만들어졌다.

언론회는 “민주당이 주도하면서, 야권이 연합된 형태의 ‘더불어민주연합’인 것”이라며 “이 위성 정당에는 더불어민주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연합정치시민회의 등이 참여한다. 그래서 비례대표 후보 30명을 배치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20명, 새진보연합이 3명, 진보당이 3명, 그리고 시민사회가 4명을 차지한다는 계획”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렇다면 진보당은 어떤 성격을 가진 곳인가? 이 당의 전신인 통합진보당(통진당)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되었다”며 “그런데 그때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이 현재 진보당에 남아 있다. 진보당의 강령도 한·미동맹 파기와 비동맹 중립 통일국가 건설, 재벌 해체 등을 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일반적,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통진당의 목표가 결국 진보당을 통하여 재현될 것인가?”라고 했다.

또 “연합정치시민회의는 좌파, 반미, 친북 성향 인사 230명이 만든 곳인데, 이들은 한미FTA 반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사드 배치 반대 등의 활동을 해 온 사람들”이라고 했다.

언론회는 “국회의원 10명이면 어떤 법안이라도 발의할 수 있고, 20명이면 국회 원내교섭단체의 막강한 힘을 갖게 된다”며 “이들이 당선되면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국가의 수많은 정보들을 빼내서 어떤 일을 할지 모른다”고 했다.

이들은 “국민은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 총선에서 이런 세력들을 걸러내고, 바른 판단을 통해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했다.

언론회는 “누가 국민들을 더 위하고, 국가 발전을 위하여 좋은 정책을 가진 일꾼들인가를 분별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혼란하게 할 세력을 가려내는 선거를 해야 하는 국민들의 마음은 너무나 착잡하다”며 “그러나 이참에 국민들의 주권이 또렷히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참된 기회로 삼는 것도 필요하리라 본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 이재명과 조국, 4월 총선 앞두고 연대 강조

조국혁신당의 대표 조국이 5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에서 양당 간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 두 당이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하는 동지라며 연대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도 긍정적으로 응답하며, 현 윤석열 정권에 대항해 함께 승리해야 한다고 화답하기도 했다.

조국 대표는 특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4월 총선에서 범민주진보진영의 승리를 위해 협력하고 연대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주저할 수 있는 일부 캠페인을 조국혁신당이 담대하게 전개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검찰의 조기 종식, 김건희 씨 법정 출석, 예산처의 기획재정부로부터의 독립 등을 언급했다.

이재명 대표는 모든 정치세력이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하며, 조국혁신당과의 연대에 기대감을 표현했다. 양 당은 비공개 면담을 통해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총선 연대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양 당의 대변인들은 회동 후 이번 만남이 두 당 간의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구나 비례대표 의석을 위한 구체적인 연대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용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 국힘, 공천 배제 현역 의원에 수도권 험지 재배치 제안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 배제된 현역 의원들에게 경기 부천, 용인, 화성 등 수도권 험지 재배치를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당의 어려운 지역에서의 출마를 요청하는 것으로, 특히 서울 서초을에서 컷오프된 박성중 의원에게 지역구 재배치를 제안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관위는 또한 컷오프된 다른 현역 의원들에게도 비슷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제안은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당 내에서는 다소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고 한다.

국민추천제 대상 지역구의 현역 의원들도 재배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서울 강남권과 영남권 등에서 유력하게 고려되고 있다.

공관위는 오는 7일까지 지역구 후보 공천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관위는 이날 오후 국민추천제 운영 방식과 대상 지역구를 확정해 공개하기도 했다.

박용국 기자

# 통일장관 “윤 정부 새 통일방안에 북한 인권·비핵화 들어가야”

김영호 통일부 장관〈사진〉은 3.1절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가 마련하겠다고 밝힌 새 통일방안에 대해 “북한 주민 자유와 인권 증진, 완전한 비핵화 내용들이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최근 말했다. 김 장관은 kbs 뉴스7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30년간 이어온 정부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남북 강대강 대치 시기에 수정하는 것이 북한에 도발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북한이 반발한다고 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자유민주주의) 헌법적인 가치를 방기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식량난 및 경제난을 볼 때 우리가 대북 정책을 펼 때 원칙을 갖고 대응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념적인 흡수통일 방안을 반영하려는 것 아니냐는 반발에 대해선 “모두가 합의한 헌법 정신에 기초해서 통일 논의를 해나간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1일 3·1절 기념식에서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자유주의적 철학이 누락됐다면서 이를 반영한 윤석열 정부의 통일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1989년 9월 노태우 정부 시기 국회에서 만장일치 지지를 받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이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등 상황을 반영해 계승·보완해 제시한 것이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통일 과정으로 1단계 화해협력(교류협력 추진), 2단계 남북연합(2체제 2정부), 3단계 통일국가(1체제 1정부)를 설정하고 있다. 남빛나라 기자

# 윤, 민생토론회 개최 “실패 두려워 않는 대한민국 만들 것”

2024년 3월 5일, 대통령 윤석열은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꾸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광명 아이벡스스튜디오에서 열렸으며, 400여 명이 넘는 청년과 13개 정부 부처가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 국정의 중요한 동반자라며, 청년들의 관점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장학금 제도 확대,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 주거장학금 신설, 청년도약계좌 제공,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확대, 정신 건강 지원 강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출산지원금 비과세 혜택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기대와 바람을 거침없이 이야기해 달라며, 그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박용국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中전인대 개막… 경제성장률 ‘5% 안팎’ 목표 설정

중국 국정 운영방침을 결정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개막했다.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 목표를 ‘5% 안팎’으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와 동일한 목표치로, 199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중국 정부는 또한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7.2% 증액하여 1조6650억위안으로 책정했으며, 재정적자 목표치를 GDP의 3.0%로 유지하면서 4조600억 위안의 적자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추가적으로, 중국은 최소 12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시 실업률 목표치를 5.5%로 설정하며 소비자물가지수(CPI) 목표를 ‘약 3%’로 제시했다.

리창 총리는 이러한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정책 집중과 각 영역에서의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대만 문제와 관련하여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고 외부 간섭 및 분리 세력에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용국 기자

# ‘최후보루’ 교수도 이탈 움직임… 잇단 사직·삭발 투쟁도

정부가 의대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절차를 본격화하면서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워온 교수들도 단체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선 교수들이 잇따라 사직 의사를 밝히는가 하면 대학 측의 의대증원 신청에 반발해 삭발 투쟁에 나섰다.

배대환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5일 페이스북에 “전공의, 전임의 선생님들의 면허를 정지한다고 하는 보건복지부의 발표와 현재 정원의 5.1배를 적어낸 모교 총장의 의견을 듣자니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다시 들어올 길이 요원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과 같이 일할 수 없다면 제가 중증 고난도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 더 남아 있을 이유는 없어 사직하고자 한다”면서 “동료들과 함께 진료를 이어나갈 수 없다면 동료들과 함께 다른 길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거도 없는 무분별한 2000명 증원은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가속화 할 것”이라면서 “필수의료 강화라고 하는 지원은 결국 밑 빠진 항아리에 물 좀 더 넣어주는 의미 없는 단기 정책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려면 더 많은 동료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치료를 행해야 한다”며 “그러한 동료는 지금까지 같이 병원에서 부딪히며 일해온 인턴, 전공의, 전임의들”이라고 말했다.

강원대 의대 교수들은 이날 모교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신청에 반발해 삭발을 감행했다. 강원대는 전날 교육부에 49명인 정원을 140명으로 늘리는 신청서를 냈다.

강원대 의대 교수들은 5일 모교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신청에 반발해 삭발을 감행했다. 강원대는 전날 교육부에 49명인 정원을 140명으로 늘리는 신청서를 냈다. ⓒ뉴시스

류세민 강원대 의과대학 학장(흉부외과 교수)과 유윤종 의학과장(이비인후과 교수) 등 교수들은 이날 오전 강원대 의과대학 앞에서 삭발식을 갖고 “의대 증원 신청에 대해 교수들이 77%가량 유보해야 된다고 결의해 총장에게 전달했지만 의대교수들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교육부에 증원 신청을 했다”면서 “젊은 전공의나 휴학계를 낸 학생들에게 면목이 없다. 어떻게 뜻을 표할 방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류 학장은 “지난해 11월 의대 희망 수요 조사에서 학장단은 2025년 입학정원 기준 100명을 제출했었고, 이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개별 교실의 교육역량의 실제적인 확인이나 피교육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 과장은 “잘려나간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지만 꺾여버린 자존심은 회복되지 않는다”면서 “필수의료 분야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교수들의 사직이 시작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앞서 외과 교수가 의대교수 중 처음으로 공개 사직 의사를 밝혔다.

윤우성 경북의대 이식혈관외과 교수는 지난 4일 SNS를 통해 “저는 외과 교수직을 그만둔다. 이미 오래 전 번아웃도 됐고, 더 힘만 빠진다”면서 “지금 의료문제에 대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토론은 이뤄지지 않고, 정부는 여론몰이에만 몰두해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 결론과 합의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현실에 책임져야 할 정부, 기성세대 의사들인 우리가 욕 먹어야 할 것을 의사생활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전공의가 다 짊어지고 있다”면서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라고, 후배 의대생에게 외과 전공의 하라고 자신있게 말을 못하겠다”고 말했다.

전공의에 이어 전임의마저 이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의료현장의 ‘최후의 보루’인 교수들 사이에서도 강경 대응 움직임이 일면서 입원·수술 축소 등 의료공백이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전날 페이스북에 “복지부가 전공의들의 사직이 의료대란을 일으켰다며 면허정지나 취소가 가능한 행정 및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한다”면서 “전공의들이 돌아올 길을 막아 의료대란을 고착화시키겠다는 건지”라고 썼다.

이어 “물밑 대화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피해가 본격화되면 교수 사회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분위기인 듯하다”면서 “합리적인 조정을 위한 대화라도 시작되어야 할 시기다. 큰 일 없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백영미 기자

# 정부, 의사 집단행동 참여 전공의 8983명에 행정처분 예고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참여하여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8,983명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은 보건복지부의 박민수 제2차관에 의해 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전해졌다. 확인된 근무지 이탈자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실시한 점검 결과에 따른 것이며, 전체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 중 90.1%에 달한다.

정부는 이러한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이들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한, 복지부는 50개 병원에 대한 서면 보고와 더불어 나머지 121개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지자체와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업무 개시 명령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전공의의 면허 정지 절차를 즉시 집행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처벌을 면하기 위한 데드라인인 2월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하며,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환자의 곁을 떠난 행위를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며, 모든 사회 구성원이나 조직의 일원으로서 기본적인 책임을 지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가동 중이며, 응급실 및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전임의와 교수들에게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행동 대신 대화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총궐기대회에 제약사 직원을 강제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며,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용국 기자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김덕영 감독 “<건국전쟁>, <노무현입니다> 185만 넘어 관객 200만 도전”

개봉 27일 만에 누적 관객 100만 명을 돌파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의 김덕영 감독〈사진〉이 “100만이란 숫자에 만족할 수 없다. 이제 200만 관객 돌파에 도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감독은 4일 조선일보 기고에서 이같이 밝히며 “다큐멘터리 영화 〈노무현입니다〉가 이룬 185만 명의 고지를 넘어서고 싶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토지개혁 단행, 여성 투표권 부여 등 정치적 업적이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책 등을 비교해도 노무현은 이승만을 따라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185만명이란 숫자는 관객 동원 이상의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했다.

김 감독은 “이승만의 영화가 ‘최고의 정치 다큐멘터리 관객 동원’이란 정상에 서는 순간 그동안 거꾸로 뒤집혀 있었던 대한민국의 모든 비정상적인 가치들도 제대로 자리를 잡아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2월 1일 개봉한 〈건국전쟁〉은 지난달 27일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이는 우리나라 역대 다큐멘터리 영화 전체 중 〈님아, 그 강을 건너지마오〉(2014, 480만), 〈워낭소리〉(2009, 293만), 〈노무현입니다〉(2017, 185만)에 이은 4위, 정치 소재로는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김 감독은 한국교회에 감사함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기독교가 나라를 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인이었는데, 기독교인의 삶을 따라서 그 정신을 실천하는 것을 국민들도 같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많은 교회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김 감독은 내년 3월 개봉을 목표로 〈건국전쟁2〉도 제작한다.

김진영 기자

# 학폭 가해 학생 징계 기록, 학생부에 4년간 보존

## 기존의 2년간 보관 기간을 두 배로 연장… 엄중 대처 강화

지난 3월 1일부터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 내용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최대 4년간 보관되게 됐다. 이는 기존의 2년간 보존 기간을 두 배로 연장한 조치로,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엄중한 대처를 강화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9가지로 분류되며, 이 중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조치에 대한 기록 보존 기간이 이번 개정을 통해 2년에서 4년으로 확대되었다. 전학 징계의 경우, 졸업 전에는 기록 삭제가 불가하며, 의무교육 단계에서는 퇴학 대신 최고 수준의 징계로 간주된다.

이번 조치는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관련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후,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며 촉발되었다.

해당 사건에서 정 변호사의 아들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강제 전학 후, 학생부 기록의 영향을 덜 받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정시 전형을 통해 서울대에 입학한 사례가 논란이 되었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지난해 4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수시 및 정시 전형에 학교폭력 징계 기록을 모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와 고려대 등 주요 대학들도 2025학년도 대입부터 정시 전형에서 학교폭력 징계 조치를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이번에 시행한 규칙 개정을 통해 대학 입학 실무자들이 학교폭력 징계 기록을 더욱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학생부 기재 양식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신입생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학생부 양식에는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이 추가되었으며, 기존 학생들에게는 이전 양식이 적용된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가해 학생의 조치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었으며, 보존 기간 연장은 학교폭력 발생 시 진학 및 졸업 후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용국 기자

준법감시필 2022-11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심고! 희망 미래 열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대한민국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선택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가입자 10,000명 돌파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 및 근로자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퇴직급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주에게 좋은 점
사용자부담금 지원 :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10%를 지원합니다.
보다 낮은 수수료 : 0.2% 이하의 낮은 수수료를 책정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낮췄습니다.
쉽고 간편한 가입절차 : 퇴직연금 가입 시 복잡한 절차(규약서, 운용 · 자산관리계약서 등)가 표준계약서 하나로 해결됩니다.
법인세(사업소득세) 절감효과 : 사용자부담금 납입액이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손금 및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분할적립하여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 장기근속 유도 : 퇴직금을 분할하여 사외 적립하므로 장기근속에도 안정적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좋은 점
공적 기금형 퇴직급여제도 :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합니다.
안전한 노후보장 : 퇴직급여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사외적립되어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호받습니다.
안정적인 수익률 추구 : 공동으로 조성된 기금을 바탕으로 노사정 대표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수익률을 관리합니다.
믿을 수 있는 투자의사결정 : 근로자 선택을 대신하여 노사정 대표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공정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진행합니다.
문의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콜센터 1644-0083 검색창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를 쳐보세요!

# 최성은 목사 "회개 통해 삶의 변화 경험하고 새 삶 되길"

## 3일 주일예배서 설교해

최성은 목사(지구촌교회 담임)가 지난 3일 주일예배서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행 2:36-41)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최 목사(사진)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다. 매번 반복되는 예배 속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헌신하고 훈련을 확인하는 것이다. 예배자로서의 가치 중 하나는 첫째, '드림'이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을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둘째, 결단과 헌신이다.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감동을 주셨는데 나의 삶에 어떻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배를 온전히 드린 사람은 삶의 변화를 경험한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감격과 감동이 있는데, 찔림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로 이끌며 성장으로 이끄는데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에 어떤 기대감이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던져 주실 것인가, 어떤 부분에 찔림을 주실 것인가, 어떤 부분에 위로를 주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최 목사는 "나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이런 자세가 있으면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예배는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 이런 예배에 대한 자세가 없다면 수천 번을 예배를 드려도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내 삶이 변질될 수 있다"며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설교는 이 땅에 교회를 탄생시킨 첫 번째 설교다. 베드로가 전한 첫 번째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이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사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등을 증거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본문 36절 말씀인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는 말씀을 던졌다"고 했다.

이어 "이것은 엄청난 반전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셨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우리의 삶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다. 이 말씀은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찔림을 주는 말씀이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에 대한 죄에 대해 그들의 마음에 고통이 느껴졌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죄악된 부분들을 수술하고 치료하는 데 쓰여진다"고 했다.

최 목사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아프고 힘든 것이다. 심지어 죄를 지적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위로의 말씀이라도 제대로 듣는다면 처음에는 아프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죄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기 때문이다"며 "진정으로 죄를 회개함 없이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없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은 그들 마음에 큰 고통을 느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 때문에 그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했다.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실로 이런 반응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라고 물어봐야 한다. 그럴 때 주님께서 갈 길을 보여주시고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괴로워하며 질문하자 베드로는 그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했다. 이 말씀의 포인트는 회개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최 목사는 "회개는 히브리어로 '메타노이아'이며 이 단어의 의미는 '마음을 바꾸다'이다. 회개라는 단어는 단순히 깨달음과 마음에 찔린 감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이 수반되는 결정을 하는 것이다. 회개는 우리가 죄를 탐닉하는 생활에서 돌아서는 것을 이야기한다. 많은 사람이 이 부분까지는 잘한다. 말씀을 깨닫고, 감동을 받고, 찌름을 받아 죄에서 돌이키는 행동, 실천까지 간다. 그런데 적지 않게 실패한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 나를 붙들어주는 훨씬 강력한 힘으로 나를 기울여야 한다. 그걸 붙들어야 한다. 죄에서 돌이켜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의 삶의 목적과 가치관과 마음을 고정해야 한다. 그런데 번번히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께로 나의 삶을 완전히 올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죄에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로마서 6장 3절부터 7절까지 보면 침례의 영적인 의미를 잘 설명해주고 있으며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전달해 준다. 침례를 받는 것은 나의 옛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 내가 스스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덮으심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보시는 것이다. 그래서 용서하심을 받고 이걸 믿고 경험하는 것이 구원의 사건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예전처럼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종처럼 살지 말아야 한다"며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나의 옛 모습이 뛰어나올 때가 있다. 그때 다시 회개하고 죄의 종노릇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회개가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최 목사는 "내가 회개를 하는 모든 과정은 이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개입하고 계신 것이다. 성령님이 아니고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한다.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더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활발하게 활동하시기를 원하신다. 중요한 것은 나의 자세이다. 구원을 받은 증거는 이제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나의 옛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가는 것이다. 여기에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구원은 미래 지향적인 것이다. 나의 죄에 대해서, 상처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잊어버리는 일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 새 소망, 새로운 능력과 치유와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린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 "실패 했다면… 한계 인정하고 다시 믿음으로 사명 붙잡아야"

## 김양재 목사, '실패가 실패가 되지 않게 하려면' 주제로 메시지 전해

우리들교회 김양재 목사가 최근 '김양재 목사의 OST'라는 코너에서 '실패가 실패가 되지 않게 하려면'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다.

김 목사(사진)는 "예수 믿는 우리는 실패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라며 "선지자 엘리사가 있던 처소,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에 부흥이 일어났다. 새 처소를 짓기 위해 요단강에 도착한 제자들은 건축에 쓸 나무를 베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잔뜩 기대에 찬 이 순간, 한 사람이 들고 있던 쇠도끼가 요단강에 풍덩 빠지고 말았다"며 "남들이 한 그루, 두 그루 겨우 벨 때, 이 사람은 전기톱쯤 되는 쇠도끼로 열 그루, 스무 그루를 신나게 열심을 내러 베었을 것이다. 그런데 도끼머리가 빠져 날아가 버린 것이다. 자기 것도 아닌 빌려온 것인데 이 제자는 값은 돈도 없어 탄식하며 위기 상황에 빠졌다"고 했다.

그녀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사건을 주시는가"라며 "하나님을 위한 처소를 짓겠다는데 일이 술술 잘 풀려도 모자랄 판에 시작부터 안 좋은 사건이 생겼다. 사람의 힘으로 지은 것은 결국 사람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힘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떨어뜨려서 기대도 하지 않게 만드시는 것이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며 "엘리사가 이 제자의 탄식을 듣고 그 쇠도끼가 어디에 빠졌는지를 물었다. 내가 열심히 하다가 떨어뜨린 자리, 내 힘만 믿고 덤비다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내어놓으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자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쇠도끼가 빠진 곳을 솔직하게 보여준다"며 "그러나 엘리사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졌다. 그랬더니 쇠도끼가 물에서 떠올랐다. 엘리사는 넋이 나간 제자에게 그것을 집으라고 말했다. 너의 실패는 더 이상 아쉬워하지 말고 그저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피하고 싶었던 그 사명을 다시 잡으라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예수 믿는 우리는 실패 앞에서 도망치지 말고, 나 자신의 한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실패한 그 자리에서 말씀에 의지해 믿음으로 사명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라며 "우리도 실패를 했다면 나의 실패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새로운 한 해, 다시 주어진 사명을 믿음으로 붙잡는 모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지동 기자

# "구원 같아 보이지 않는 구원 통해 우리도 구원하실 때 있어"

## 조현삼 목사, '체포 형식의 구원도 있습니다' 주제로 메시지 전해

서울광염교회 조현삼 목사가 최근 교회 홈페이지에 '체포 형식의 구원도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조 목사(사진)는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며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서둘러 올라가려고 했다"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는 뜻을 밝히자 여러 지역에서 여러 사람이 바울을 말렸다. 약속이라도 한 듯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바울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 20:23-24)라고 단호하게 말했다"며 "사람들도 더는 바울을 말리지 않았다. 결국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했다.

그는 "바울이 예루살렘교회 지도자인 야고보를 만나 인사하는 중에 그가 바울에 대한 예루살렘 정서를 전해줬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야고보의 조언을 받은 바울은 예루살렘교회가 일러 준 대로 행동했다"며 "그러나 성전에서 바울을 만난 유대인들은 그를 향해 분노를 드러내며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때리며 죽이려고 했다. 다행히 로마군의 천부장이 현장에 출동해 바울을 붙잡아 로마 군 영내로 끌고 가 바울은 죽음을 면했다. 체포 형식의 첫 번째 구원"이라고 했다.

또 "유대인들은 이미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전력이 있다. 바울도 스데반처럼 현장에서 즉결 처리하려고 했지만, 천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나타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유대인들은 플랜B를 가동했다"며 "그들은 바울을 예수님처럼 죽이기로 했다. 유대인들은 공회를 열어 그곳에서 바울에게 사형에 해당한다고 결정해 로마 총독에게 그 사실을 알리며 예수님 때와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압박하려고 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바울이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심문을 받는다고 말함으로 부활이 있다는 바리새파와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파 사이에 큰 분쟁이 생겼다"며 "그 소란스러운 상황에 천부장은 군인에게 무리 가운데서 바울을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고 명령했다. 체포 형식의 구원에 이은 두 번째 구원"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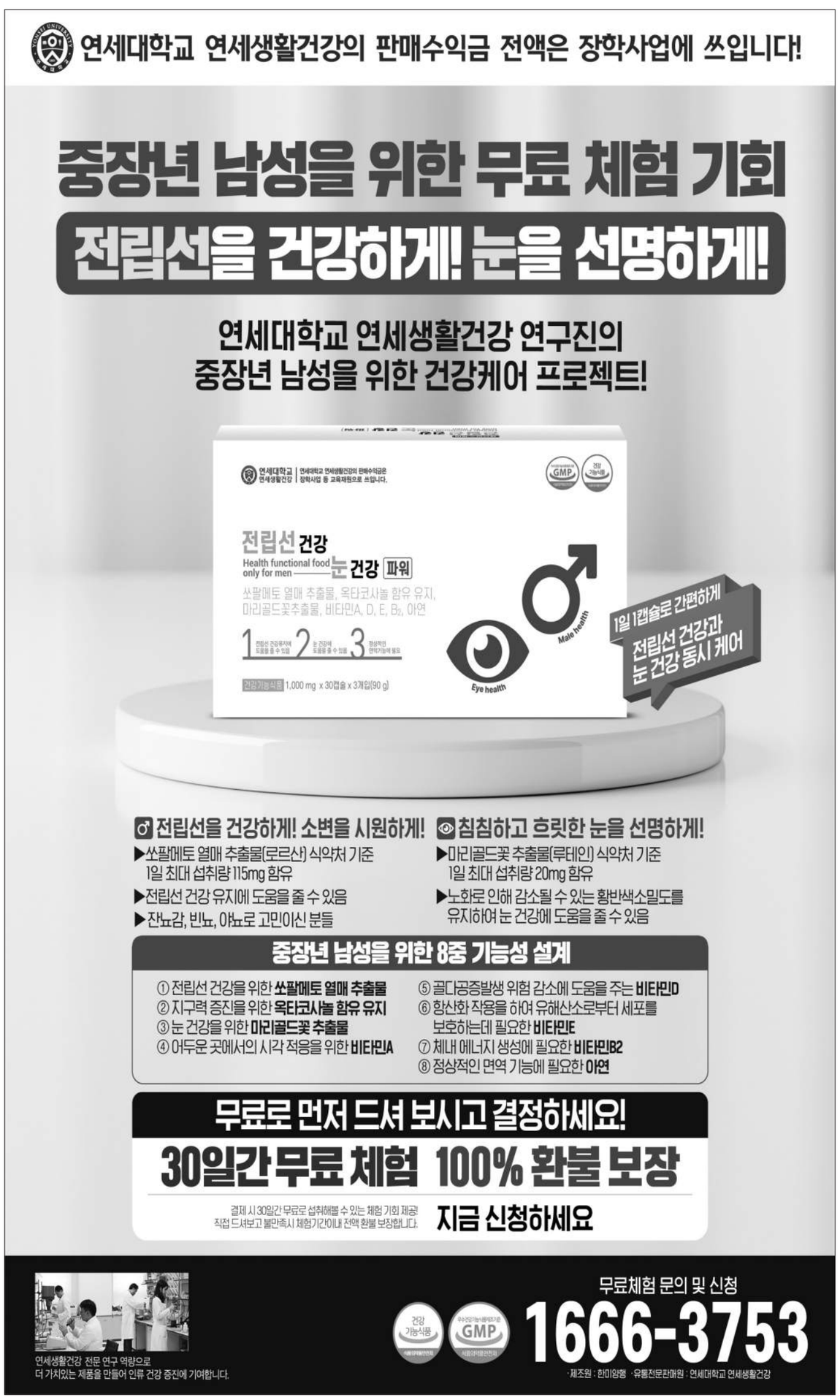
조 목사는 "자기들끼리 싸우다 바울을 놓쳐버린 유대인들은 플랜C를 꺼내 들었다. 그들은 바울을 암살하기로 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며 "바울 암살 작전을 실행에 옮겼다. 유대인들은 천부장에게 다시 한번 바울을 데리고 공회로 와 달라고 청한 후에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면, 그 길에서 바울을 암살하기로 결의했다"고 했다.

이어 "이것을 바울의 조카가 듣고 바울을 통해 천부장에게 전달해 이 일도 실패로 돌아갔다"며 "천부장은 그 밤에 바울을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보냈다. 이 일을 위해 적지 않은 군병력을 동원했다. 이송 형식의 세 번째 구원"이라고 했다.

그는 "하나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오늘도 구원하신다"며 "하나님은 누가 보아도 구원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있지만, 바울의 경우와 같이 전혀 구원 같지 않은 형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해고 형식의 구원, 낙방 형식의 구원, 입원 형식의 구원, 사고 형식의 구원, 수감 형식의 구원, 이별 형식의 구원, 파산 형식의 구원, 좌천 형식의 구원 등 구원 같아 보이지 않는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구원하실 때가 있다"며 "지금 내게 일어난 일,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일 수도 있다"고 했다.

장지동 기자

# 마음에 드는 사람

본문: 삼상 16:6-12
설교: 삼척제일교회
박신진 목사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무엘이 다윗을 사울왕의 후계인물로 세울 때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보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보려 한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서로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한다!

본문이 주는 말씀 주제와 관련하여 주목할 사실은 하나님은 사람 보는 눈이 까다로우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만민을 향하여 구원의 문을 여셨으니 누구나 다 용납하신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성서 전체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은 사람을 보시는 기준이 높으시다. 사람을 볼 때 까다롭게 보신다.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분명하시다.

예언자들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그 은혜를 자손 천대까지 내리시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리신다. 은혜를 내리시면 안 되는 일이 없고, 저주를 내리시면 되는 일이 없다. 그러니 요즘처럼 일이 안 풀릴 때 하나님께 잘못 보이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은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시요 운명을 좌우하는 신이시다. 그러니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것은 결국 인생 성패와 관련이 있는 일이다.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과 가정이 되기를 바란다!

이스라엘이 왕의 통치를 시작할 때 참 어려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통치'에서 왕정통치로 막 옮겨가던 시대였기 때문이다. 예나 지금이나 성서의 기본 생각은 신정통치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실제가 되어 다스리시려면 그 역할을 하는 사람 왕이 필요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나라에서 왕은 절대적 권력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늘 묻고 하나님 뜻에 맞게 다스려야 하는 상대적 권력자, 제한적인 권력자였다. 소위 민주주의라는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는 하늘 같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절대적 권력자가 아니고 국민 마음에 들어야 하는 상대적 권력자이다!

다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다. 사울이 처음에 왕 될 때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행구 사이에 숨었다. 사울이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내성적인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원래 겸손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통치를 자기가 감당하는 위치에 선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던 것이다. 그런데 막상 왕이 되고 보니 어려운 문제가 이만저만 많은 것이 아니었다. 왕의 입장에서 결정해야 할 일들도 많았다. 그런 과정에서 당시 예언자 역할을 했던 사무엘로부터 왕권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다는 지적을 받게 된다. 이런 것이 쌓여 결국 백성들에게 버림 받는 신세가 되었다. 아마 이것이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던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대신해야만 하는 초대 왕이 겪어야 할 운명이었을 것이다.

사울이 점점 그 통치의 지배력을 잃어갈 때 쯤 이스라엘은 큰 고민에 휩싸였다. 그것은 도대체 누구를 후임 왕으로 세울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고대 대부분의 나라처럼 왕권을 세습시키는 것은 어려웠다. 사울왕의 왕권이 견고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누구를 어떻게 왕으로 세울까? 왕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이스라엘의 모든 정책과 체제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보다 그 다음 왕을 세우는 것이 더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였다. 성경의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결국 왕권과 그 권력 유지에 관한 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왕을 세울 때의 기준이다. 어차피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왕을 세우되 왕이 절대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허락을 받아 통치하는 상대권력이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윗은 이런 중요하고도 어려운 시점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이은 2대 왕이 되었다. 그래서 사실은 다윗 대에 이르러서야 이스라엘 나라의 왕 제도가 비로소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시행하는 사람으로 신임받던 사무엘이 사울에 이을 왕을 간택하기 위해 애쓰던 중,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가 아들들을 훌륭하게 키웠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들 중에 왕이 있다고 가르쳐주었다. 여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새의 집에 와서 여덟 아들 중에서 굳이 다윗을 세우게 된 데에는 전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기준이 되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먼저 본문이 말하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보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사람은 용모와 키, 즉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사람들은 국민 총생산량이라는 뜻의 영어 약자인 GNP(Gross National Production)를 국력의 지표로 삼는다. 그런데 요즘 새로운 용어가 뜨고 있는 것을 아시는가? GNC(Gross National Cool)다. '국민총매력'이라는 뜻이다. 디자인, 외모, 키와 용모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다. 나라도 외적 매력으로 그 국력을 평가한다는 시대인 것이다.

그러나 성서는 완고하게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판단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한다. 우리는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관점을 따를 것인가 생각해보아야 한다. 만약 키나 용모를 보았다면 다윗의 형들이 사울을 이을 왕으로 선택되었을 것이다. 이새의 아들들을 사무엘이 불러 그들이 앞에 섰을 때, 사무엘은 큰 아들 엘리압을 보고 '야, 얘구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청년이다!' 하였다(6절)!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직접 일러주셨다.

아비나답, 삼마, 그리고 그 동생들 해서 일곱 형제가 요즘 방탄소년단으로 활동하는 일곱 청년 못지않게 잘생긴 청년들이었다. 그런데 다 제치고 막내로서 양을 지키고 있는 다윗을 불러 그를 하나님 마음에 드는 다음 왕으로 기름 붓는다! 이 말씀을 종합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외모나 키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데, 중심을 살펴본 결과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선택되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외모보다는 중심, 겉모양보다는 마음, 무엇보다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신다. 인격을 판단하실 때 심지가 깊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이 마음을 보신다는 뜻은?

1) 먼저, 마음에 작정한 바가 있는 사람을 인정하신다는 뜻이다. 다윗은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악기를 잘 다루고 시를 잘 쓰는 청년으로 스스로를 훈련하며 자랐다. 그것이 곧 사울왕의 음악치료를 담당하는 궁중음악가가 되게 하여 왕궁에 들어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다윗은 또한 양을 지키는 데 쓰이는 물매 사용법을 뛰어나게 익혔다. 그것이 골리앗을 이기는 전술무기가 되었다.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무언가 큰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게 되기 위해,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 목표의식을 가지고 계속 훈련하고 준비해왔던 사람임은 틀림없다. 하나님은 시류를 따라 적당히 흘러가는 사람보다는 뜻을 정하여 훈련하고 준비하는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신다!

거룩한 목표의식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인생과 세월에 대한 비전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을 마음에 들어하신다. 사람은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Need Driven Person)과 '목적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Purpose Driven Person)이 있다.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그 마음에 작정한 목표가 없이 당장 주어진 일을 근근이 해나가는 사람이다. 그러나 목적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그 마음에 작정한 목표가 있어 그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다. 올해 무엇을 하겠다, 이번 사순절은 어떻게 보내겠다. 나는 인생을 통하여 이런 일을 이루어보겠다.

2) 또, 하나님은 마음이 쉽게 바뀌지 않는 사람을 인정하신다. 어려울 때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다윗은 사울의 장군으로 있을 때에 미움을 받아 쫓겨나 군사들의 추격을 받으며 곤궁에 처하기도 여러 번이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사울에 대한 신의,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지켰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든 이유다. 분위기가 좋을 때는 밀물처럼 밀려왔다가, 여건이 바뀌어 좀 어려우면 썰물처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어려울 때 끝까지 의리를 지키며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셨던 사람 중에 요셉이 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 집에서 형제들 중에 특별히 사랑받는 아들로 살 때나, 이집트에 사로잡혀 가서 시위대장 집에서 시종으로 살 때나, 오해를 받아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할 때나 변함이 없었다. 집에서도 성실했고, 시종으로 살 때도 성실하여 주인의 인정을 받았고, 감옥에서도 사람좋다 인정을 받아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 손에 맡길 정도가 되었다. 어디서나 마음이 변치 않는 사람이었다.

사람 말에 좌우되지 말아야 한다. 주위의 평판이나 소문에 좌우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에 들기 어렵다. 사울과 다윗은 왕은 왕이나 절대권력이 없는 왕이었다. 백성들과 고관들은 왕을 세워놓고 밀까부르듯 흔들어대었다. 사무엘서를 잘 보면 왕들이 얼마나 많은 평판과 소문 속에서 힘들게 살아야 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의 말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주로 살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 하신다!

겉으로 나타나는 표정이나 표현에 좌우되지 않고 그 품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변덕이 죽 끓듯 하여 기분에 따라 아침저녁으로 바뀌고 하루에도 서너 번씩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사람은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어렵다. 한번 품은 마음을 꾸준히 가지고 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 하신다.

결국,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그 품은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 결과를 보기까지 전진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하나님 뜻을 따라 '하겠다!' 했으면 해야지, 사람이 어쩐다고 금방 바뀌고 힘들다고 포기하면 하나님이 크게 들어 쓰시지 않는다. 칼을 뽑았으면 연필이라도 깎아야 한다. 'wish-wash' 하지 말라. 마음에 선한 소원을 품었다가 금방 씻어버리고 포기해버리는 의지박약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마음에 드는 친구

한번 친구관계를 생각해보자.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도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는다. 좋은 친구가 결국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닐까? 가을이 낙엽 지고 외로움을 타는 계절이라고 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봄에 외로움을 탄다. 새싹이 돋고 대지는 푸른 옷으로 갈아입는데, 자기 마음은 시들고 인생이 재미가 없다. 꽃이 피는 계절이 되면 세상이 화사한데 자기만 겨우 인생 40 전후, 한참이라는 인생 60에 다 늙어버린 것 같아 오히려 더 낙심이 된다. 거기에다 젊은 여성, 잘생긴 남성들은 왜그리 완벽하고 향기롭고 아름다운지 도무지 젊어도 젊지 않은 자기와 비교되어 더욱 외롭다고 한다.

사람들은 외로움을 이겨내려고 친구를 찾는다. 교회 안 다니는 남자들, 요즘은 교회 다니는 남자들도 술을 같이 마신다. 거의 매일 마시는 사람들도 많다. 이것은 술이라는 음식보다는 술친구를 찾는 것이다. 그러다보면 술이 친구인지, 친구가 친구인지 헷갈린다. 술은 매일 마시며 사귀기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있고 건강의 문제도 일으킨다. 교회에서 장려하지 않다 보니 마음에 부담도 된다. 술이나 술친구도 처음에는 좋지만, 마음 터놓는 친구가 되기에 술친구는 적절하지 않을 경우가 많다. 나중에 보면 친구는 없고 술만 남기 때문이다.

우리의 많은 노력이 친구가 되려는 데에 모아진다. 다섯 살만 되면 마음에 드는 친구를 찾아 노력하는 아이들을 보게 된다.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마음에 드는 친구가 자기를 따돌려서 고민에 빠지고, 친구들 사이에서 서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안쓰럽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여행 갈 때까지 마음에 드는 사람과 함께 하려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된다.

사람 마음에 들려고, 소문과 평판을 좋게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시대이다. 외모와 키를 바탕으로 외적 매력에 남녀노소 없이 크게 신경을 쓴다. 이렇게 노력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만, 우리는 이렇다 할 마음에 드는 친구를 가지고 있지 못할 때가 많다. 돈이 많은 사람, 눈에 띄게 잘생긴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 어디서나 말을 잘하고 분위기를 주도하여 친구가 많은 사람을 우리는 마음에 들어하나, 사실 친구를 사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교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안으로 싸우는 것이다.

잠시 한걸음 물러서서 진정으로 나를 성찰해볼 때, '친구가 있나?' 물어보면 정말 더욱 외롭다. 그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고, 나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만, 그 모든 것이 참으로 헛될 때가 많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를 더욱 노력해야 한다. 사람들의 평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때 진정한 〈나〉가 되고, 소문과 평판에 들떠 있는 친구가 아니라, 진정으로 못난 나까지 받아주고, 인생의 길에 오래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에 드는 참 친구를 주위에서 찾을 수 있다.

다윗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왕이 되었다. 밖으로는 블레셋을 비롯한 외적이 침노하고, 안으로는 왕권이 확립되지 못한 불안한 시기였다. 아무리 노력해도 잘하기 어려운 왕이었다. 만약 그가 외모나 겉으로 드러나는 세력이나 사람을 의지했으면 그는 사울보다 더 어려움을 당했을 것이다. 성경에서는 다윗을 성군으로 그리고 있지만, 다윗은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의 통치도 문제가 많았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왕이 되었고, 왕으로 40년 재임하는 동안 하나님 마음에 들기를 평생 노력하였다.

요즘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가! 사람 비위 맞추고 불황을 헤쳐 나가려면 보통 힘든 것이 아니다. 그러나 열 친구 비위 다 맞추려면 실패하지만, 오직 한 분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노력하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 어떤 저주가 우리를 어렵게 하리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누가 문을 닫을 자가 있겠는가! 다윗처럼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내 인생의 왕으로 든든히 세워주실 것이다!

SAMJIN 삼진제약

해열 진통제 상비약 걱정 끝!

게보린® 쿨다운정

광고심의필 : 2022-1618-003300

상품 및 구입문의 : 080-082-1234 (수신자 부담)

[성분 및 함량] 아세트아미노펜 400mg+벤포티아민 8mg+리보플라빈 4mg+아스코르브산 100mg [효능 및 효과] 1. 두통, 치통, 발치 후 동통(통증), 인후통, 귀의 통증, 관절통, 신경통, 요통, 근육통, 견통(어깨결림), 타박통, 골절통, 염좌통(삠통증), 월경통(생리통), 외상통의 진통 2. 오한, 발열시의 해열 [용법 및 용량] 만 15세 이상 및 성인 : 1일 3회, 1회 1정 공복(빈 속)시를 피하여 복용한다. 복용 간격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작용이있을수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제품문의전화 : 080-082-1234 (수신자부담) www.samjinpharm.co.kr

# 시작한 것을 끝까지 완수하는 지혜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일꾼은 일을 잘해야 합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왜" 일하는지를 압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할 줄 압니다. 단순히 돈만 벌기 위해 일하는 사람은 일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싫어합니다. 마지못해 일을 합니다. 일을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일과 성품은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일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을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합니다만 일하는 사람의 태도를 통해 그 사람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태도가 일하는 사람의 예고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귀히 쓰신 인물들은 일하는 태도가 좋았습니다. 맡겨진 일을 자기 일처럼 성심을 다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들은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맡겨진 일에 헌신했습니다. 보수를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일을 맡긴 분의 기대보다 더 많은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예수님은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 리를 동행하라"(마 5:41)고 말씀하십니다. 억지로 맡겨진 일까지도, 기쁨으로 수행하는 사람은 좋은 성품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맡겨진 일보다 더 많은 일을 자원해서 완수할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리브가는 엘리에셀이 마실 물을 부탁했을 때 그가 부탁하지 않은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창 24:46). 리브가는 그녀가 수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상을 받았습니다.

탁월한 일꾼은 약속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선물해 줍니다. 갈수록 더 좋은 것을 선물해 줍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가나 혼인 잔치에서 사람들이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갈수록 더욱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일꾼들에게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보상이 혹시 늦어지면 복리로 계산해서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수고한 일에 당장 어떤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조급해 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입니다(갈 6:9).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는 이유는 일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통해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간수장이 그에게 맡긴 일을 통해 복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총리의 일을 잘 수행함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일을 통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창 50:20).

탁월한 일꾼은 자신이 맡은 일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와 기술을 배우고 연마합니다. 일을 잘 완수하기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과업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동원해 주시길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제게 일을 맡기실 때 그 일에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 주셨습니다. 필요한 자원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어떤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지적 자원, 인적 자원, 물질적 자원, 그리고 영적 자원을 동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제게 맡겨진 과업을 성취하는 중에 과업 성취에 필요한 자원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는 이유는 우리 인격을 연단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통해 우리 인격을 성장시키십니다. 일을 통해 다양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 그릇을 넓혀 주십니다. 과업을 성취하는 과정은 지극히 어렵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경험한 것처럼 수많은 반대와 갈등과 장애물과 위협과 음모와 비난과 조롱을 극복해야 합니다. 꽃길을 걷는 것처럼 쉽고 편안하게 과업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피와 땀과 눈물이 함께 섞여야 합니다. 저는 목회하는 중에 여러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조롱을 받았습니다. 오해를 받았습니다. 비판을 받았습니다. 큰 산과 같은 장애물들을 만났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저의 인격을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일터는 인격 수양의 장소입니다. 일을 통해 받게 되는 가장 큰 상은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탁월한 일꾼은 시작한 일을 끝까지 완수할 줄 압니다. 많은 사람이 시작한 일을 완수하지 못합니다. 중도에 그만둡니다. 그런 까닭에 성과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시작은 했지만 일을 끝마치지 못한 까닭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칭찬받지 못합니다. 다음 단계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요 19:30)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시작하신 일을 완수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완수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요 17:4).

시작한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잘 준비해야 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시작한 일을 반드시 끝내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일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것은 집중입니다. 끈기입니다. 꾸준함입니다. 성실함입니다. 조급함과 게으름과 지루함을 극복하고 끝마무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맡겨진 일을 사랑하십시오. 일터를 인격 수양의 장소로 여기십시오. 또한 전도와 선교의 현장으로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기신 일을 완수함으로 인정과 칭찬을 받는 일꾼이 되시길 빕니다.

# 즐겁게 떠나는 에베소서 일주 여행

안광문 목사
달라스 생명샘교회

## 안광문 박사와 함께 하는 신학산책

### 2. 에베소서의 장르

에베소서는 전통적으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 서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전형적 편지 구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갇힌 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엡 3:1; 4:1) 그런 측면에서 많은 학자들은 에베소서를 옥중 서신이라고 부르는데 이견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Gorman이라는 신학자는 에베소서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익숙한 편지라는 말 대신에 "에베소서라 불리는 문서"라고 하면서 "이것은 편지인가?"라고 묻습니다. 박창건이라는 신학자도 에베소서를 편지라고 하기보다는 설교문이나 의식문 또는 서신 형식으로 된 소책자, 개종자들을 위한 침례 설교문, 서신 형식의 신학적 논문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의 저명한 학자인 Lincoln이라는 분은 에베소서가 편지 형태이지만 수신자들에게 큰 소리로 읽어주기 위해서 썼다는 점에서 에베소서는 설교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역시 에베소서를 평생 연구한 Hoehner라는 신학자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내용상으로 여러 장르가 존재한다고 인정하지만 구조적으로 다른 바울 서신 및 헬레니즘 서신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에베소서는 편지로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Gorman도 에베소서가 편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에베소서를 편지라고 보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합니다. 박창건이나 Lincoln의 주장처럼 에베소서 안에는 여러 종류의 장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문, 의식문, 신학 논문과 같은 장르는 형식에 따른 분류라기보다는 내용에 따른 분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서신 구조는 형식에 따른 분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과 형식은 서로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이 둘을 비교하며 내용이 맞지만 형식이 틀렸다거나 형식은 맞지만 내용은 틀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에베소서는 내용으로는 보면 설교문, 의식문, 신학 논문이고, 형식으로 보면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편지 형식으로 에베소서를 써야 했을까요? SNS나 설교, 강연 동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수신자들에게 이메일로 보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기독교 일간지에 기고하거나 학회지에다가 소논문 형식으로 글을 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들을 지금처럼 독자들이 직접 읽기 위해서 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교육 수준, 문맹률, 그리고 그 당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층민들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신자들은 바울 편지를 직접 읽었다기보다 누군가가 읽어주는 메시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도 수신자들이 읽기 위한 서신이라기보다는 누군가가 읽어주고 수신자들은 듣기 위해서 쓰였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도 수신자들이 잘 알아듣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어와 문장 형식, 즉 가능한 긴 문장보다 간결한 문장 - 물론 1장 후반부와 2장 전반부 등 긴 문장도 있습니다. - 을 지향했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편지를 전달했던 두기고와 같은 사람들도 역시 지금의 집배원이나 택배 기사처럼 단순하게 편지만 전달했던 것이 아니라 편지를 읽어주고, 편지 배경과 그 편지에 대한 바울의 의도를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수신자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했을 것입니다.

# 선한 양심

정재우 목사
세인트하우스 평택

오후 비가 내리고 도로는 젖어 있었던 때였다. 주유소에 들러 주유를 하고 막 도로에 진입해 불과 100여 미터를 가서 신호등 앞에 서있는데 마주 오던 승용차 운전자가 운전석의 창을 내리고 나를 향해 무어라고 외쳤다. 나는 창을 내리고 소리를 들었다.

"유류 주입구가 열렸어요"

나는 감사하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신호등 네거리를 지나 적당한 위치에 차를 세웠다. 유류 주입구가 열려 있었다. 아마 그대로 달렸다면 휘발유가 거리에 쏟아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나를 향해 창을 내리고 외치듯 소리쳐 준 익명의 시민이 고마웠다.

사람에게는 선한 양심이 있다. 선한 양심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면 건전한 마음의 소유자이다. 그러나 선한 양심이 무뎌지면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무관심하거나 무감각해진다.

금번 '의사의 집단행동'은 과연 선한 양심에서 일어난 일인지 묻게 된다. 일개 평범한 시민도 선한 양심을 작동해 무관한 상대편 차량에 긴급히 위기정보를 제공해 주었는데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과연 이웃에 대한 최소한의 선택이었을까? 특히 긴급한 환자들의 생명을 돌보는 일을 뒤로하고 이래도 되는 걸까?

서울대학교 병원 공공진료센터장인 권용진 교수는 "전공의 선생님들께"라는 글에서 전공의의 정체성에 대해 말했다. '의사는 사람의 고귀한 생명과 건강을 보전하고 증진하는 숭고한 사명의 수행을 삶의 본분으로 삼아, 모든 의학 지식과 기술을 인류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라는 의사윤리 조항에 합당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또 스승에게 한 마디 상의도 하지 않은 예의 없는 행동, 근로자로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행동은 각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법과 양심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지탱 유지돼 왔다. 법만으로는 자유롭고 자율적인 사회가 될 수 없다. 법만으로 규제하는 사회는 경직되고 억압받는 사회가 될 것이다. 법 이전에 양심이라는 인간의 본성이 법과 더불어 작동해야 건강한 사회가 유지될 것이다.

금번 '의사의 집단행동'을 단지 법으로 밀어붙이는 정부의 경직된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선한 양심에 호소하고 서로 견해를 좁혀가는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의사들은 엘리트 계층이다. 충분히 대화로 소통이 가능한 집단이다.

정부는 선한 양심에 호소하고, 전공의도 납득할 만한 사유와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면서 선한 양심을 따라 자발적으로 협상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지금의 처사는 국민들도 이해하기 어렵다. 위급한 생명 구조보다 우선적인 일이 무엇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중증 환자의 고통과 애타는 가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라.

예수는 간음하다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을 향해 법대로 돌을 치라고 하지 않았다. 분노한 군중을 향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라고 했다. 선한 양심에 호소했다.

베드로는 로마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기에 고난과 핍박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로마제국에 저항하지 말고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의를 위해 고난을 받으라. 무엇보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했다.

지금이야말로 선한 양심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 어떤 신부(神父)

김인수 목사
전 미주장신대 총장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레위기 20:13)

지난 연말(2023년) 성탄절 전, 12월 23일, 영국 일간 〈텔레그램〉에 따르면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동쪽으로 차로 1시간 가량 떨어진 아벨리너 지역의 베드로와 바오로(바울) 성당에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장식하면서, 아기 예수 왼쪽에는 마리아, 오른쪽에는 누군지 알 수 없는 여성을 배치했습니다. 마리아 옆에는 반드시 요셉이 앉아 있어야 하는데 엉뚱하게도 여자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비탈리아노 델라 살라 신부는 이런 성탄 장식을 연출한 이유에 대해 "이 장면을 통해 전통적인 가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교구에서는 새 유형의 가족에 속한 아이들을 점점 많이 볼 수 있는데, 별거하거나 이혼한 가정, 동성애자 커플, 독신자, 어린 여성의 자녀들이 바로 그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신부는 성소수자 LGBT(Lesbian:여자동성애자, Gay:남자 동성애자, Bisexual:양성애자, Transgender:성전환자) 및 좌파 운동에 동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신의 태도가 최근 동성 커플도 가톨릭교회에서 사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공식 선언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뜻과도 일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 대신 두 여인이 등장하는 성탄 장면은 이탈리아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집권 우파 연정에 속한 한 상원 의원은 "성소수자가 노는 공간은 (아기 예수와 성모 마리아, 성 요셉이 있는) 성 가족에 대해 존경과 헌신을 가진 모든 사람을 항상 불쾌하게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생명과 가족을 위한 모임을 표방하는 단체인 프로비타 & 파밀리아는 "위험할 뿐만 아니라 수치스럽고 불경스럽다."면서, 이 성탄 구유가 가족에 대한 성당의 가르침과 모순되며 동성 부모와 대리모를 정상화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 단체는 주교의 개입을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을 시작했으며, 12월 말 현재 2만 명 이상이 서명했습니다. 〈가디안〉은 가톨릭 신자가 많은 이탈리아에서 예수 탄생 그림은 인기가 있지만, 최근 몇 년 간 사회가 세속화, 다문화가 되면서 이런 그림들은 점점 문화 전쟁에 휩싸이고 있다고 논평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갖는 것은 불법이며 의회는 해외에서 대리모를 이용하는 커플도 처벌하는 법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세상이 이상해지다 보니까, 아기 예수님이 여성동성애자(Lesbian)들의 아들이라는 해괴(駭怪)한 상상을 하는 신부가 있으니 참 할 말이 없습니다. 불신자들이나, 일반 신도가 그런다면 혹 이해 할 수도 있겠지만, 신부가 앞장서서 동성애를 칭송하는 일은 상상 할 수 없는 신성모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한 사이고,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를 데라고 와서,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내려갔다가, 여관에 방이 없어 여관집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을 출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요셉대신 어떤 여자를 두고, 마치 마리아가 Lesbian인 것처럼 꾸며 놓았으니,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나요? 교황이란 분이 동성애자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 주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 분은 성경을 읽는 분인지 알 수가 없네요.

동성애자에게 축복 기도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 부부에게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이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 가족에 요셉을 빼고, 여자를 앉혀 놓는 이런 일을 신부가 했다는 것이 도저히 용납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신도, 목사, 신부는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신도들이 이런 신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야겠습니다. 샬롬.

# 그동안 잘 견뎠다(2)

안지영 목사
나눔교회 은퇴목사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부교수

나는 한국 사람으로는 파푸아뉴기니에 파송받은 첫 번째 성경번역 선교사였습니다. 당시에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가정이 있었구요. 그런데 후에 선교지로 간 나의 성경번역 프로젝트가 그분보다 더 빠르게 진행이 되더군요. 그러다 보니, 내 속에 이런 욕심이 생겼지요. "이런 속도면, 내가 한국 선교사로서 다른 나라 성경번역을 완성한 첫 번째 선교사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내 뒤로 여러 한국 선교사들이 파푸아뉴기니로 왔는데, 이들에게 내가 가진 경험과 정보를 알려주기가 싫더군요. 나를 앞질러 가는 게 싫었기 때문이지요. 한국의 성경번역선교역사에 첫 번째 선교사로서 이름을 새길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질 것 같았지요. 이런 속사정을 가진 내가 한국 선교사들과 함께 모여서 사역 이야기를 하며 기도할 때면 내 속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동료 선교사들의 사역이 잘 진행이 된다는 소식에 겉으로는 기뻐하지만 속은 불편했지요. 반대로 사역 상황이 어렵다는 말에 겉으로는 염려해 주는 표정을 짓지만 속으로는 흐뭇해하는 이중성 때문에 주님께 참 부끄러웠습니다. 선교사로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두고 본국에서 누릴 수 있는 게 많은데도 그걸 다 포기하고 열악한 지역으로 간다고 말해 줄 때 그 말이 그럴 듯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다 버렸다고 여겼던 게 큰 착각이었지요. 나는 버린 게 없었습니다. 내 속에 숨겨져 있던 욕심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나마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주님 앞에서 해결하려는 시도라도 했으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다른 언어로 번역한 선교사가 성경을 한국 선교사로서는 첫 번째로 봉헌했고, 나는 두 번째가 되었지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사람들은 누가 첫째냐 둘째냐는 그리 관심이 없더군요. 성경번역이 부족어로 번역되었다는 것에 감격할 뿐이었는데 말입니다.

선교사의 개인적인 욕망과 교단이나 교파의 욕망이 하나님의 선교를 교회나 교파의 선교, 선교사 개인의 선교로 전락시켜 버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목회 현장에서도 그와 같은 고질병이 존재하고 있더군요. 하나님의 목회를 목사의 개인 목회 사역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목사의 교회로 전락시켜버린 얘기를 직간접으로 듣게 되더군요. 그런데 나 자신도 그런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네요. 선교지에서는 겨우 버텼는데, 그나마 극복했다고 나름 대견스럽게 생각했는데, 목회 현장에서도 비슷한 유혹에 다시 바둥거리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교회의 양적 성장이 나의 주된 관심이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주일 예배에 얼마나 참여했는지 신경이 쓰였지요. 주보를 받으면 지난 주일 헌금이 얼마였는지에 눈길이 가는 걸 막을 수가 없었네요. 달라스 지역에 어느 교회가 분쟁이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 어느 교회로 그 교인들이 이동한다는 소문에 은근히 신경을 쓰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며 한심하다는 자책을 하기도 했지요. 남의 불행이 나에게 행운이 되기를 바라는 이기심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지만, 그걸 넘어선다는 게 정말 쉽지 않더군요. 개척해서 지금까지 재정적 여유를 가져본 적이 없었기에 주일 사역을 마무리하고 귀가하는 길에 '이러다가 망하는 건 아닐까'라며 혼자 중얼거리기를 참 많이도 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응집력을 갖기 위해서는 교회 건물이 필요하다고 충고를 해주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충고가 사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건물 구입을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재정 압박 때문에 건강한 목회를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 미국인 교회의 건물을 빌려 사용하고 있기에 교회 활동에 제약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체 건물이 없기에 자연히 예배 시간이 오후 시간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를 찾고 있는 이들에게는 부정적인 요소였던 것 같더군요.

또한 어떤 이들은 나중에 건축헌금에 대한 부담이 생길까봐 자체 건물 없는 교회를 회피한다는 얘기도 돌아다니더라구요. 그래도 무리한 건물 구입을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 시대의 흐름이 이렇다면, 당연히 우리 교회를 선택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게 뻔한데도, 주일에 새로운 방문자를 기대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았네요.

모든 세대가 함께 드리는 통합 예배는 아직도 일반 교인들에게는 낯설고 불편한 예배 방식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예배 중에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아이들의 울음 소리, 웃음 소리 등이 예배 집중에 방해거리가 됩니다. 그러니 일반 교회에서 이런 소음 없는 예배에 익숙한 이들이 우리 교회 예배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수밖에요. 청소년부도 대예배에 모두 참석합니다. 그 말은 그들만의 예배가 따로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러니 청소년부 예배에 익숙한 이들에게는 나눔교회의 통합예배가 너무 낯설기만 할 겁니다. 내가 이런 예배를 고집하는 이유는 교회의 본질에 접근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런 시도를 이해할 수 있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배의 취지를 아는 이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나 자신을 봅니다.

나눔교회의 조직과 시스템은 일반 교회에 비하면 매우 빈약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교회는 시스템이 빈약하다, 엉망이다"라고 비판하며,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의 시스템이 빈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조직과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물론 그때그때마다 새롭게 적용하는 것은 있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허술하게 보이는 시스템을 불편하게 여기는 이들은 나눔교회가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방문자를 기대하고 있는 나 자신을 봅니다.

이런 여러 이유들 때문에, 나는 처음 교회를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러다가 교회가 망하겠다'는 생각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예배 시간도, 예배 형식도, 교육 시스템도 모두 기존의 익숙한 방식이 아니기에 눈에 띄는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각오하고 시작해서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는 재정적 압박감을 피하려는 유혹이 수시로 밀려오더군요. 이제 20년 가까이 했으면 초월할 만도 한데, 여전히 그 유혹의 힘은 언제나 강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견뎌온 것만 해도 대견하다고 나 자신을 칭찬해봅니다. "안 목사, 그동안 잘 견뎌냈다." 언젠가 주님께서도 이렇게 평가해 주실 때가 있기를 바라면서.

기독일보 www.christiandaily.co.kr
발행인 김규진 편집인 김진영 인쇄인 임채청
0285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 02-739-8119 / 팩스 02-6280-7907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구독문의 02-6085-8166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광고문의 02-6082-8165
구독신청 대표구좌
1개월 15,000원 / 1부 1,000원 농협 355-0018-9278-03 (주)기독일보사
미주 기독일보 kr.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기사 제보는

독자께서 기사화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02-739-8119 혹은 press@cdaily.co.kr 등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주신 내용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기사화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께 전(全) 국가적인 부채를 지고 있다”

<건국전쟁>을 바라보는 시선(4)

군포제일교회 청장년부 송재명

〈건국전쟁〉을 보기 전부터 그리고 영화를 보는 내내, 가슴 속에 느껴지는 감정들은 감사와 존경, 미움과 원망, 나약함과 죄스러움, 그리고 희망이었다.

왜 이런 모순되는 생각이 한꺼번에 느껴지는 것일까? 그리고 이와 같은 생각과 감정을 느끼는 것은 혹시 나 혼자뿐일까?

6년 전, 초등학교 아이들과 우연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그중 한 학생의 대답이 나에게 충격을 주었다.

“친일파, 3·15 부정선거, 독재자, 한강철교 폭파, 분단의 원흉” 등 6학년 아이의 답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답을 듣자니 등골이 오싹했다.

우리나라가 이승만 대통령께 전(全) 국가적인 부채를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도 두 개의 큰 부채를. 완전히 망해 재생을 꿈꾸는 것조차 사치였던 상황에서 더욱이 아시아와 유럽이 공산화 광풍에 무너지던 때, 나라를 다시 세우고, 그것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초로 나라를 건국한 것이 그 하나다.

또한 이승만 대통령은 시대를 앞서 남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수많은 정책을 이뤄내고 나라의 100년 안보를 책임질 한·미 상호방위조약 등으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었다. 그런데도 자유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과 그 동조자들은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의 이름을 말하는 것조차 이 나라에서 터부시될 정도로 처절히 퇴락(頹落)시켰다. 대한민국 성장의 달콤함을 즐기면서도 우리 세대는 이러한 악행과 무지에 침묵하였고 동조하였으니, 이것이 그 두 번째다.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 이 나라를 그리 사랑한 애국자, 우남(雩南) 당신을 너무 오해하여 너무나 죄송하다. 사죄가 된다면 영화 스크린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죄송하다.

70여 년간 우리는 이러한 이념 전쟁에서 철저히 패하여 왔다고 본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역대 대통령 중 최악을 이승만 대통령이라 하고, 아이들의 교육에서도 철저히 외면당하고, 식민지시기와 전쟁을 거치면서도 나라를 지켰건만, 건국절 하나 제대로 기념할 수 없는 이 나라. 세계 경제 순위 10위의 부자나라가 되었지만 정작 자신들의 나라를 저주하는 젊은 세대가 넘치는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이리 건재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이다.

그렇다, 우리는 전쟁 중이다. 단순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건국을 이뤄낸 위대한 대통령인지 아닌지를 다투는 그런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을 쇠하게 하고 싶어 안달 나 보이는 자들이 정치·경제·종교·교육·언론계에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지금까지 양상은 흡사 6·25 당시 낙동강 전선 뒤에 숨어 겨우 몸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인천상륙작전을 통해 전세를 바꿔놓았듯, 〈건국전쟁〉은 우리 시대 이념의 반격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믿는다.

적지 않은 이들이 이 영화를 통해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고, 얼마나 자신들이 잘못된 지식에 경도되어 왔었는지 깨닫는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를 제작한 김덕영 감독님의 노력과 대단한 용기에 박수와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다.

전쟁에 많은 무기와 군인이 필요하듯, 우리 크리스천부터 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으로 무장하여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설 것으로 믿는다.

마지막으로 한성감옥에 투옥 당시, 하나님을 만난 순간 이승만 대통령이 올렸던 기도를 나도 같은 마음으로 한번 되뇌어본다.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해주시옵소서’

# 어린이집 시간제보육, 정규반과 통합반으로 이용 가능해져

## 기존 운영방식의 한계점 개선해
## 전국 94개 시·군·구, 176개 어린이집의 195개 반에 전면 도입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단시간, 일시적으로 보육서비스를 필요로 할 경우, 시간단위로 보육료를 지불하고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3월부터 ‘시간제보육 통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간제보육반은 정규 보육반과 분리하여 별도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반만 운영하였다. 기존 운영방식은 많은 어린이집이 참여하기 어려운 한계로 서비스의 확산과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 대응에는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정규보육 이용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일시적, 긴급한 사유가 아닌 입소 대기 기관의 적응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정규 보육반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보육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반 모형을 개발해 왔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한 2차례의 시범사업을 토대로 이용자 및 현장의 개선 필요사항 등을 보완하여 2024년 이달부터 본사업으로 추진한다.

이번 시간제보육 통합반은 참여지역 공모 및 각 지자체별 선정심사를 통해 최종 지정된 94개 시·군·구, 176개 어린이집, 195개 반에서 시행한다.

시간제보육 통합반을 이용할 부모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서 구체적인 지역별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시간제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이용 예정일 14일 전부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누리집(www.childcare.go.kr)과 모바일 앱을 통해 사전 예약 후 시간대 단위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시간제보육 통합반 보육료는 시간당 5,000원으로 이 중 부모부담금은 2,000원(3,000원은 정부지원금)이며 월 60시간까지 지원된다. 월 6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도 부모가 보육료 전액을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다. 보육료 결제는 이용일마다 국민행복카드로 현장 결제와 홈페이지/모바일 앱 등으로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남점순 보육정책관은 “시간제보육 통합반 사업을 통해 시간제보육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높아져 가정양육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어린이집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보육으로 활용하면 어린이집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시간제보육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이루리 기자

# 경기교육청, 초·중·고 학부모 인성교육 강의 자료 개발·보급

경기도교육청이 인성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책무성과 가정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인성교육 연수자료 6종과 영상자료 3종 등 학교급별 맞춤형 인성교육자료를 개발·보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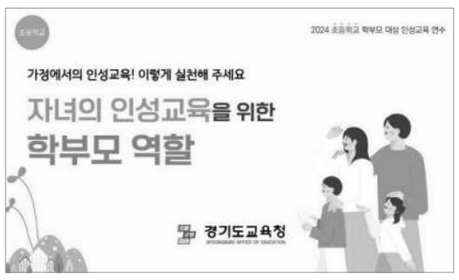
해당 자료는 학교 상황에 맞게 편집할 수 있는 강의 자료 및 시나리오, 수어 통역 영상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수어 통역을 포함한 영상자료를 제작해 학부모 누구나 연수를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성교육 연수자료는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가정의 인성교육 필요성 ▲2024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방향 및 정책 안내 ▲학교급별 학생 특징을 반영한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담았다.

이를 통해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해 학부모와 학교 인성교육 계획을 공유하고, 가정과 학교가 함께하는 인성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하려고 한다.

학교에서는 입학식, 학부모 교육과정 설명회 등 학부모 대상 연수에서 활용할 수 있다. 학부모 인성교육 자료는 도교육청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 ‘GO3’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 이지명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와 가정의 인성교육이 중요한 때”라며 “학부모의 인성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학교가 건강한 협력 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 초등학교 학부모대상 인성교육 연수자료 일부 ⓒ 이루리 기자

이루리 기자

# 서울시, 사회적 고립가구 대상 ‘AI안부든든서비스’ 추진

## 통신데이터와 전력사용량, 돌봄 앱 분석으로 안부확인
## 임대아파트 100가구, 노숙인 9가구 시범 실시

서울시가 사회적 고립가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추진한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SKT 산하 비영리법인인 행복커넥트와 4일 공동업무협약을 맺고 ‘AI안부든든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AI안부든든서비스는 통신데이터와 전력사용량, 휴대폰 돌봄 앱 등을 통해 생활데이터를 종합 분석한다. 일정 기간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거나 예측된 전력 사용량에 미달할 경우 AI(SKT 누구 비즈 콜)가 자동으로 전화를 발신하고 지속 받지 않는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긴급 출동해 안부를 확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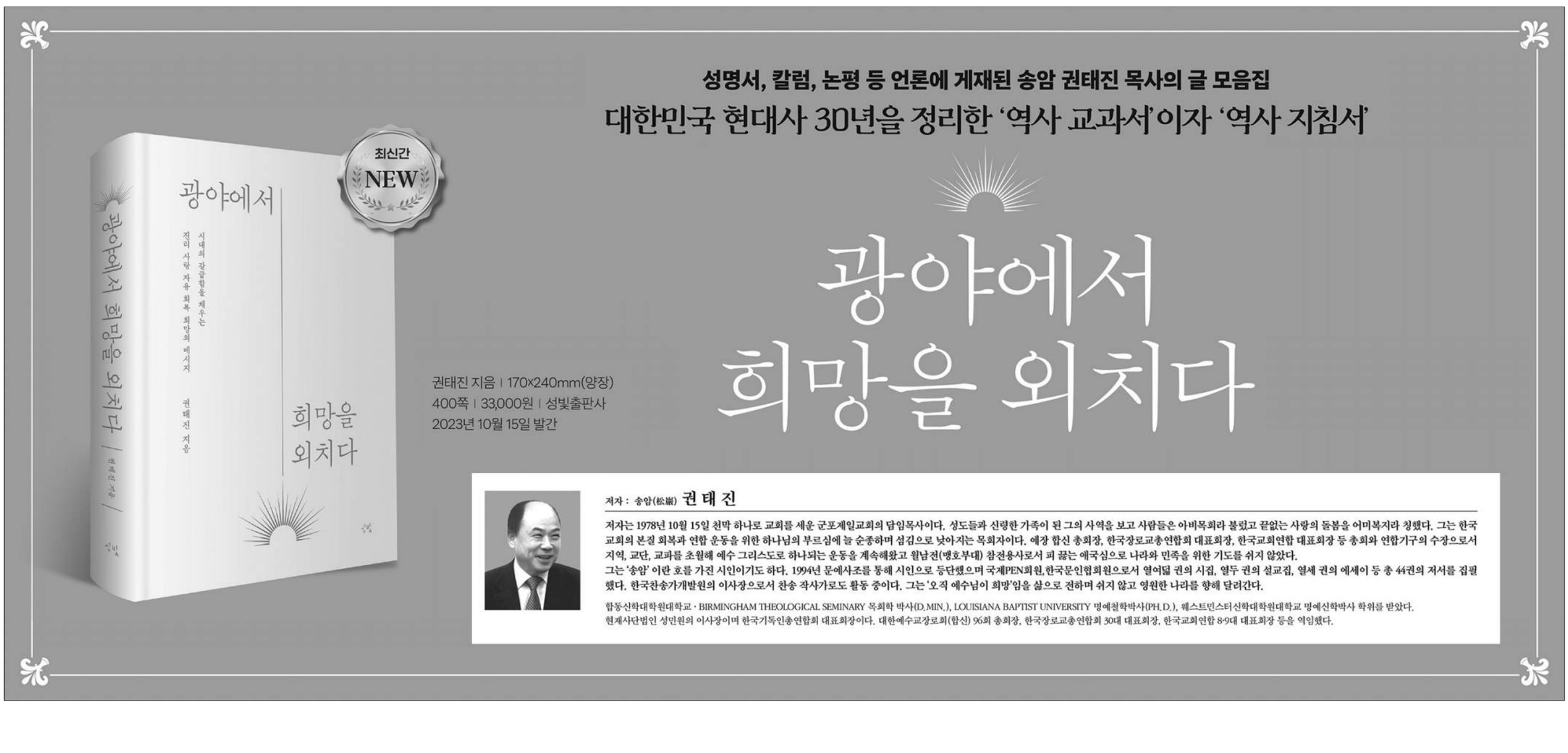
재단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강서구 임대아파트 단지 100가구와 노숙인 지원주택 9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회적 고립 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고독사의 75.2%가 주거 취약계층에서 발생하는 점에서 착안해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는 시범사업 운영기간 동안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위기가구에 대한 서비스 연계를 지원한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정책 개발에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출동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SH공사는 이번 시범사업과 관련해 사업 대상자 모집과 AI안부확인서비스 등의 이용료 부담을 맡는다. 행복커넥트는 서비스 데이터를 수집·제공하고 관제·출동서비스 등을 수행한다.

이수진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장은 “스마트 돌봄을 활용해 보다 효과적으로 고독사, 사회적 고립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다은 기자

MARKETPLACE
# 마켓 플레이스

2024년 3월 6일 수요일 제 2495호

홈페이지 www.cplace.co.kr 전화번호 02-6052-6791 이메일 riseup0731@gmail.com

건축/인테리어/리모델링
하주디자인&건축
최 윤 곤(왜관제일교회 집사)

Tel. 054-973-0153
Mobile. 010-4676-2314
E-mail. sja7778@naver.com

(이재흔 목사의 한국교회 살리기)
# 임마누엘 성경구속사개관대학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향한 구원의 복음으로 그 능력이 구속사다.
택하신 은총을 입었어도 구원은 복음에 순종해야 얻는 전제조건이 있는 명령이다.
말씀이 믿어져 따지지 않고 따르는 것이 복음 순종이고 구속사의 능력이며,
자기 생각을 따르는 것은 불순종일 뿐 자유도 아무것도 아니다.
임마누엘 성경구속사개관은
문자에 갇힌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언약 이행의 능력을 보게 하고,
자기 생각에 갇힌 자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뜻을 듣고 보게 하며,
멸망의 자리에 있는 자는 주의 영광 앞으로 나아오게 하는 구주 예수의 선물이다.
복음이 공의대로 들리고 보이고 믿어져 따르게 하는 말씀의 깊은 샘이다.
구속사의 공의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회개의 능력으로 학문일 수 없고
또 학문에 가두게 할 수도 없는 복음 안에서의 자유다.
한국교회 앞에는 물질과 명예와 권세로 미혹하는 종교의 넓은 길과,
겸손과 감사로 구주 예수 따라가는 신앙의 좁은 길이 있다.
복음이 들리고 보여 믿어지게 하는 생명수를 듣고 소유하고 흐르게 하기 바랍니다.

**강사 약력**

생명수기도원 교회 담임(현)
임마누엘 성경구속사개관대학장(현).
제 1 예수복음부흥단 대표.
총회부흥사회.
총신대학원 목회학 석사.

강 사 : **이재흔 목사.**
장 소 : 천안시 동남구 터미널4길32
임마누엘 성경구속사개관대학, 생명수기도원.
일 시 : 3~6, 9~12월 첫 주 월(오후 2시)~수(오후 5시)(숙식 가능).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전 화 : 010-5432-7951.
(선교계좌, 농협 302 0472 2140 31 이재흔)

하늘문을 여는
기도대성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행1:5)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자!

신현영광교회 본당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담임목사 박만규
T 010-3739-4512

등록 민간자격증 (문화체육관광부 2013-2407)
교회복지사
교육생모집
2024년 3월 개강

교육장소
서울_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종로5가역, 2번 출구)
대전_본회 교육센터 (서대전사거리역, 5번 출구)
통신과정은 계절학기에 출석수업

등록비 30만원
농협 355-0018-2184-03
(예금주; 한국교회복지사회)

한국교회복지사회
홈페이지문의 www.cws95.net
전화문자문의 010-9643-6356

획기적인
글로벌 비즈니스
아이디어 사업

기/승/전/치킨집 or 커피숍?!?
국내 레드오션 NO!
글로벌 비즈니스가 해답이다

세계1위가 될 사업도,
인류의 진보를 위한 계획도,
**예산이 없다면** 산산조각이 납니다
**아이템은 있으나** 예산이 없는 저를
도와주시면 예산은 갖고 계시나
아이템이 없는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2025년 사업완성**

**국민은행** 975901-00-026853
**헬프사람넷** 조현철
**한구좌1억** 8명 제한

***투자 진행 시 :** 변호사 공증 및 10%배당 서류전달
(단계별 수익 창출과정 일목요연 프로세스 제공함)

전화: 010-9897-2003

장대수 목사의 목요 말씀찬양을 통한
치유 대부흥성회

강사 장대수 목사
시흥사랑의 교회 당회장
대한기독교부흥사회 대표회

[ 부흥회 특징 ]
- 불같은 찬양
- 생수같은 말씀
- 강력한 축사
- 우울증해결

국내최초 우울증 원인분석연구 박사학위 취득
부흥회 경력 30년의 장대수 목사의
능력있는 설교를 경험하세요

장소 | 시흥 사랑의 교회
시간 | 매주 목요일 7시
문의 | 010-6325-3916
경기도 시흥시 하상동 377-2 삼성프라자 304호

미디어 선교를 선도하는 방송
지구촌 예수복음 선교방송
[ 특 징 ] 오직! 예수님 말씀만 전하는 방송
*유튜브 검색창에 장대수 목사를 검색해 보세요*

그냥 오메가3가 아닙니다!
3중 기능성
건강기능식품
생체이용율 높은 rTG형태
노르웨이 직수입 하프물개 오메가3

원활한 혈액순환!
하루 2캡슐
혈행건강과 뼈건강을 동시에!
고품질 노르웨이산
항산화 건강까지
하프물개 오메가3




최초판매기념

Sale 57%

1박스(120캡슐) x 3박스
지금 주문하시면 선물용 쇼핑백 무료 증정!

정상가 ~~360,000원~~
할인가 155,000 원

우체국 107045-02-188054
농 협 301-0336-3023-11
예금주:김종덕 ※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문의 : 010-5775-2671

# 복음 언약을 기억하는 행복한 결혼 생활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복음이 빚어낸 결혼'**

성경엔 "기억하라"는 명령이 자주 등장한다. 특별히 언약과 관련된 '기억'을 요구할 때가 많다. 구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언약을 굳게 맺으시고, 자기 백성이 그 언약에 신실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 남성들은 신체에 특별한 표지를 만들어 언약을 기억하기를 원하셨고, 각종 제사 제도와 절기 등을 제정하여 언약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기를 바라셨다. 신약 시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교회 역시 마찬가지다.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으로 맺으신 새 언약을 구약부터 내려오던 언약 기념의 방식을 통해(유월절 식사) 재정립하셨다. 이제는 양과 염소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언약의 백성이 된 교회에게 주님은 '이를 통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명령하셨다.

많은 사람이 쉽게 망각하고 무시하는 것 중 하나가 혼인 서약, 혹은 결혼 언약이다. 결혼은 사랑하는 남녀가 앞으로 부부가 되어 잘 살겠다고 지인들 앞에서 선포하고 그들의 축복과 응원을 받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최근엔 부부의 언약 관계를 엄숙히 선포하는 분위기는 사라지고 파티를 벌이는 것으로 결혼식이 변질되고, 권위가 있고 존경받는 사람을 통하여 두 사람이 하나님과 수많은 증인 앞에서 부부의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엄중히 공표하는 일도 사라지고 있다. 그런 주례사 없이 부모의 덕담을 듣거나 부부가 직접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을 나누는 것으로 대체되고 있다. 그러나 예식이 담고 있는 풍경이나 전하는 메시지가 아무리 바뀌고 있어도 성경은 결혼이 하나님 앞에서 맺는 언약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잠 2:17).

모든 언약이 그런 것처럼 결혼 언약도 계속해서 기억되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약속을 상대방에게 했고, 그것을 지금 어떻게 신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평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언약이 단순히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에 기초하는 것처럼, 부부가 맺은 혼인 언약도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더욱 견고하게 하고 복음으로 그 언약에 신실할 수 있다는 진리를 부부가 삶으로 체득해야 한다. 리폼드 신학교에서 교회사와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 채드 밴딕스훈은 그의 아내 에밀리와 함께 〈복음이 빚어낸 결혼〉이란 책을 썼다. 소개의 글에서 부부는 이 책의 특징으로 1) 간결함 2) 솔직함 3) 통찰력을 꼽았다. 교리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을 간결하게 담아냈고, 부부의 삶을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려냈고(그 말은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400년 전, 윌리엄 구지 목사가 쓴 〈가정에서의 의무〉라는 책에서 여러 통찰을 얻었다.

이 책은 "결혼과 무엇"으로 제목이 달린 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혼과 성경, 역사, 은혜, 여성, 남성, 승리, 가족, 침실, 성장.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구속사(구원의 역사) 안에서 결혼을 큰 그림으로 바라보고, 결혼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찾아내고, 결혼 생활에서 아내와 남편의 역할 그리고 의무를 배우고, 결혼 생활에서 참 승리를 얻도록 돕고(부부싸움에서 서로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것), 부부가 어떻게 부모를 떠나지만 동시에 부모를 공경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 가르치고, 성적인 친밀함을 누리는 법과 함께 주 안에서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야 한다고 권면한다. 부록에는 부부가 이 책에서 말하는 방식대로 변화할 수 있도록 이 책의 각 장을 읽고 나눌 수 있는 질문들이 수록되어 있다.

많은 부부가 현재의 결혼 생활을 평가할 때, 개인의 행복과 개인이 누리는 결혼 생활의 혜택을 먼저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마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결혼의 약속이지 결혼의 유익이 아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 결혼의 언약에 신실할 때, 행복과 만족은 따라온다. 아이러니하게도 각자의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결혼은 결혼의 언약을 파기하는 쪽으로 향하고 추구하는 기쁨을 주지도 못한다. 언약에 흐르는 DNA는 복음의 은혜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신실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약속,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아낌없이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부부의 결혼 생활을 견고하게 붙들어 준다. 사상 초유의 이혼율과 결혼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언약에 불성실한 부부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이 악한 세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복음이 빚어낸 결혼 생활을 영위할 때, 세상은 부부를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아름다운 사랑을 보게 될 것이다. 채드와 에밀리 부부가 쓴 〈복음이 빚어낸 결혼〉을 통하여 더 많은 가정이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받은 사랑을 서로에게 또 세상에 나타내는 가정을 이루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조정의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유평교회

# 변화에 대처하는 믿음의 반응

**신간 '새 변화 속으로 들어가는 용기'**

그리스도인은 엄청난 변화의 한복판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변화를 두려워한다. 변화에는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다. 본 도서 〈새 변화 속으로 들어가는 용기〉는 변화에 잘 적응하고 변화를 통해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한 성경인물들의 이야기다.

저자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 담임)는 이 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요셉, 다니엘 등 이민자들을 통해 새 역사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저자는 "낯선 땅은 어떤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 이상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낯선 경험이 낯선 땅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바닥이 바로 낯선 땅이 될 수 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수동태가 되는 그 경험이 낯선 땅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다. 하나님은 가장 낮고 낮은 곳에 복된 기회를 감추어 두셨다. 복된 기회는 만남을 통해 주어진다"고 했다.

그는 "나오미와 룻은 인생의 위기를 맞이했다. 하지만 그들은 위기를 좋은 위기로 만들었고, 좋은 위기를 복된 기회로 만들었다. 좋은 위기를 낭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고난을 낭비하지 말길 바란다. 고통을 낭비하지 말길 바란다. 실패를 낭비하지 말길 바란다. 위기를 낭비하지 말길 바란다. 얼마든지 우리 삶은 역전될 수 있다. 우리 인생은 지혜로운 선택과 결정을 통해 역전될 수 있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 윌라, 베스트셀러 '불편한 편의점' 오디오북 공개

독서 플랫폼 윌라는 김호연 작가의 베스트셀러 소설 '불편한 편의점' 오디오북을 공개한다고 최근 밝혔다.

'불편한 편의점'은 힐링소설 트렌드를 주도한 작품으로 골목길의 작은 편의점을 무대로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삶과 희로애락을 따뜻하고 유머러스하게 담아냈다. 지난 2022년 연간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고 이후 출간된 속편 또한 큰 사랑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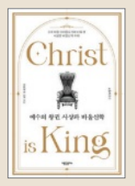
오디오북은 원작 소설과 마찬가지로 총 2편으로 제작됐다. 4일 1편이 공개되고 5일 2편이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윌라는 종이책 시장에서 베스트셀러에 오른 단행본을 연달아 오디오북으로 출시하고 있다.

윌라를 서비스하는 인플루엔셜 문태진 대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밀리언셀러 작가 김호연의 대표적인 힐링소설을 오디오북으로 공개한다"며 "매력 만점 등장인물들이 전하는 삶의 위로와 감동을 느껴보시길 권한다"고 전했다.

신재우 기자

## 3월, 작가들의 말말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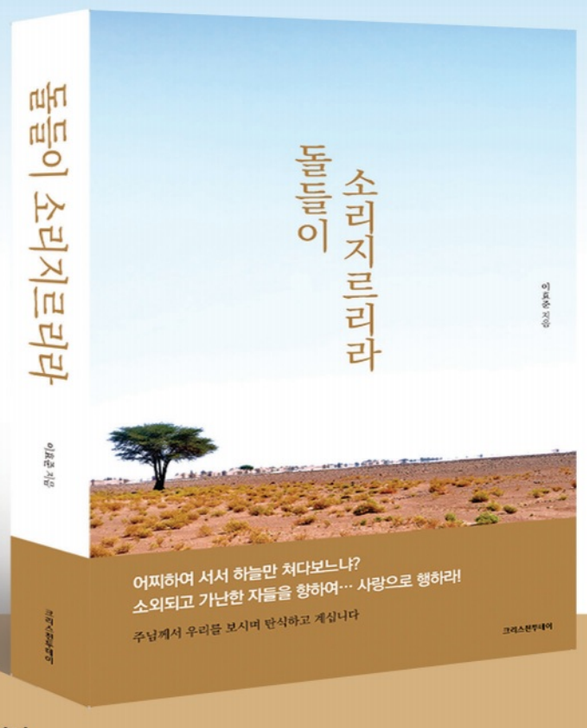


예수의 일차적인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였다고 하더라도 그 말이 바울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바울은 확실히 초기 기독교의 하나님 나라 전통에 익숙했지만, 그는 자신의 서신들에서 그 개념을 창의적이거나 엄밀하게 발전시키거나 통합하지 않았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바울의 진술 대다수는 바울 자신의 창의적인 채택과 사용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초기 기독교 전통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이번 장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바울이 일관성 있게 그리스도의 백성이 왕의 통치와 혜택에 참여한다고 말한다는 사실 때문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바울의 그리스도 담론에서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가 자신의 통치를 자신의 신민과 공유하는 데서 나타난다. 왕권 담론에서 왕이나 황제가 종종 제국제국 또는 국가와 융합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바울은 왕과 신민을 가능한 가장 가깝게 연결하는 담론을 만드는 셈이다. 조슈아 W. 지프 '예수의 왕권 사상과 바울 신학'

예언자, 그들은 누구인가?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대신 전달하는 사람이다. 히브리어로는 '나비'(navi)라고 한다. 나비라는 말은 부름받은 자, 전달자, 알리는 자, 보내신 분을 대신해 말하는 자를 뜻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대신 전달할 사람들을 찾아 말씀을 맡기셨다. 그래서 예언자(預言者)는 대언자(代言者)다. 예언에 권위가 있는 것은 그가 전하는 말이 자신의 주장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다. 예언자들은 대체로 백성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한 말씀을 전해야 했지만, 그 말씀 속에는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사명이 있다.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할까? 그 대답을 이사야 예언자에게서 확인하고 싶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사 40:8). 베드로도 이 말씀을 인용했다(벧전 1:24).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신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예언은 곧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살아야 할 말씀이다. 하지만 오늘날 예언서의 말씀들이 한국교회의 강단에서 덜 선포되고, 덜 읽히는 것이 사실이기에 아쉽다. 이사야 '그때 그들이 흘려들었던 예언자의 소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복신앙"적인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복"이라는 단어는, "빌 기(祈) + 복 복(福)"이라는 한자를 씁니다. "자신과 자기 가족의 번영과 출세를 위해서, 이 땅에서의 명예와 성공을 누리기 위해서, 병에 걸리지 않고 장수하기 위해서, 신이 주시는 복음 받기 위해서 버는 것"을 말하죠. 이어서 "신앙"이라는 "믿을 신(信) + 우러를 앙(仰)"이라는 한자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서 성취되는 것을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내용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으로 타락한 기복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봅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오늘날 교회안에는 기복적이고 물질적인 신앙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세속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비성경적이며, 불경건한 신앙의 행태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박형용 '크리스천 리스타트'

크리스천투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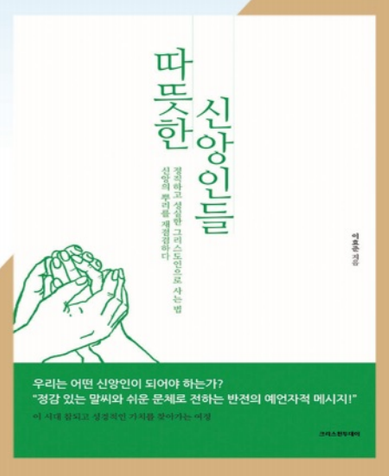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따뜻한 신앙인들

신앙의 뿌리를 재점검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추천사

*장로님께서 칠순을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이 책은 그 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형갑 정교 (구세군 진주교회)

*참된 이해 없이 맹신적으로 받아들였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춘일 목사 (범어중앙교회)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 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구성지게 읊어낸 책입니다.* 박호철 목사 (창원내산교회)

매일묵상

# 삶의 한복판에 찾아오시는 예수(2)

여러분, 주님 없이 사는 인생, 주님 없이 아등바등 살아간들 그 인생에 과연 어떤 열매가 있는 것입니까? 주님 없는 자리에서 우리는 과연 무슨 결실을 맺었습니까? 죄의 열매만 맺고 살았던 부끄러운 인생은 아니었습니까? 열매 없이 메마르게 강퍅하게 살아왔던 인생들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주님 없는 자리에서 아무런 고기를 잡을 수 없었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빈 그물뿐인 곤궁한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곤궁한 삶 가운데 주님은 먼저 찾아오십니다. 빈 그물뿐인 현실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귀 기울이므로 주님을 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여러분 제자들이 밤새 고기 잡으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지 않았겠습니까? 왼편에다만 던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경험과 이성을 뛰어넘어 지금 우리 삶에 던져지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들을 들어도 흘려보내지 않습니까? 말씀을 밀어내고 내 경험과 이성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대로 그물을 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에는 풍요로운 결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그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본문의 결론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능력을 체험하고 제자들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십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주님을 누가 만나는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만납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물을 내림으로 그들과 함께하신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 말씀하실 때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러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베드로, 그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주님을 좇아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여기서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는 의미는 주님 앞에 경건의 옷을 입고 삶에 전적인 헌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린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후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어떠한 경건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그 삶을 헌신했는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다 위를 걸으시는 주님을 따라 바다 위를 걸었지만, 어느새 험난한 파도를 보고 두려워 바다에 빠진 베드로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이 두려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믿음 없는 인생에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따라 경건의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함으로 세상 위를 걸으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길 바라십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따라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려야겠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신 주님은 우리에게 바다 위를 걸으라고 하십니다. 세상을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을 불어넣으시고 영생의 길을 따라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녀 됨 드러내며 권세 있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때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실패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죽은 자처럼 생기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파도치는 바다를 바라보며 두려워하듯 세파에 두려워 세상 가운데 허우적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연약한 나 자신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사망을 이기신 주님을 믿고 바라보는 삶에는 죽음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는 절망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실패란 단어가 없습니다. 이제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기도하며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구하십시오. 내 삶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구원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였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십자가에 힘없이 달리신 주님을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주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어떠한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리시고 종국에 영화롭게 하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그러니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당신을 따라 살라고 하십니다. 바다 위를 걸으신 주님처럼 우리도 바다 위를 걸읍시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삽시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결국, 믿음의 결국, 순종의 결국에는 넘치는 삶의 열매, 풍성한 결실을 맺는 기쁨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시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이 영화의 한 세계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를 따라 넘치는 풍요와 충만한 기쁨의 세계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하십니다.

<계속> 서광교회 제공
seogwangchurch.org

믿음의 열조들을 찾아서

#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II

가톨릭에서 묵주 기도를 올릴 때는 예수와 마리아의 생애에 있었던 스무 가지 '신비'에 관해 묵상하는 시간이 있다. 그 신비들은 네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 요일마다 기도에 포함된다.

환희의 신비(Joyful Mysteries)는 수태고지, 성모 방문, 예수 탄생, 예수 봉헌, 성전에서 소년 예수를 찾음이다. 깨달음의 신비(Luminous Mysteries)는 예수의 세례, 가나의 결혼, 왕국의 선언, 변형, 최후의 심판이다. 슬픔의 신비(Sorrowful Mysteries)는 겟세마네의 고뇌, 매질, 가시면류관을 씀, 십자가를 짊어짐, 십자가에 못 박힘이다. 영광의 신비(Glorious Mysteries)는 부활, 예수승천, 성령강림, 성모승천, 마리아가 '천국의 여왕'으로 즉위함이다. 낯익은 가톨릭 기도문의 시작 부분인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Hail, Mary, full of grace)"는 누가복음에서 인용한 구절인데, 라틴어의 아베 마리아(Ave Maria)로 잘 알려져 있다. 이 구절은 수많은 작곡가들이 음악으로 만들었다.

기도문 이외에도 예수의 어머니는 수많은 그림과 조각의 주제가 되었다. 미술에서는 흔히 마돈나(Madonna, 'my lady'라는 뜻)라고 부르며, 아기 예수를 안은 모습으로 자주 표현한다.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수태고지를 하는 장면을 담은 작품도 많다. 가톨릭에서는 전통적으로 크리스마스로부터 9주일 뒤, 즉 3월 25일을 수태고지의 날로 정하고 있다. 또한 마리아가 친척인 엘리사벳을 방문한 장면(성모 방문, 5월 31일), 혹은 요셉과 양치기들과 함께 베들레헴에 있는 장면(크리스마스)도 흔히 그림으로 묘사된다.

그밖에 가나에서의 기적, 십자가 처형을 그린 작품에도 마리아가 등장한다. (어떤 교회들은 마리아와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가 섰는지라"라는 성서의 구절이 함께 있는 '기념 창문'을 만들기도 한다. 이 창문은 대개 누군가의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 헌정 된다.) 죽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에도 마리아가 있다. 마리아가 죽은 그리스도를 안고 있는 모습은 피에타(Pieta)라고 부르는데, 가장 유명한 피에타는 바티칸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조각이다. 이 사건들은 모두 성서에 나온다.

그밖에 로마가톨릭에서 기념하는 다른 축일들도 있다. 이를테면 원죄 없는 잉태, 승천, 마리아의 즉위, 성모 마리아 대축일 같은 것들이다. 가톨릭교도들은 흔히 마리아를 BVM(Blessed Virgin Mary), 즉 '축복의 성모 마리아'로 줄여 부른다. 성모 마리아의 이름을 땄거나 그녀에게 헌정된 교회들은 수도 없이 많다. 대개 그런 교회의 벽에는 성모성당(Lady Chapel)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성서에는 마리아의 부모가 나오지 않지만, 『야고보 원 복음서』라는 아주 오래된 문헌을 보면 '요아힘과 안나'라고 되어 있다. 로마가톨릭은 그들을 7월 26일에 기념한다. 동방정교회의 축일은 9월 9일이다.

수많은 미술 작품 이외에 마리아는 예수의 생애를 다룬 문학 작품에도 자주 등장한다. 올렘 아슈는 마리아에 관한 베스트셀러 소설을 썼다. 작가 마조리 홈스(Marjorie Holmes)는 젊은 마리아와 요셉을 다룬 『갈릴리에서 온 두 사람 Two from Galilee』을 썼다. 그런 작품은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마리아는 예수의 소년 시절을 다룬 앤 라이스(Anne Rice)의 소설 『주님 그리스도 : 이집트 탈출 Christ the Lord: Out of Egypt』에서 핵심 인물로 나온다.

예수에 관한 영화에서도 마리아는 중요한 인물이다. 프랑코 제피렐리(TV 시리즈 「나사렛 예수」)나 멜 깁슨(「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독실한 가톨릭 교도가 감독한 영화에서 마리아는 복음서에서 전하는 것보다 더 비중 있는 역할로 나온다. 신교도들도 그다지 반대하지 않는다.

신약성서의 시대에 마리아라는 이름은 무척 흔했다. 아람어의 마리암은 구약성서에 나오는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에 해당한다. 신약성서에는 예수의 어머니 이외에 적어도 다섯 명의 마리아가 더 나온다. 마리아라는 이름은 그리스도교 문화권에서 아주 흔한 여자 이름이다.

들녘출판사 제공


식물로 못고치는 질병은 약으로도 치유되기 어렵다

홍천마를 잘 알면 질병이 두렵지 않다

질병과 건강때문에 아직도 고민하십니까?

홍천마 진액 골드가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 극찬한 천마

■ 천마의 종류
국내에 분포하는 천마는 크게 나누어 꽃대색이 적황색인 홍천마와 담청색인 청천마가 있다.

■ 천마의 효능과 신비
천마는 마른하늘에서 떨어지는 마목(痲木)이라 하여 마비가 되는 증상을 다스린다 하여 하늘 천(天) 마옥의 마(麻)를 더하여 천마(天麻)라 불러 왔으며 예부터 정풍초(正風草)라 불러지기도 한다. 정풍초란 이름 그대로 바르게 풍을 다스리는 풀이라는 뜻.

천마는 난초과이며 여러 해 살이 풀로서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자연산은 5월~6월에 마치 붓대같이 싹이 올라와 작고 흰 꽃을 피우는데 꽃을 피울 때면 그 천마는 이미 속이 비어 가고 있는 중이다. 천마는 5월~6월에 싹을 올리고 7월이면 그 싹이 시들고 말라버리기 때문에 자연산 천마는 1개월 정도만 싹을 볼 수 있기에 채취 기간이 짧아 싹이 막 올라오는 시기가 최적의 채취기간이다.

이때 채취하지 않으려면 늦가을에 채취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늦가을에는 싹이 없어 발견하지 어려우므로 전문 약초꾼들은 그 장소를 눈 여겨 봐 두었다가 메밀 씨를 뿌려 놓았다가 자란 메밀을 보고 채취했다.

천마의 싹에는 잎이 돋아나지 않고 붓대처럼 올라와 작고 흰 꽃을 피우며 그 싹도 푸른빛의 색과 분홍색의 홍천마가 있다.

뿌리가 성장했을 시에는 마치 고구마처럼 생겼으며 가로로 일정한 간격의 줄무늬를 나타낸다.

뿌리는 천마라 명칭하며, 줄기는 적전(赤前) 또는 정풍초(正風草)라 부른다.

천마는 참나무 뿌리에 버섯처럼 종균에 의해 자라는 반 기생식물이다.

'천마' 는 뇌 질환 계통의 질병에 최고의 신약이며 특효약으로 잘 알려져 있다.

고혈압, 중풍, 두통, 불면증, 우울증, 신경쇠약, 위궤양, 간질, 간경화, 당뇨, 식중독, 디스크, 백혈병과 각종 암, 발기부전 등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옛 문헌에 기술된 내용을 살펴보자.

〈동의보감〉
모든 허(虛)와 어지러운 증세에 천마가 아니면 치료하기 어렵다.(非天麻不)

천마는 두통과 고혈압, 어지럼증에 특효약이라 할 만하다.

어지럼증은 한의학에서 '현훈'이라고 부르는데 대부분 간과 신장의 기운이 손상되어 간의 열이 위로 오르고 몸 안에 담과 열이 서로 뭉치거나 몸 속의 수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여 생긴다. 몹시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우며 구토가 나고 귀에서 소리가 나며 청력이 약해진다. 이럴 때에 천마를 사용한다.

천마는 간장의 열을 내리고 바람과 습기를 없애며 마음을 진정시킨다.

머리가 흐리고 눈앞이 어질어질하며 귀에 소리가 나고 입 안이 쓰며 가끔 잘 놀라고 손발이 저리며 손과 발을 잘 쓰지 못하고 팔 다리에 경련이 일어나는 사람한테 특히 효험이 있다.

천마는 신경을 튼튼하게 하여 신경쇠약, 불면증을 치료하며 오래 복용하면 간, 신장, 폐, 대장이 튼튼해지고 살결이 옥 같이 고와지며 머리칼이 까맣게 되고 혈액이 깨끗하게 되며 오래 살게 된다.

30년 동안 깊은 산 속에서 천마를 재배하며 천마의 약성을 연구한 한 노인은 천마는 지금까지 알려진 약성 말고도 청혈(淸血), 해독(解毒), 소염(消炎), 항암 효과가 뛰어나서 사람의 체질에 따라 제대로 쓰기만 하면 거의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한다.

■ 천마의 약성과 효능의 요약
□ 피를 맑게 하고, 어혈을 없애며, 담과 습을 제거하고, 염증을 삭이고, 진액을 늘리며, 피 나는 것을 멎게 하며, 설사를 멈추고, 독을 풀어 주며, 갖가지 약성을 중화하고 완화하며, 아픔을 멎게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는 등의 작용이 있다.
□ 천마는 다음과 같은 갖가지 질병에 두루 효험이 있다.
고혈압, 저혈압, 중풍, 반신불수, 뇌일혈, 타박상, 뇌진탕, 당뇨병, 간경화, 가스 중독, 농약 중독, 백혈병, 혈우병, 어지럼증, 두통, 귀울림, 차멀미와 배멀미, 혈액순환이 잘 안 될 때, 크게 잘 놀라는 병, 하반신이 마비, 목멀미와 어깨, 잔등이 당기고 뻣뻣한데, 지방간, 간염, 어깨가 차가운 증상, 팔다리에 열이 날 때, 손발이 뒤틀리는 데, 심장병, 어린이 간질, 감기몸살 관절통, 좌골신경통, 손발이 뻔데, 위장병, 장출혈, 어혈, 뱃속에 딱딱한 덩어리가 있는데, 음부 가려움증, 습진 무좀, 피오줌은 누는데, 끓는 물이나 불에 덴데, 쇠독, 갖가지 암, 동상, 다형성 홍반, 마른버짐, 변비, 설사, 곽란, 후두염, 몸이 붓는 데 오로칠상 등이다.
이 외에도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고 장부를 굳세게 하며 오래 먹으면 기운을 돋우고 체력을 늘리는 등의 효과를 일일이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천마는 뇌출혈 곧 중풍으로 쓰러졌을 때 천마를 먹이면 신통하다고 할 만큼 효험이 있다.
실제로 중풍으로 쓰러져 의식이 없는 환자나 교통사고로 뇌를 심하게 다쳐 이미 병원에서 죽은 것으로 의사의 진단이 난 환자에게 천마를 먹였더니 아무 후유증이 없이 되살아났다는 거짓말 같은 사례가 여럿 있다.
식중독이나 농약중독에도 효과가 뛰어나다. 농약을 치다가 중독되어 쓰러졌거나 농약을 마셔 중독된 데에는 천마를 복용하며, 대게 2~3일이면 깨끗하게 회복된다.
뇌출혈로 뇌수술을 해서 정신이 이상이 되었거나 간질이 온 사람, 척추수술로 몸이 마비된 사람, 교통사고로 몸이 마비된 사람, 중풍 후유증으로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하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 등도 천마를 오래 먹으면 완치가 가능하다.
〈상기 내용은 한글 동의보감에서 발췌함〉

목회자분들께는 섬김과 봉사의 마음을 담아
특별선물을 드립니다.

기존가격 (198,000원)에 제품은 기존(1x1=2박스) x 추가 1박스
총 3박스(180포)를 보내 드립니다.

홍천마진액골드는 특산품 3년산으로만
추출제조하여 제품이 아주 탁월합니다.

1SET 가격으로 3SET 드립니다!

1SET 80m 60팩 + 1SET 80m 60팩 + 1SET 80m 60팩 = 3SET 80m 180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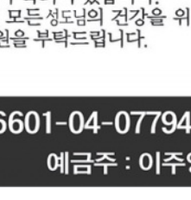
198,000 + 198,000 + 198,000 = ~~594,000~~

공급가액 = ₩198,000 (부가세 별도)

유통마진 확 줄여 소비자에게 돌려드리는 직거래마케팅

우울증, 어지럼증, 만성두통, 귀속의 잡소리 등
이것 저것 다해봐도 아무소용 없으신 분께 혈액순환에 탁월한
홍천마를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시민교회(합동)
이헌호 시무장로

홍천마를 생산하는 라파식품이 하나님의 은혜로 17주년을 맞이 하였습니다. 모두 고객님들의 기도와 성원덕분입니다. 라파식품은 부산 본사의 제조생산 공장을 신설 확장하고, 오직 국내 3년산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저온 40시간 추출제조 공법으로 신제품 '홍천마진액골드'를 제조 공급하고 있습니다.
고객님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종전 제품보다 몇 배나 월등한 품질의 '홍천마 진액골드'를 기존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그동안 홍천마(진액골드)를 복용하신 교역자님, 장로님, 성도님, 수많은 고객님들께서 질병이 치유되고 건강이 회복되어 새로운 삶을 사신다는 체험사례 소식을 접할 때마다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용하고 싶어도 재정적으로 어려우신 교역자님과 장로님 성도들의 간청에 의하여 봉사하는 마음으로 최저의 가격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제품유통 비용을 모두 없애고 제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신소비자 마케팅으로써 1set(한 달분 60포)를 구입하시면 2set를 선물로 더 드려서 총 3set(3개월분 180포)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가격은 음료수 값이며 결과는 감탄의 찬사입니다.
특별히 은퇴목사님, 장로님께는 최고의 예우를 하고자 합니다. 천하를 얻고도 건강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식품법에 의하여 효능에 대하여 말할 수 없음이 아쉽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장로님,성도님! 홍천마를 통하여 더욱 건강을 지키시고 혹시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으시다면 "홍천마"를 복용해 보십시오.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시고 기쁘고 즐거운 체험을 하실겁니다. 사람은 혈액순환만 잘되면 무병장수한답니다. 식품으로써는 홍천마가 순환기에 최고의 건강식품 입니다.
어느 질병이든 믿으시고 복용해 보십시오. 놀라운 체험과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한글 동의보감편에 보시면 특히 각종 암 · 중풍 · 고혈압 · 당뇨 · 만성두통 · 우울증 · 순환기질환에 홍천마가 탁월하다고 극찬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라파식품은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으며 모든 성도님의 건강을 위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많은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BTN 홍천마 라파식품 B.T.N
www.hhma.co.kr
부산 연제구 거제동602-7
TEL:051)853-2678
고 / 객 / 센 / 터
080-080-2678
국민은행 116601-04-077942
예금주 : 이주영

송태흔 칼럼

# ‘무늬만 성도’인 사람들의 성경적 ‘모델’

##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

송태흔 목사

하나님의 사람, 이삭은 40세의 늦은 나이에 밧단아람에 살고 있던 나홀 족속 리브가와 어렵게 만나 결혼했다. 아내가 아무런 이유 없이 20년 동안이나 아이를 낳지 못하자, 출산을 위해 날마다 기도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한 이스라엘의 2대 족장 이삭의 기도에 응답해 결혼 20년만에 쌍둥이 아들을 허락했다. 이삭의 부부는 장자의 이름을 ‘에서’라 지었다. 살결이 유난히 붉고(에돔), 온 몸이 털투성이(세일)여서 ‘에돔’과 ‘털투성이’의 복합어인 ‘에서(Esau)’로 작명했다.

형 에서는 조용한 성격의 동생 야곱과는 달리 성격이 매우 급하고 거칠 뿐만 아니라 생각이 얕은 인물이었다. 부모의 성품과 다르게 장자 에서는 폭력적이었다. 들판에 나가 짐승을 사냥하여 요리하는 것을 취미로 삼았던 야성적 인물이었다. 또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세속적 인물이었다. 하나님 주신 장자권을 경홀히 여겨,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긴 무지한 불신자였다. 에서는 청년이 돼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이삭을 통해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으려 했다. 그러나 동생인 야곱에게 장자권과 축복의 기회를 모두 빼앗기고, 분통의 눈물을 흘려야 했다.

하나님이 마음 속에 없어 완전히 삐뚤어진 세상 사람 에서는 40세가 되자 자신의 마음에 드는 여인들을 있는 대로 골라서 결혼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 헷 족속의 딸 유딧과 바스맛을 외모만 보고 아내로 취했다. 아브라함과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인 마할랏을 아내로 선택해 부모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도 했다. 외모가 아름다운 이방 출신 헷 족속 여인 아다와 히위 출신 오홀리마를 후처로 삼았다. 정력이 넘친 에서의 가정은 더러운 이방인의 문화가 지배했다. 여호와 하나님 및 아브라함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불신자의 가정으로 변모했다.

한편 형제간 불화로 동생 야곱이 밧단아람에 있는 외가를 향해 급히 도주했다. 들사람 에서는 세일 지역을 무대로 에돔이라는 민족 국가(에돔 공동체)를 세웠다. 선지자 이삭의 예언대로 에서는 무력과 폭력을 중심으로 인간 제국을 탄생시켰다. 폭력을 통해 세일 주위의 땅과 족속들을 정복했으며, 일인 독재체재를 확대해 나갔다. 하나님의 생각과는 관계 없는 인간들의 세속적 모임을 성취해 나갔다. 권위의 상징인 인간 바벨탑을 높게 쌓아 공포정치를 시행했다. 악한 제국의 군주로 에서를 허용하므로, 사악한 나라의 영원한 표본이 되게 했다.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 민족이 됐으며, 사해 남쪽과 아카바만의 에시온과 게벨 사이의 아라바 지역에 모여 살게 됐다. 야곱의 후손들이 세운 이스라엘과 늘 적대 관계를 가졌다. 통일 이스라엘의 2대 왕 다윗 때에 이르러 에돔 족속이 일시적으로 정복됐다. 그러나 남쪽 유다의 5대 왕 여호람 때 에돔 족속들이 반란을 일으켜, 이스라엘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났다. 에돔 족속들은 기회만 있으면 형제국인 이스라엘을 비겁하게 후미에서 괴롭혔고, 여호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했다.

이삭의 장남이요 야곱의 형 에서는 매우 망령된 사람이었다. ‘망령’ 이라는 단어는 ‘성전 밖’이라는 의미를 지닌 라틴어에서 유래한다. 그것은 ‘세속적인’ 또는 ‘누구에게나, 무엇에나 개방적인’ 이라는 뜻을 지닌다. 아무나 들어올 수 있도록 울타리나 경계가 없음을 의미한다. 헬라어 신약성경은 ‘망령’ 이라는 단어를 ‘문지방’과 연관해 기록한다. 망령된 사람은 누구나 쉽게 넘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문지방과 같다는 것이다.

에서는 마음 속에 거룩한 것이라고는 조금도 없었다. 말과 행동은 제법 그럴 듯 했지만, 마음 속에는 세속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자신이 원하면 성경도, 하나님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그런 망령된 에서를 지명해 교회가 본받을 수 없는 사람, 즉 허용적 작정의 대상이 되게 했다.

오늘날 교회 속에도 허용적 작정의 대상으로 보이는 소위 ‘무늬만 성도’가 다수 있다. 친교 모임이나 야외 행사는 멋지게 주도하지만, 마음 속에는 성경적인 거룩성이 전혀 없는 성도들이 허용적 작정의 대상이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괴롭히고, 사역을 방해해 개인의 사욕을 채우며 권위를 높이려는 사람들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와 같은 망령된 성도들을 교회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한다. 망령된 자들이 교회 속에 있는 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더러워지기 때문이다. 에서와 같은 망령된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골머리를 앓게 되기 때문이다.

# 영적 고향을 소유한 즐거움과 행복

**권혁승 박사의**
**날마다 말씀따라 새롭게(54)**

권혁승 박사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브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벧엘에 이르며 벧엘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창 13:1-4)

위기를 겪은 후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은 애굽을 떠나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그는 애굽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네게브(남방) 지역을 거쳐 곧바로 벧엘로 직행하였다.

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벧엘로 직행하였을까? 벧엘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하나님께 처음 단을 쌓았던, 영적 고향이었기 때문이다.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실향민이었다. 그런 그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음으로 새로운 영적 고향을 만든 것이다. 고향이란 생명이 부모와의 만남 속에서 탄생되고 부모의 보호 아래 성장한 곳이다. 고향은 생명의 탄생과 성장으로 인하여 의미화된 땅을 말한다. 그런 점에서 벧엘은 아브라함이 새로운 삶과 신앙을 출발하였던 영적 고향이다.

고향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돌아가고 싶은, 귀소본능의 지향점이다. 연어가 태평양 바다를 가로질러 자신이 태어난 곳을 찾아오는 것이나, 명절에 극심한 교통체증에도 불구하고 귀성인파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모두 귀소본능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실패를 경험한 후 벧엘로 직행한 것은 영적 고향의 품으로 돌아오는 귀향의 정겨운 모습이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고향이 있으면 즐거움과 행복의 여유를 누릴 수 있다. 고향의 따뜻한 추억이 고단한 삶에 말 없는 위로를 안겨 주기 때문이다. 분단의 아픔을 안고 남한에 내려와 살고 있는 실향민들의 가슴 한복판에는,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는 한과 슬픔이 자리하고 있다. 그만큼 고향 상실의 상처가 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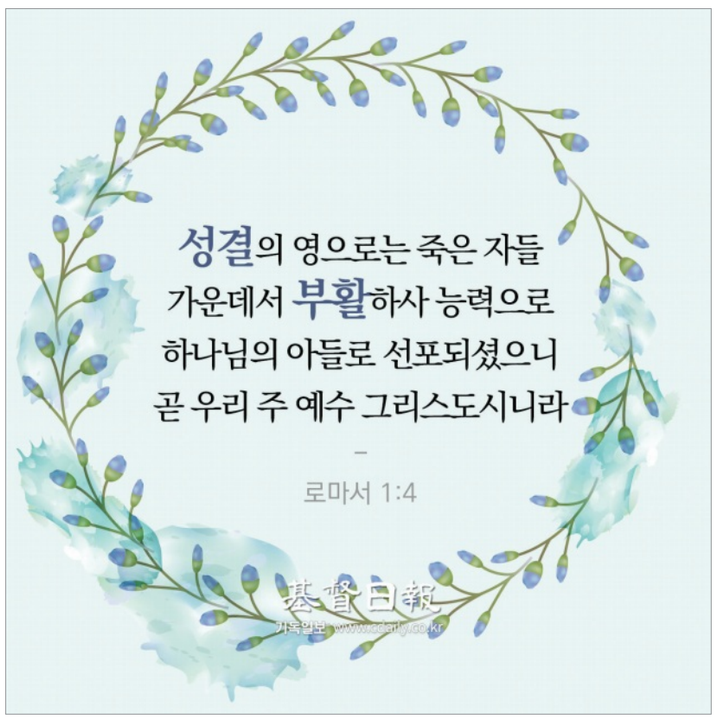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유랑생활을 하며 지내던 유대인들, 그들의 삶과 역사는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런 암울한 역사 속에서 그들을 지탱시켜 준 힘은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 곧 포기하지 않은 고향에 대한 꿈이었다. 가나안은 그들에게 민족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워주면서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을 안겨준 영적 고향이었다. 그래서 명절 때마다 모이면 귀향을 꿈꾸며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민족의 회복을 기도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유월절 마지막 순서의 기도인데, 그 내용은 ‘이 기도를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드리게 하여 주소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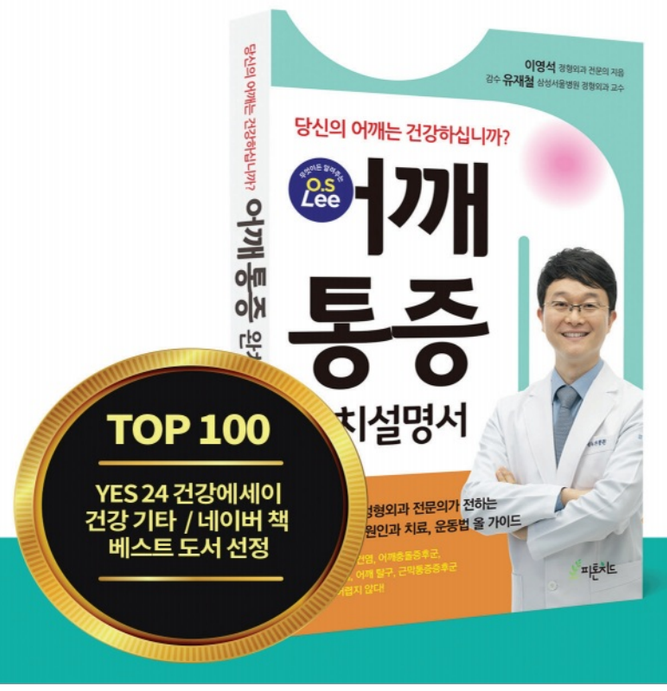
우리들의 궁극적인 고향은 하나님나라이다. 이 땅에서 나그네의 인생 여정을 마치면, 주님과 함께 안식할 영원한 고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아브라함은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는 장막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히 11:10)을 바라보았다. 사도 바울 역시 영광과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그 날을 소망하며 믿음을 굳게 지켰다(딤후 4:8).

비록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하늘나라이지만, 지금 여기에도 우리의 영적 고향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던 곳,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과 소명을 경험한 곳, 간절한 기도와 그 기도의 응답이 주어진 곳, 그리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곳, 그런 특별한 의미가 간직된 곳이 우리의 영적 고향이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한 다메섹 도상이 바로 그런 곳이다. 세 차례의 전도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유대인 대중들 앞에서 증언할 마지막 기회를 갖게 되었을 때, 바울은 다른 말 하지 않고 25년 전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자신의 회심 경험을 상세하게 간증하였다(행 22:2-21). 그렇듯이 영적 고향은 아무리 오래 전의 것이라도 마지막까지 생생하게 살아있어 전체를 이끌어가는 삶의 원동력이다.

하나님께 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교회 역시 영적 고향과 같은 곳이다. 생명이 탄생하여 성장한 곳이 우리의 고향인 것처럼, 교회도 중생한 생명이 말씀과 교제를 통하여 성장하는 거룩한 곳이다. 영적 고향을 소유한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곳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성장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혜 한 장**




통증없이 건강한 어깨로 100세 살기!
오십견·석회성건염·어깨충돌증후군·회전근개 파열·어깨 탈구·근막통증 증후군 완전 정복 어렵지 않다!


어깨통증 완치설명서
은평구 성누가병원 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영석 전문의가 전하는
어깨통증의 원인과 치료, 운동법 올 가이드
SAMSUNG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유재철 교수 감수
YES24·교보문고·영풍문고·주요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피톤치드

BIBLE PORTAL 오늘의 말씀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 요한복음 14장 17절 개역한글



장편소설

# 바다는 알고 있다(37)

금희가 한국 민속예술제의 표를 보여주었다.

그이가 출연해. 봉산탈춤을 춘대.

신애는 금희가 이신중씨를 그이라 호칭하는 게 놀라웠으나 뭐라고 하진 않았다. 분홍 옷의 땅딸막한 창녀의 팔을 끼고 누추한 골목으로 돌아가던 헐렁한 그의 뒷모습, 신애는 침묵했다.

오늘 밤 7시야. 가자.

금희는 보라색 플레어스커트 위에 어깨에 구름 같은 주름이 진 우아한 블라우스 차림이었다. 새로 감아 빗은 머리는 여전히 양 귀를 덮어내려 한 올도 흐트러짐 없이 목뒤에 보라색 리본으로 얌전히 묶여있다. 처녀다운 애틋함과 싱그러운 향취가 담뿍 풍기는 자태였다. 반면에, 신애는 꽁지 빠진 새와 같은 더벅머리에 검정 자라목 스웨터와 검정 바지 차림이었다. 녹색 운동화까지 신어서 탁구라도 치러 가는 모양새였다. 묘하게도 오늘따라 둘은 더 상반되는 앙상블이었다.

발갛게 익은 사과색 볼을 한 금희와 창백한 신애.

둘은 '쎄시봉'에서 시간을 보내고 가락국수로 저녁을 먹은 후, 이화여고 강당으로 갔다. 신기하게도 관람석의 삼분의 이 이상을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었다.

승무, 칼춤, 장고 춤, 부채춤에 이어 봉산탈춤의 순서가 되었다. 중의 타락상을 풍자한 일종의 가면극으로 봉산탈춤 중에서 팔묵승과장(八墨僧科場)중의 먹승(墨僧)의 가락을 발췌한 것이었다.

먹승의 탈춤을 추는 이신중씨의 춤은 매우 활기찼다. 시대상을 꼬집은 해학으로 갈채의 파도를 이루었다. 열렬히 박수를 치고 난 금희가 신애의 손을 꼭 쥐었다.

신애는 이신중씨의 탈춤에서보다 꽹과리를 치며 열두 상모를 돌리는 농악에 정이 가고, 줄타기하는 노인에게서 짙은 애달픔의 음영을 느꼈다. 꼭두각시놀음(인형극) 또한 울적한 신애의 마음을 틔워 주었다.

공연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 둘을 이신중씨가 근처의 대폿집으로 데려갔다. 보기 드물게 유쾌한 음성으로 이신중씨가 드럼통에 둘러앉자마자 이것저것 안주를 청하였다. 아련한 눈빛으로 이신중씨를 바라보는 금희를 유심히 살피던 신애는 확연히 구분 지울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이 도깨비 같은 이신중씨에게 일고 있는 걸 느끼고 당화했다.

드럼통 위에 푸짐한 술상이 차려졌다. 무섭게 매워 혀를 댈 수 없는 낙지볶음이랑, 파전, 부침개, 눈을 뜰 수 없도록 연기를 뿜는 구운 소의 내장은 신애로선 먹을 도리가 없는 음식이었다. 파전 부침개조차도 독한 고추를 넣은 탓에 신애의 혀는 반기를 들었다. 찌그러진 양은 주전자의 막걸리는 시금털털해서 두 모금째엔 넘길 수가 없었다. 금희는 이신중씨가 권하는 대로 받아먹으며 취한 목소리로 신애에게 속삭였다.

우울증 해소에 매운 음식이 특효래. 신애야, 어서 먹어 봐.

그러셨습니까, 저러셨습니까, 하는 칼로 저미는 듯한 존칭어를 구사하는 남자, 남몰래 창녀에게 가고 낮엔 점잔빼는 헐렁헐렁한 남자, 아저씨하고 부르면 딱 어울리는 남자---.

신애는 평상시의 흐린 회색빛이 아닌 붉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는 금희에게 화장실에 좀, 하고는 미친 사람들이 마구 떠들어대는 것 같은 곳을 빠져나왔다.

색조 깊은 하늘을 머리에 이고 그녀는 걷는다.

보라색 비단에 금빛 수를 놓은 듯, 행복한 나라의 행복한 공주의 드레스라도 지으면 좋을 듯싶은, 달무리 진 밤하늘을 아득히 바라보며 신애는 쓸쓸히 집으로 향해 가고 있었다.

병원에서 다음 진료 때 엑스레이를 다시 찍어보자고 하여 신애는 막막한 눈을 깜박이었다. 아까부터 금희는 입을 쑥 내밀고 있었다.

네가 정설리 집을 나온 건 열 번 잘한 일이지만, 그 탈춤 추는 헐렁한 남자 때문이라면, 너야말로 잘 생각해봐야 해,

신애는 말했다.

하지만 분홍 옷의 창녀 이야기는 생략하였다.

이신중씨의 수입이란 건 몇 안 되는 연구생에게서 받는 게 고작이라 직업을 구해야겠다는 금희의 말에 신애는 벌떡 일어나고 말았다. 함께 굶어도 어쩔 수 없을 것 같다는 금희의 단호한 결심에 신애는 이신중씨가 한층 역겹게 느껴졌던 것이다.

금희가 이신중씨와 합치고, 고립감에 빠진 신애는 서점과 극장을 순례하였다. 명동 서점에서 세계 전후 문학전집을 사다 밤새워 읽고, 프랑스의 여자 신인 작가의 소설과 일본의 여자 신인의 만가(輓歌)랑 신간 서적을 한 아름 사 왔다. 히키코모리가 된 신애는 어느 날 어슬렁어슬렁 나와 국도극장에서 〈스타 탄생〉을 보았다. 제임스 메이슨도 쥬디 갸란트도 굉장한 배우였다.

매일 그녀는 검정 물감이 흩뿌려진 것 같은 나날들과 맞서 있었다. 수면 부족으로 다래끼 돋은 눈으로 폐에 공동이 생긴 허약한 건강과 맞선 채.

신애는 아버지와 동의어로 여기는, 영국 특파원으로 나가신 고진의 국장의 귀국 소식을 알기 위해 신문사에 들린 길에 명동까지 걸었다. 아직 저녁 시간이 을러서인지 피카소의 그림을 닮은 바의 분위기는 한적하였다.

주인 잃은 강아지처럼 절박하던 신애의 마음은 마티니의 솔잎 향에 명주실같이 올올이 풀리었다. 경쾌한 피아노 연주가 시작되어 신애는 피아노 쪽으로 고갤 돌리었다.

머리채를 보라색 리본으로 묶은 저 피아노 치는 여자는, 흐르는 구름같이 하르르 한 보라색 블라우스의 여자는 금희가 분명했다. 바에서 '체리 핑크 맘보'를 치고 있는 금희는 사랑을 위하여 깨끗한 얼굴에 분 칠을 했을까---?

'엘리제를 위하여'를 열중하여 치던 금희의 사랑은---? 눈시울이 붉어진 신애는 그곳을 나오고 말았다.

휘황한 거리를 뛰며 신애는 환멸과 타는 울분을 깨물고 금희의 이름을 부른다. 향락을 유혹하는 곳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는 금희의 사랑은 내일이 있겠는가.

상점 거리가 휙휙 흐른다. 화려한 양장점 쇼윈도엔 전후의 서양 마네킹들이 멋진 의상을 자랑하며 스쳐 간다. 한 겹 뒷골목의 남루한 삶과 평행으로 존재하고 있는 도심의 휘황한 밤도 흐른다.

기침을 토하며 골목길 가로등 밑에 웅크리고 앉은 신애의 손에 피가 묻어났다. 몰캉몰캉한 피가 넘어온다. 피식 웃어본다.

손바닥의 뭉글한 각혈을 응시한 그녀는 잠깐 고개 들어 검은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 쓰러졌다. 누군가 서둘러 그녀를 택시에 싣고 대학병원으로 달려갔다.

마침내 신애가 6개월 동안을 입원해 있던 요양원에서 나오는 날이었다. 환자복을 벗은 신애의 눈에 사뭇 세상의 빛이 달리 보이는 건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매일, 뒷산의 솔바람 소리와 고개 들면 시야 가득 들어오는 여러 표정의 바다와 그 바다를 나는 바닷새들의 비상은 신애의 꿈을 하얗게 표백시키는 것 같았었다. 자주 그녀는 노인처럼 현실과 미래에의 혼란에 빠지곤 하였었다. 자기 생명과 연결 돼 있는 건강에 대해서조차 불확실했으므로. <계속>

◈ 김녕희 작가

〈현대문학〉으로 등단, 한국소설문학상·조연현문학상·만우문학상·PEN문학상 등 수상, 단편소설집 〈고독한 축제〉 등, 장편소설 〈에덴의 강〉 외 다수

은혜의 샘물

## 본받는 삶, 본이 되는 삶

**고린도전서 10:14 11:1**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전 11:1)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요 16:6)"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삶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본을 삼아야 할 대상이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극적으로 주님을 만난 이후 철저히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노라고 고백하면서, 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철저히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었습니다. 기도가 있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고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 10:31)"고 말합니다. 그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전 10:32~33)"고 권고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유익이 되는 삶입니다. 은혜를 끼치는 삶입니다. 영광을 나타내는 삶인 것입니다.

둘째는, 믿는 자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마 5:13~14)"고 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빛과 소금 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삶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6)"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는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하고, 나아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 가운데서 본이 되며,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창골산 봉목사

한국도로공사 안전동화 시리즈 | 해와 달 편

위급한 순간의 생명줄

안전띠

안전띠 미착용 시 사망률은 4배 이상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띠,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ex 한국도로공사

# 드럼과 현대음악

김현종

우리는 왜 드럼이 그토록 원시적인 악기이면서도 가장 현대적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드럼을 연주하시는 분들이 피아노나 기타와 같은 다른 악기들을 연주하면 드럼 연주가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악기 연주자분들도 드럼을 연주하는 방법을 배우고 드럼 연주를 조금 더 이해한다면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바로 위와 같은 이유 때문일 겁니다.

다시 말하면 드럼 연주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리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음악에 대한 현대적인 새로운 접근법을 이해하는 것이 됩니다. 모두들 잘 아시겠지만, 리듬은 어떤 악기에서나 배울 수 있는 음악의 3요소 중 하나입니다. 굳이 드럼 연주를 통해서만 리듬을 이해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러나 현대의 음악은 드럼이 기초가 되는 리듬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드럼이 연주하는 리듬을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현대 대중음악에서 드럼의 비중이 높아진 것은 재즈와 로큰롤의 영향이 지배적입니다. 재즈가 태동하며 세트드럼이 발명되었다고 말씀드렸지만, 베니 굿맨(Benny Goodman) 빅밴드의 진 크루파(Gene Krupa)가 최초의 드럼 스타가 된 이후로 버디 리치(Buddy Rich)와 맥스 로치(Max Roach)와 같은 재즈드러머와 존 본햄(John Bonham)과 닐 퍼트(Neil Peart)와 같은 록 드러머들이 탄생하며 드럼세트는 급속도로 진화하였으며 현대음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재즈를 현대음악이라고 말하면 스트라빈스키(Igor Stravinsky)와 쇤베르크(Arnold Schoenberg), 버르토크(Bela Bartok)와 같은 작곡가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할 분들도 계시겠지만, 미국의 작곡가이자 지휘자인 번스타인(Leonard Bernstein)은 공공연히 재즈를 예술로 극찬하고 현대음악의 새롭고도 흥미로운 미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재즈와 로큰롤을 현대음악으로 규정하고 극찬하는 것을 미안해 할 필요는 없겠지요. 번스타인은 재즈에서의 핵심적인 요소로 블루노트(blue note)도 언급하였지만 좀 더 근원적인 특징으로 그 리듬을 꼽았습니다.

당연히 그 역할은 재즈드럼에 의해 확립됩니다. 이것이 1950년대에 이르러 로큰롤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이제는 어느 현대음악에서도 드럼이 가지고 있는 비트감과 구성을 배제하고 생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배음악에 이러한 현대음악이 도입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겠지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재즈는 아도르노에 의해 "허리 아랫도리 음악"이라고까지 얘기되었으며 록음악은 사탄의 음악이라고 종종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재즈나 록음악이 클래식 음악에 비해서 그렇게 오인 받을 여지가 많은 것은 사실이며 또 상당부분 그런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 음악 전체를 그렇게 왜곡하여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음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며 왜 그런 음악이 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지를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위대한 클래식 음악가들이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사실이지만, 거기에서도 인간의 교만함이 넘치는 음악이 존재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약한 자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미국사회의 가장 약한 자들이었던 흑인 노예들의 블루스를 재즈로 발전시키시고 로큰롤이 되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크신 하나님의 뜻을 전부 알 수는 없으나 현대적인 찬양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은혜 받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런 음악을 사탄의 음악이라고 전부 몰아붙여서는 안 되는 것이겠지요. 이것은 마치 험상 굳은 인상을 가진 사람을 모두 범죄인 취급하는 것과 비슷한 잘못일 겁니다.

문제는 그러한 재즈와 로큰롤의 험상 굳은 인상을 만든 주역이 바로 제가 가장 현대적인 악기라고 얘기한 드럼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 김현종
서강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Musicians Institute에서 드럼과 레코딩을 전공하였다. 상명대에서 컴퓨터음악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성균관대학교에서 동양철학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귀국 후 96년 서울재즈아카데미를 처음 만드는데 일조하였으며, 영화 정사, 약속, 미술관 옆 동물원 등의 OST 드럼을 연주하였다. 퓨전밴드 RTZ, 이정선, 한상원&정원영, 이현우 등의 공연 세션을 하였고, 오리엔탈 익스프레스에서 드럼 연주를 하고 있다. 현재 여주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는 Rock Drums(2003,예솔)가 있다.

# 제9강 템포와 리듬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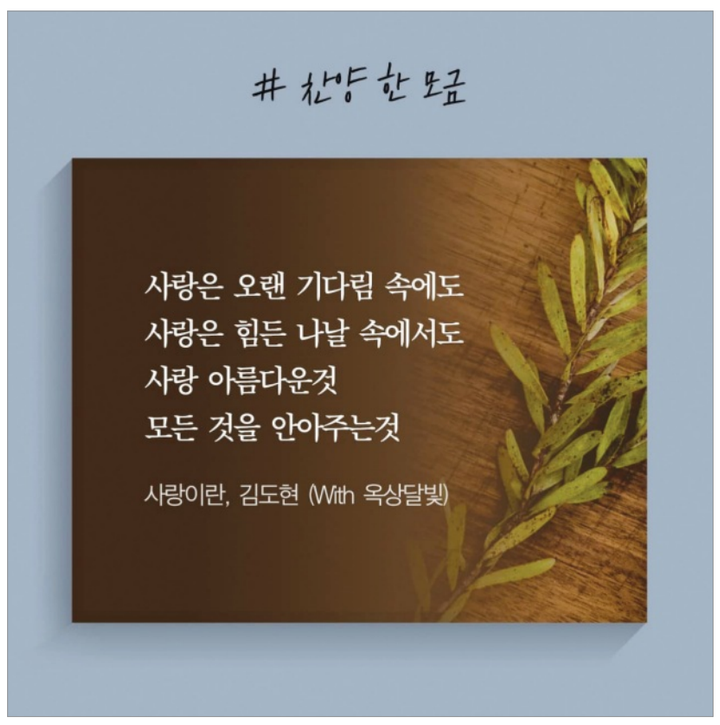
박동원

많은 분들이 템포와 리듬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템포는 곡의 빠르기, 즉 마디당 연주 속도입니다. 리듬은 곡의 박자 분할과 음표의 길이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느린데도 리듬감 있고 박진감 있는 곡이 있고, 빠른데도 느긋하고 부드러운 곡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귀로 듣기에 경쾌하고 신나는(?) 곡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멜로디의 리듬이 경쾌한 경우




2. 반주의 리듬이 경쾌한 경우

멜로디라는 것의 개념은 각 마디 안에서 그 마디에 균등하게 할당된 단위 박을 작곡자의 의도대로 불규칙한 리듬으로 음정들을 연결한 것입니다. 따라서 멜로디의 리듬은 곡 전체의 템포에 크게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멜로디의 리듬과 곡 전체의 템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인도할 때 느린 곡을 부르다가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편입니다. 연주자들은 계속 같은 템포와 느낌으로 연주를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빠른 곡을 부르다가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어질 때라면 계속 빠르고 힘찬 연주를 해서는 기도에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의 해결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곡의 템포를 점점 느리게 해서 끝낸 뒤 느린 연주로 전환하여 기도를 인도함

2. 곡의 템포는 그대로 놔두고 연주 리듬만 느린 느낌으로 전환하여 기도를 인도함

곡의 템포를 그대로 놔둔 채 연주 리듬만 느리게 한다는 것은 4/4박자 곡을 2/2박자 느낌으로 연주하는 것이 대표적이며, 멜로디를 연주하는 속도는 그대로인데 반주의 느낌만 반으로 느려진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주하려면

강박(홀수 박)과 약박(짝수 박) 간격을 두 배로 늘리면 되며 이것을 음악용어로 'half-time feel'이라고 합니다.

만약, 무반주로 멜로디만 연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6분음표로 잘게 쪼개어진 멜로디는 처음에는 빠른 곡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주가 나오면 사실은 템포가 느린 곡에 실린 리듬감 있는 멜로디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4분음표나 2분음표 등의 긴 음표로 된 멜로디는 무반주로 들으면 음과 음의 간격이 길기 때문에 자칫 느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주를 들어보면 템포가 빠른 곡에 실린 굵은 리듬의 멜로디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템포의 곡이라 할지라도 멜로디나 반주의 리듬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으로 들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리믹스(remix)' 곡을 만들 때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원곡이 느린 발라드인데도 반주의 비트를 경쾌하게 바꾸어서 마치 2배속 느낌으로 빨라진 듯하게 해서 빠른 곡처럼 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기억하십시오. 템포가 빨라도 차분한 느낌으로 연주할 수 있으며 템포가 느려도 경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곡 전체의 템포와 연주하는 리듬, 이 두 가지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는 하지만 독립된 개념입니다.

◈ 박동원
서울대학교에서 식품공학을 전공했으나 1986년부터 예배곡과 CCM을 작곡하기 시작하여 작곡사역을 중심으로 예배 인도, 음악 이론 및 악기 강의, 다양한 칼럼과 음반 리뷰 등으로 사역 중이다. 아내인 정선원 찬양사와 함께 공동으로 1999년부터 Donkey Music 사이트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현재 원당서신교회 찬양사로 사역하고 있다.

# 다윗왕의 신약의 예배 5

김영국 목사

시온은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이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교회는 그러므로 시온의 표현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한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라(시 132:13,14)."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히 12:22,23)."

사도바울은 교회의 기초를 말 할 때에 예수그리스도가 시온에 놓인 모퉁이 돌이었다고 하였다: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롬 9:33)."

새 언약의 피도 또한 시온과 연계된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 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히 12:24)."

다윗은 그의 시 22편에서 갈보리를 예언하였다. 그리고 교회는 그 재 생산적 사역을 수여 받았다.

# 화성 제암리사건 최초 고증, 상영되지 못한 영화 '두렁바위'

## 1971년부터 2년 걸쳐 제작된 세미독립영화

#1 두렁마을 천도교신자들과 기독교 신자들이 천도교신자 안종옥을 대표로 하는 구국동지회를 결성, 손병희 선생이 주도하는 구국운동에 동참할 것을 결의한다. 천도교인인 김덕영이 연락대표를 맡아 손병희 선생을 찾아간다.

#2 김덕영이 가지고 있는 밀서를 빼앗으려던 주재소 조순사를 김덕영의 동지 안숙자가 끌어안고 바위 아래로 굴러 떨어진다. 조순사는 다친 몸을 이끌고 두렁마을을 빠져나간다. 일본헌병대원 2명이 구국동지회의 비밀회합 현장을 덮쳤지만 오히려 제압당한다. 두렁마을 구국동지회는 3월 28일 발안장에서 만세시위를 벌인다.

#3 4월 15일 수원지구 헌병들이 두렁마을로 출동, 제암리 교회에 마을사람들을 가두고 밖에서 못 질을 한 후 교회에 불을 지른다. 빠져나오려는 사람들, 도망가는 사람들을 모두 살해한다. 불에 타는 교회 앞에 기독교 선교사 스코필드가 뒤늦게 도착, 처참한 현장의 사진을 찍는다.

영화 '두렁바위'의 내용이다.

영화 '두렁바위'는 제암리사건을 모티브로 만든 56분 48초 분량의 독립영화로, 제암리사건에 대한 최초의 고증이다. 제암리사건으로 숨진 애국지사 안종후 씨의 아들 동순 씨가 1971년부터 2년에 걸쳐 제작했다. 마을 사람들도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암리 순국선열에 대한 유물발굴 등 현장조사가 1982년이 돼서야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10년 정도 앞선 셈이다.

영화 제작 당시에는 제암리 사건에 대한 역사적 고증이 없었던 만큼 동순 씨는 희생자 가족으로서 전해들은 제암리 사건을 재해석하고, 허구를 가미해 세미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영화를 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영화를 이끌어가는 천도교신자 김덕영과 기독교신자 안숙자를 연인 또는 동지의 관계로 설정한 것 외에는 고증된 역사와 큰 차이가 없다. 영화에서 동네 사람들을 약탈하는 일본인 '사사키'는 발안지역에서 미곡상을 운영하고, 일본군을 제암리로 안내한 일본인 사사카(佐板)라는 인물을 영화적으로

영화 '두렁바위' 일부 캡쳐 ⓒ영상 캡쳐

차용했고, 동네사람들을 감시하고 고문하는 '조순사' 역시 실제로 사사카와 함께 일본군의 길 안내를 맡았던 화성 출신의 순사보 조희창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두렁바위는 두렁바위골로 불리던 제암리 마을에 있는 커다란 바위다. 영화에서는 김덕영과 안숙자의 대화장소로, 김덕영에게서 밀서를 뺏으려는 조순사를 안숙자가 끌어안고 굴러 떨어지는 장소로 등장한다.

제암리사건은 일본군이 들불처럼 일어나는 독립운동을 막기 위해 화성시 제암리교회에서 벌인 만행이다. 1919년 4월 15일 일본군 육군 보병 79연대 소속 중위 아리타 도시오가 보병들을 이끌고 제암리로 들이닥친다. 16세 이상 남자 21명을 제암리교회에 모아놓고 교회 출입구와 창문을 봉쇄한 뒤, 일제 사격을 가하고 불을 질렀다. 교회 밖에 있는 여성 2명도 일본군의 총칼에 희생됐다. 일본군은 이후 고주리로 이동, 독립운동을 주도한 천도교 김흥렬 지사 일가 6명을 무참하게 학살했다.

화성시 이혜영 학예사는 "아리타에 대한 판결문으로 봤을 때 아리타는 화성 독립운동이 심상치 않아 보통의 방법으로는 진압이 어려울 거란 판단을 했다. 그래서 자신이 독립운동의 근거지로 알려진 제암리와 고주리 독립운동가들을 섬멸하지 않으면 불길처럼 번져가는 독립운동을 차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해 제암리·고주리 독립운동가들을 몰살시켰다"고 설명했다.

안타깝게도 '두렁바위'는 상영되지 못했다. 정확한 내막은 알려지지 않았다. 상영관 확보의 어려움, 자금부족, 역사적 고증의 미비 등 여러가지 이유가 전해진다. 2001년 제작자인 안동순 씨가 사망했다. 2008년 안동순 씨의 아들이자 안종후 지사의 손자인 안상호 씨가 보관중이던 필름을 화성시에 기증, 시가 이를 디지털화해 필름과 함께 보관하고 있다.

문영호 기자

# 히즈쇼, 기독교 어린이 콘텐츠 부문 최우수상 수상

기독교 어린이 콘텐츠를 제작하는 '히즈쇼'가 지난 2월 23일 미국 기독교 방송(NRB) 컨퍼런스에서 기독교 어린이 콘텐츠 부문(Children's People's Choice Award) 최우수상을 받았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Kids Beach Club'과 같은 쟁쟁한 경쟁 작품들 속에서 국내 기독교 교육 콘텐츠 최초로 선정되었기에 의미가 더욱 크다는 평가다. 히즈쇼의 성경 애니메이션은 국내 기독교 교육 콘텐츠 중 가장 큰 규모로 알려져 있다.

히즈쇼는 더 많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 23편을 모두 영어로 더빙을 했고 이번에 최우수 콘텐츠로 선정됐다.

또한, 히즈쇼는 컨퍼런스에서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영어 버전 가상현실(히즈쇼 VR) 어플리케이션(APP)과 증강현실(살아나는 성경박물관 AR) 어플리케이션을 선보여 많은 콘텐츠 관계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고 한다.

히즈쇼는 사랑의교회와 안산 동산교회를 비롯해 매년 50여 교회에서 실감 콘텐츠로 아이들을 교육했다. 그리고 이번 컨퍼런스에서 해외 아이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영어 버전 실감 콘텐츠를 업그레이드해 새롭게 소개했다고.

히즈쇼 관계자들이 닉 부이치치(맨 오른쪽) 씨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히즈쇼

히즈쇼는 "특별히 팔, 다리 없이 전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하는 '닉 부이치치' 씨를 비롯해 많은 콘텐츠 관계자들이 히즈쇼 콘텐츠를 극찬했고 다양한 협업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히즈쇼는 선교지의 복음 전도를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계속적으로 현지어로 더빙하려 하고 있다. 이미 현지 교회 및 여러 단체들과의 협업으로 몽골어 버전(몽골)과 힌디어 버전(인도) 히즈쇼 성경 애니메이션을 더빙했다.

김진영 기자

##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시간 | CTS 기독교TV | Good TV | CGN TV | CBS TV | Cchannel |
|---|---|---|---|---|---|---|
| 오전 | 5:00 | 00 CTS 새벽예배<br>40 힐링스토리<br>50 신앙에세이 | 40 힐링스토리<br>50 조건희 목사의 찬양과 나눔 | 00 생명의 삶<br>20 바이블 프로젝트 〈구약〉<br>3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 00 은혜의 시간<br>30 TV 설교/군포제일교회 권태진 목사 | 00 말씀 관통 이욥 목사의 성경 맥잡기<br>40 김병삼 목사의 매일만나 365 〈주님은 나의 최고봉〉 |
| | 6:00 | 00 생명의 말씀-오영택 목사(하늘비전교회)<br>30 생명의 말씀-황덕영 목사(새중앙교회)" | 00 365 새벽기도 생방송 2부<br>3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br>40 GOODTV 오늘의 기도<br>50 GOODTV 뉴스 | 10 [말씀] 김운성 목사(영락교회)<br>50 [말씀]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 00 TV 설교/[생명의 양식]삼송교회 김형석 목사<br>30 주만찬<br>50 잘 믿고 잘 사는 법 | 00 생방송 명성교회 새벽기도회<br>40 힐링토크 회복 플러스 |
| | 7:00 | 00 CTS 뉴스<br>20 주성민 목사의 주담길<br>35 생명의 말씀-박석진 목사(포항장성교회)<br>50 생명의 말씀-이창교 목사(창원상남교회) | 10 힐링스토리<br>20 말씀의 샘터 전주시온성교회 황세형 목사<br>50 비전설교 한성교회 도원욱 목사 | 30 레알캠핑<br>5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 1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br>30 TV 설교/주님기쁨의교회 김대조 목사 | 30 김학필 목사의 믿음의 사람들<br>4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신약<br>50 노변담화 |
| | 8:00 | 20 신앙에세이<br>30 [워킹온더바이블] 성지탐방<br>50 CTS아침찬양 | 20 세상을 깨우는 말씀 훈민복음<br>50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닙니까 - 백석대 장종현 총장 |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br>20 [말씀]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 | 20 CBS성서학당:갈릴리 산책 40강 - 조성욱 목사 "예수님의 레시피 | 00 성지가 좋다<br>30 비전메시지 - 은혜드림교회 최인선 목사 |
| | 9:00 | 00 내가 매일 기쁘게<br>50 말씀노트 | 40 다큐 더 로드 | 00 구약의 세계로 〈오십쇼〉<br>40 [말씀] 최성은 목사(지구촌교회) | 10 새롭게 하소서 | 00 성지가 좋다 - 국내편<br>3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br>40 나의 십자가 : 세계의 십자가가 나의 곁으로 |
| | 10:00 | 00 2023 다니엘 기도회<br>50 7000미라클 - 열방을 향하여" | 00 비전설교 선한목자교회 김다위 목사<br>30 여의도순복음교회 수요예배 생방송 이영훈 목사 | 20 [말씀] 임채영 목사(서부성결교회) | 00 오직 주님만 솔로<br>30 CBS 뉴스 | 00 성지가 좋다 C채널 창사 15주년 특집 |
| | 11:00 | 50 [생방송] CTS 뉴스 | 30 말씀의 샘터 화광교회 윤호균 목사 | 00 온누리교회 수요여성메시지<br>4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br>50 레알캠핑 | 00 올포원 | 00 소문난 성경교실<br>30 C채널 매거진 굿데이<br>50 비전메시지 - 대망교회 최대한 목사 |
| 오후 | 12:00 | 30 생명의 말씀-유영완 목사(하늘중앙교회) | 00 GOODTV 뉴스<br>20 힐링스토리<br>30 말씀의 샘터 광주청사교회 백윤영 목사 | 10 바이블 프로젝트 〈구약〉<br>20 [말씀] 권준 목사(시애틀형제교회) | 00 TV 설교/든든한교회 장향희 목사<br>30 TV 설교/포도나무교회 여주봉 목사 | 20 비전메시지 - 청운교회 이필산 목사<br>50 말씀의 창 - 마라나타교회 이영은 목사 |
| | 13:00 | 00 생명의 말씀-이승희 목사(대구반야월교회)<br>30 신앙에세이<br>4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br>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 00 말씀의 샘터 군포사랑의교회 성권용 목사<br>30 세상을 보는 창 오색오감 |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br>20 [말씀] 정현구 목사(서울영동교회) | 20 한소망교회 감사 부흥회 | 30 비전메시지 - 청주순복음교회 이동규 목사 |
| | 14:00 | 00 [생방송] 콜링갓<br>50 내가 매일 기쁘게 | 00 매일 주와 함께 |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br>20 레디온 | 00 TV 설교/양곡교회 지용수 목사<br>30 새롭게 하소서 | 00 장종현 목사의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닙니까<br>40 다시보는 성지가 좋다 |
| | 15:00 | 40 7000미라클 - 열방을 향하여 | 00 생방송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굼 | 00 [말씀] 박성일 목사(필라델피아기쁨의교회)<br>40 생명의 삶 | 20 영혼의 양식/양천교회 김동인 목사<br>30 TV 설교/한성교회 도원욱 목사 | 00 2024 명성교회 3월 특별새벽집회<br>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
| | 16:00 | 30 생명의 말씀-권영구 목사(오병이어교회) | 00 말씀의 샘터 성찬교회 오원호 목사<br>30 말씀의 샘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 |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영문)<br>20 케빈 드영의 아브라함과 언약<br>50 [말씀] 안광복 목사(상당교회) | 00 CBS성서학당:요한계시록 5강 - 송태근 목사 "일곱 별의 비밀" (본문 - 요한계시록 1:12-20)<br>50 CBS 교회소식 | 00 내 삶의 행복<br>5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
| | 17:00 | 00 사랑의 말씀-오정현 목사<br>50 오정현 목사의 비전묵상 3분 미라클 | 00 말씀의 샘터 순복음축복교회 오영대 목사<br>30 말씀의 샘터 순복음금정교회 김형근 목사 | 30 [말씀] 김다위 목사(선한목자교회) | 00 믿음의 대화 36.5<br>40 크리스천칼럼<br>50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 00 2024 명성교회 3월 특별새벽집회 |
| | 18:00 | 00 생명의 말씀-김록이 목사(그레이스힐링교회)<br>30 말씀노트<br>40 다니엘기도회 | 00 행복플러스<br>30 여의도침례 수요 필 워십<br>50 더 메시지 | 10 온누리 미래 & 가족 축제<br>40 퐁당 비디오가게<br>50 [말씀] 권혁빈 목사(씨드교회) | 10 잘 믿고 잘 사는 법<br>30 TV 설교/남양주한마음교회 남상진 목사 | 30 성지가 좋다 - 국내편 |
| 저녁 | 19:00 | 30 광림의 시간 | 00 조용기 목사, 명설교 | 30 이스라엘로 〈오십쇼〉 | 00 TV 설교/영광제일교회(이기웅 목사)<br>30 TV 설교/정동제일교회 천영태 목사 | 00 말씀의 창 - 인천제2교회 노원석 목사<br>30 명성교회 수요기도회 |
| | 20:00 | 30 생명의 말씀-주진 목사(세한교회) | 00 명사들의 명강<br>30 말씀의 샘터 감일교회 차영아 목사 | 00 어메이징 그레이스<br>4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 00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 | 3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br>40 복음강단 - 서울은혜교회 김태규 목사 |
| | 21:00 | 00 CTS 뉴스<br>40 내가 매일 기쁘게 | 00 세상을 깨우는 말씀 훈민복음<br>30 다큐 더 로드<br>50 GOODTV 뉴스 | 00 창동염광교회 주일예배 | 00 CBS성서학당:갈릴리 산책 40강 - 조성욱 목사 "예수님의 레시피"<br>50 CBS 뉴스 | 10 다시보는 성지가 좋다<br>30 삶의 씨앗이 되는 소리 C'seed(씨드) |
| | 22:00 | 30 CTS 특집다큐 | 10 이단사이렌 | 1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br>20 잇쉬의 서재 시즌2<br>50 저스트 텐 미닛 〈달빛마을〉 | 10 새롭게 하소서 | 10 다시보는 성지가 좋다<br>30 삶의 씨앗이 되는 소리 C'seed(씨드) |
| | 23:00 | 20 CTS두란노 성경교실<br>50 신앙에세이 | 10 2023 다니엘기도회 | 00 J.D. 그리어의 다윗의 삶<br>30 생명의 삶<br>50 바이블 프로젝트 〈구약〉 | 00 주만찬<br>20 잘 믿고 잘 사는 법<br>4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 | 00 이석 목사의 잃어버린 복음을 찾아서<br>50 리바이츠워십 |
| | 24:00 | 00 콜링갓 | 00 젊은이의 예배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 |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br>20 CGN 비전특강 | 00 CBS 아카데미 숲<br>50 샬롬 쌀롱 | 00 사랑의교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
| | 1:00 | 00 김병삼 목사의 '하나님의 음성'<br>30 2023 다니엘기도회 | 00 GOODTV 오늘의 예배<br>30 월드미션투데이 | 00 [말씀] 이웅조 목사(갈보리교회)<br>40 [말씀] 김용훈 목사(열린문장로교회) | 00 다니엘 기도회<br>40 CBS비전특강/CBS 비전특강 | 00 선교는 지금 2 |
| | 2:00 | 20 힐링스토리<br>30 CTS한밤의 찬양 | 00 명설교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br>30 이욥 목사의 성경의 맥 | 20 [말씀] 김형석 목사(지구촌교회) | 30 TV 설교/양곡교회 지용수 목사 | 00 THE 깊이 궁금한 신앙, 몰랐던 이야기 성지편<br>40 김병삼 목사의 매일만나 365 〈주님은 나의 최고봉〉 |
| | 3:00 | 00 7000미라클 열방을 향하여<br>50 은혜로운 찬송이야기 | 00 GOODTV 다큐스페셜 | 00 [Global Sermon] R.T. Kendall's Word & Spirit<br>30 [말씀] 류응렬 목사(와싱톤중앙장로교회) | 00 올포원 | 00 만나 워십 |
| | 4:00 | 00 클래식 생명의 말씀 김선도 감독<br>20 오늘의 양식<br>30 TV새벽예배 만나교회 | 00 새벽을 깨우는 기도<br>30 새벽을 깨우는 말씀 예능교회 조건희 목사<br>55 365 새벽기도 생방송 1부 | 10 [말씀] 박성근 목사(남가주새누리교회) | 00 CBS성서학당:열왕기서 12강 - 김기석 목사 ""솔로몬 시대의 종말"" (본문 - 왕상 11:1-40)<br>50 CBS 교회소식 | 00 다시보는 성지가 좋다<br>20 성지가 좋다 - 국내편<br>50 힐링토크 회복 플러스 |

우리 마음속 첫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전 여기서만 관리받아요"

당신의 모든 것에 집중하니까
전문가의 안정적인 1:1 자산관리를 만나보세요

자산관리의 A TO Z

TWO CHAIRS

전문가의 안정적인 1:1 자산관리, TWO CHAIRS

|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 TWO CHAIRS 기본서비스 | TWO CHAIRS 특화서비스 |
| --- | --- | --- |
| 고객별 자산현황과 투자성향에 따른 포트폴리오 추천 및 세무, 부동산 분야 전문가 상담 지원 | 전용 상담공간, 대여금고 서비스, 시크릿뱅킹 서비스, 해외 유학 · 이주 상담 지원, TWO CHAIRS 매거진 | 호텔, 다이닝, 한우 배송, 가전, 꿀머니 등 |

※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는 가까운 영업점 전담직원에게 문의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 TWO CHAIRS 기본서비스는 우리은행 TC등급 이상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이며, 영업점 사정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TWO CHAIRS 특화서비스는 금융거래 현황에 따라 선정되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은행 사정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우리은행 고객센터(1588-5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4-1824(2024.02.23~2025.02.26)

우리은행